



2

198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7. 2호

(루계 472)



◆◆◆◆◆◆◆◆◆◆ 차 례 ◆◆◆◆◆◆◆◆◆◆

불타는 흙모의 세월과 함께	4
축복받은 새 도시	5
사랑의 해빛속에	5
우리에게 안겨주신것은	6
안 념	7
불 빛	17
조선의 기쁨	26
그날의 총성을 들으며	26
당이여 ! 그대를 우러러	27
농장벌에 흐르는 사랑의 계절	28
서해갑문 건설자 고향에 왔네	28
눈꽃날리는 2 월이 오면	29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 형상을 위한 예술적탐구	31
동화문학의 빛나는 본보기	36
잊을수 없는 모습	44
무지개 비낀 창광원에서	46
세월을 찾은 사나이	49

백두산밀림이여	58
백두산노을이 내린다	58
복받은 이름이여	59
눈이 내린다	60
땅과 청춘	66
파도소리	66
잔물에 정들어	67
우리는 웃으며 헤어졌다	68
저녁노을은 바다위에 붉은데	68
어서 가자 저 언덕으로	69
속담풀이	72
내 인사를 받아다오	73
내 뛰어들고싶구나	73
탄부들에게 영예를	74
언제나 내 마음은	74
탄부의 차림새	75
석탄과 서정시	75
진실한 사람들	75
출장은 사람	76
나는 50 대의 청춘	77
반전, 평화의 이름으로	78
평 화	79
고요한 강기슭에서	79
내 고향 열두삼천리	80

불타는 흙모의 세월과 함께

강현세

봄이 시작되는가

백두령봉.

설원의 눈석이, 눈석이

봄의 서정이 조용히 흐르는 소리

립춘이 지나자

2월의 명절

경사로운 계절이다

봄이 태동하는 소리

사나운 눈보라

산천을 묻었어도

백두설령이 부르는 봄의 서곡

밀림에 하얗게 피고피는

눈꽃, 백두의 눈꽃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흙모하여

땅도 철을 앞당기여라

이 가슴에 이른봄의 훈향

흙모의 정을 안겨준다

아, 그이를 우러러모시여

젊어지는것 어찌 사람뿐이라

눈속에서도 삼라만상이

은덕을 노래하는 행복한 땅이여 !

내 지긋한 나이에

그이를 흙모하는것은

빛나는 령도와 예지에 매혹되어

찬란한 해발을 안았고...

불타는 흙모의 세월과 함께

매혹된 나의 녀

그이의 예지를 받아안았기에

빛나는 그 영상 가슴에 새겨안았노라

나의 흙모여 !

너는 무엇을 안았던가

세계에 빛내이신 예술

황철의 자동화의 봄

조선이 나아갈 휘황한 길을 안았노라

거창한 서해갑문

광복거리와 전국의 대건설장

통이 크신 그이의 심장

그 향도가 인민의 녀을 매혹시켰노라

그이는 사상의 영재

주체의 찬란한 해발로

자주사상의 궤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온 누리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시는

장엄한 진군가를 창조하시고

현명한 령도로

이 땅에서 세계의 래일을 보게 하셨나니

충성에 불타는 나의 흙모여 !

내 마음 백두령봉

그이의 고향, 밀림속 오솔길에서

조선의 해돋이를 안았거니

심장에 봄이 와야

쏟아지는 해살이 따사롭더라

조선의 새봄이여 !

위대한 사랑을 안고 싹이 트는 계절

이 땅에 활력을 준 계절이여

2월에 시작된 조선의 봄은 찬연하여라

오, 백두설령 천고의 밀림

눈꽃속에서 태동한 조선의 새봄이여 !

축복받은 새 도시

차영도

알고나 있은듯
도시는 기다렸네
약속이나 있은듯
꿈뻑쓰끼는 기다렸네

꿈뻑쓰끼는 갓 건설된
쏘련의 새 도시구역,
때맞춤 경사로이
우리 수령님 모시였네

모시여 친근하신 그이
벗처럼 허물없으신 그이
새로 일떠선 도시는
우리 수령님을 첫 귀빈으로 모시였네

수령님께선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고
대륙 멀리에 일어난 이 도시를
또하나의 인류공동의 창조물로 기뻐하시며
미소도 지으시고 손짓도 하시고

그이는 금방 크레물리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쏘련인민의
고동높은 심장의 박동소리를 듣고 나오신분
인류평화의 밝은 길을 함께 설계하고 나오신분

그이께선 준비하게 일어난 새 살림집들이
억센 평화의 리념처럼 기쁘시였고
형제나라 벗들의 의지처럼 미더우시여
다시 한번 도시의 앞날을 축복하셨네

이제 이 도시에선
거창한 생활의 숨결이 탄생하리
어린 가로수들은 억센 뿌리를 내리고
봄이면 꽃향기 창가에 흘러들리

아이들은 쉬임없이 태어나고
창조의 노래는 끝없이 울리려니
해빛같은 수령님의 축복받은 꿈뻑쓰끼는
영원히 생활의 도시, 평화의 도시로 번영하리라

사랑의 해빛속에

최장수

밀이삭에 옷자락 스치시며
백두고원에
어버이수령님 오셨네
구름도 쉬어오르는 백두고원
감격에 목메여 푸른 숲도 설레고
산새들은 기쁨에 겨워
깃을 치며 날아오르는데

그이께서는 걸으시네
풍요한 이 벌에
못다 준 사랑이 있으신듯
묵묵히 옮기시는 사색의 자욱자욱...

준엄한 항일의 나날
이고장에 머무르셨던 숙영의 그 아침
산나물김치의 산뜻한 그 향기
이 시각 바람결에 풍겨오는듯

문득
발걸음 멈추시였네
길옆의 키낮은 덤불속에서
한송이 하얀 갓꽃을 꺾어드셨네

기쁘시여 기쁘시여
갓꽃을 손에 드시고
그이께서는 말씀하시네

-보시오, 이 갯꽃을 !
갯꽃이 피는 땅에
남새인들 왜 안되겠소
우리 과학자들과 함께
이교장 인민들을 도와줍시다.

아 -
끝없이 열리는 푸른 하늘이여
훈풍에 물결치는 밀림의 바다여
북방의 찬바람
순간에 다 밀어내는 사랑의 햇빛이여

땅이 생겨 몇만년
곳은날 마른날 가림이 없이
이 길따라 사람들 수없이 오갔건만
무심히 지나보낼 갯꽃-
사랑의 그 햇빛속에 피어나
오늘은 백두고원에
남새바다 펼쳐졌나니

아, 사랑의 햇빛
비쳐가는 그 끝은 어드메나
그 햇빛 고루고루 비쳐가는 이 땅엔
산 높고 골이 깊어도
외진곳 따로 없으랴

우리에게 안겨주신것은

김봉운

먼 출장길에서 돌아오는 밤
해방산언덕 불밝은 창가를 우리를 때
이른봄 오산덕기슭에 만발한
백살구꽃, 진달래꽃을 바라볼 때

이 가슴 이리도 뜨겁게 설레며
가슴속 생각은 더더욱 깊어지고
우러르면 인자하신 항일의 녀전사
어머님의 그 영상 어려오나니

품은 뜻 그 얼마나 뜨거워
그리도 소중히
눈보라 천리길에
품속에 젖은 행전 말리웠던가

받아안은 그 임무
그리도 귀중해
룩백벌의 군복을 다 지은 그 아침
녀전사의 그 웃음 새벽노을로 비꼰던가

가슴속 가장 깊은곳에
간직한 그 신념 그리도 굳세여
적탄이 비발치던 대사하의 그 언덕을 이어
사령부를 지켜선 영원한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앞에 서계시는것인가

오, 녀전사가 안겨준 그것은
불속에서도 물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마음
그대로 마를줄 모르는 충성의 샘

아, 그것은
세월이 흐르고 강산은 변해도
세대는 바뀌우고 혁명은 간고해도
한생토록 변함을 모르는 신념의 산악

청춘은 바쳐도
목숨은 버려도
그것만은 순간도 버릴수 없는
우리 삶의 전부

안녕

1

폭우가 쏟아져내린다. 짹짹 퍼부어대는 그 비속을 뚫고 승용차 한대가 달린다. 차는 가끔 진창길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하고 장마비에 패인 도로를 예들기도 하면서 몹시 굼뜨게 달렸다.

리인석지배인은 좌석앞의 손잡이를 꼭 쥔채 초조한 눈길로 밖을 내다보고있었다. 두루미설 간석지건설장에 나가있다가 지금 사업소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인석은 오늘아침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고계신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순간부터 그는 수령님께서 방금이라도 자기네 간석지를 찾아주실것만 같은 상념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2년전 간석지마을에 찾아오셨던 수령님께서 앞으로 꼭 다시한번 들리겠다고 말씀하시였기때문이었다.

섬에서 종합기업소까지는 룡도로 2백리길이 잘되었다. 허나 그는 떠난 시간으로 보아 아침 9시쯤이면 녀근히 들이대리라 생각했었다. 그랬던만큼 오전중으로 지도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일련의 조직사업을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무더기비에 험해진 도로때문에 시간이 여간 더디지 않았다. 그는 또 다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같길은 겨우 절반밖에 측내지 못했는데 오전시간이 거의 지나가버렸다. 했던만 승용차는 그의 초조한 심정에는 아랑곳없이 숨가쁜 엔진소리를 내며 도무지 감탕길에서 헤어나지를 못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덜컥 벗어섰다.

《젠장! 도로가 또 말썽인가?》

그는 차문을 열고 닝큼 뛰어내리었다. 설흘한 비물이 신경을 자극하며 목언저리로 흘러들었으나 타할 경황이 못되었다. 길이 많이 상했으면 정말 야단이다. 그는 진창을 텅기며 차앞으로 급히 걸어나갔다. 도랑창처럼 움푹 패워져나간 길복판으로 싯누런 흙탕물이 팔팔 목이 메게 흘러내리고있었다.

인석은 대뜸 얼굴을 찌프리었다.

(이 도로에는 주인이 없는가?저 지경이 되도록 방임해두다니...)

그는 지금 자기의 바쁜 길을 막고있는 장본인인 그 도로관리원이 눈앞에 있더라도 하다면 당장 벼락을 떨어구어 무책임한 못된 버릇을 푹 때여주고싶은 격한 심정에 사로잡혔다. 허나 다음순간 제스스

김성관

로 놀라며 쓰겁게 웃음을 지었다. 이 도로로 말하면 간석지건설장에 물동을 실어나르기 위해 자기네가 낸 림시도로로서 제정된 관리원에 따로 없을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들은 별로 리용하지조차 않는 간석지전용도로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결국 이 도로의 주인은 지배인인 인석이 자신이며 길을 책임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람도 다름아닌 자신이었던 것이다.

젊은 운전사는 굴포진 도랑창에 막돌을 주어다 처넣기 시작했다. 인석에도 말없이 운전사처럼 했다. 만일 래일이라도 수령님께서 우리 기업소를 찾아주신다면 이 길로 오시게 될것이 아닌가. 불쑥 이런 생각이 들자 인석은 그만 정신이 번쩍 들었다. 2년전에는 합숙을 잘 돌보지 못해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었다. 더우기 그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이께 앉으실 결상하나 변변히 권해드리지 못하였다. 헌데 그이께서 이런 험한길을 또 걸으시게해서야 될 말인가.

인석은 이번 수령님의 현지도를 그이의 안녕을 위해 제손으로 직접 무엇인가 보살펴드릴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고도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도로가 이모양이니... 미리 정리해놓지 못한 자신이 여간 민망스럽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백번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랴. 한시바빠 사업소에 도착하여 대책을 세워야 했다. 그는 정신없이 막돌을 주어다가 도랑에 처넣었다.

승용차는 점심때가 가까와올무렵에야 마을에 들어섰다.

어느덧 비는 멎고 툇 터진 구름사이로 물기머금은 해빛이 유난스레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차는 마을 복판을 꿰질러 쏘살같이 달렸다. 헌데 합숙앞에 새까만 승용차 한대가 서있는것이 아닌가.

(응? ! 혹시 벌써?...)

인석은 긴장하여 급히 차를 세우게 했다. 삐익-하고 쇠굽히는 소리를 내며 차는 급정거를 했다. 그는 용수철 텅기듯 차에서 뛰어내리자 합숙으로 달려들어갔다. 어딘가 옷층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린다.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 첫턱에 있는 휴계실에서 나는 말소리였다. 그는 잠간 귀를 강구었다. 수령님께서 오신것 같지는 않았다. 아마 어느 수행일군이 실정을 료해하려 먼저 온것이라고 생각하며 휴계실로 들어서던 그는 문가에 굳어진듯 서버렸다. 넓은 후계실 한복판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환히 웃으시며 서계셨던것이다.

《지배인동무!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두루미섬에서 들어오는 길입니까? 아침에 우리 동무들한테 좀 알아보라 했더니 그쪽에 나가계신다더군요.》

그이께서는 활달하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몇걸음 마중나오시었다. 인석은 미처 인사도 올리지 못한채 방금 들어오는 길이라고 대답올렸다.

《수고했습니다. 헌데 옷이 젖은걸 보니 중도에서 어지간히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감기 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이의 옷도 축축히 젖어있었다. 아까 인석이 된비를 맞으며 패인곳에 막돌을 쓸어넣던 그쯤 어디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역사를 하신것이 틀림없었다. 인석은 죄송스러워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저야 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오히려...》

《아, 난 일없습니다.》

그이께서는 얼른 한손을 흔드시며 그의 말을 밀막으시었다.

《이렇게 와서 잘 꾸린 합숙을 보니 피곤이 쏙 풀리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주인도 없는데 합숙을 돌아봐서 안됐습니다.》

그이께서는 우선우선하게 말씀하시며 뒤로 돌아서시었다. 밝은 햇빛이 흘러드는 창가에 화려한 꽃문양이달린옷을 입은 몸매 날씬한 처녀가 방실거리며 서있었다. 설계실 사도공 림영실이였다.

그의 옆에는 중년의 합숙관리원이 황송한 몸가짐을 하고 서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을 가리키며 스스럼없이 말씀하시었다.

《저 동무들과 같이 좀 돌아보았습니다.》

영실이 서있는 창덕에 보통크기의 두 화분이 놓여있었다. 하나는 월계수, 다른 하나는 만리향이였다. 두 화분이 다 아지마다 몽실몽실 꽃봉오리가 지기 시작한것들이였다. 그 생신한 화분들로 해서 방안의 공기는 한결 더 맑아진듯싶었다. 뽕뽕하게 영어가는 꽃봉오리들과 처녀의 밝은 얼굴을 잠시 정겹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 말씀하시었다.

《지배인동무는 참 좋은 동무들을 두고있습니다.》

인석은 그 말씀에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무엇을 녀두에 두고 그러시는것인지 가늠이 되지않았던것이다. 보매 그이께서는 영실이를 퍼그나 친숙하게 여기시는것 같았다. 인석에게 생각되는것이란 얼마전에 그의 휴가신청서에 수표를 해준것뿐이였다. 고향이 정주라고 했던것 같다. 허나 휴가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겠는데 그가 어떻게 갑자기 합숙에 나타났는지 알수 없었다. 더우기 그이께서 영실

이를 기록해하시는 까닭이 무엇인지는 암만해도 짐작이 안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석의 그 의문을 풀어주시기라도 하듯 말씀하시었다.

《저 영실동무가 수령님의 현지도소식을 방송에서 듣고 집에 더 머물러있을수가 없더라지 않습니다. 수령님께서 자기네 합숙에 꼭 들리실것만 갈구 또 두루미섬에도 나가실것 같아서말입니다.》

그러니 저 화분은 영실이 휴가로 갔던 고향집에서 가지고왔단말인가?

그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수령님 다녀가실 합숙에 꽃을 피우고싶어 자기 어머니 애지중지 가꾸던것중에서 꽃봉오리가 진것만 골라가지고 떠났는데 명림에 와보니 오늘따라 손님이 많은지라 그 뻘스에 타기만하면 꽃봉오리들이 모두 상할것이 뻘했다. 그래 할수없이 40 리길을 걸을 차비로 떠났다는것이다.

그이의 음성에선 자식의 아름다운 소행을 두고 대견해하시면서도 애처로움과 걱정을 감추지 못하는 친부모의 애정이 그대로 넘쳐나고있었다.

《글쎄 그런 사정을 말하면 그 누군들 도와주지 않겠기에 화분을 들고 걸어서 떠날 생각을 했던말이요. 요행 우리를 만났기마정이지 저 동무가 큰 고생을 할번했습니다.》

영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자기를 자주 칭찬해주는바람에 부끄러움이 앞서 얼굴을 활짝 붉혔다.

《허허허...》

그이께서는 소리내어 웃으시며 휴계실안을 눈여겨 살펴보시었다. 은근하면서도 고상한 감을 주는 쪽무이마루바닥, 시원하면서도 넓게 트인 감을 주는 천정과 벽장식, 폭신한 안락의자들, 책상, 원탁... 모두가 방의 구조와 장식에 어울리게 배치되어 있어 방 전체가 하나의 조화를 이룬 예술작품같았다.

《잘 꾸렸습니다. 이제 저 만리향이 피어 향기까지 풍기면 훌륭하겠습니다. 여기가 수령님께서 들리였던 그 휴계실이요?》

인석은 돌연 얼굴이 후끈해짐을 느끼며 열결에 《예.》하고 대답올렸다. 2년전의 일이 선하게 떠올랐던것이다. 결상 하나 변변한것 없이 텅빈 썰렁한 휴계실, 안색을 흐리신채 말없이 서계시던 수령님... 수령님께 앉으실 자리 하나 권해드리지 못하던 자신의 그 송구스럽던 마음, 그때 난데없이 의자를 안고와서 조심스럽게 휴계실안으로 들여놓던 영실이, 어쩌면 지배인인 자기가 나어린 사도공만도 못한가싶어 더욱 웅색스러워지던 그 심정...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인석은 정중하게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뒤 그는 팔을 걷고 합숙을 꾸리는데 달라붙었다. 온 합숙생이 떨쳐나섰다.

합숙의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인식에게는 그때의 일이 더욱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바로 그 때문에 수령님을 이 합숙에 다시 모시고 싶은 인식이기도 했다.

《지배인동무, 그러기에 이제는 합숙을 잘 꾸려놓지 않았습니까.》

그이께서는 2년전에 어버이수령님을 잘 모시지 못했던 일로 해서 지금껏 속을 쓰고있는 그를 대하고보니 무엇보다도 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앞서 마음이 헉헉해지시었다.

《합숙이 괜찮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수령님께서도 기뻐하실것입니다.》

(아니 그럼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합숙에 오시지 못하신다는 말씀이신가?)

뜻밖에 영광스럽게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몸 가까이 뵈옵고 치하의 말씀까지 들은 이 시각 인식의 마음속에는 수령님과 지도자동지 두분을 함께 다시 합숙에 모시고싶은 불같은 욕망이 솟구쳐올랐다. 하지만 그이앞에서 너무 무엄하게 구는것 같아서 차마 그 생각을 입에 담아 말씀올리지는 못했다.

2

합숙을 다 돌아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천천히 계단을 내리시면서 인식에게 두루미섬 형편을 알아보시었다. 인식은 그곳의 공사실태를 하나 하나 말씀드리었다.

《그러니까 명년 상반기말에 가야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올해 봄 정무원 해당부서에서 실태를 료해할 때 보고된 문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이 없으시었다. 생각에 잠기신채 1층홀로 내려서신 그이께서는 조용히 영실을 부르시었다. 영실이 곁에 다가서자 그이께서 물으시었다.

《아까 차안에서 동무가 2년동안 전문 담당하여 사도공노릇을 했다는 그 설계기사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말해보오.》

《박문수입니다.》

《잘못듣지는 않았겠지만, 박문수...》

그이께서는 기억을 더듬으시듯 두눈을 가느스름히 뜨시고 허공의 한점을 응시하시었다. 그 이름을 들으시었을 때부터 껍 귀에 익으시였으나 언제 어디서 익혀두셨던지 딱히 짐작이 가지 않으시여 아까부터 은근하게 마음을 쓰고계시는것이였다.

허나 그런 내막까지 알리 없는 영실은 단지 그이께서 박기사의 이름을 다시 물으시는데 힘을 얻었

던지 자기 손으로 사도하여 간석지건설에 실현한 그의 설계들에 대해 신바람이 나서 말씀드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들어주시었다. 이따금 고개를 끄덕여 공감을 표시해주시기도 하시었다.

《기사동진 창안설계도 여러건 했습니다. 제가 휴가 떠나기 전날에도 밤을 새워가며 뭔가 자꾸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게 뭤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실이 약간 얼굴을 붉히며 더듬더듬 대답했다.

《음... 좌우간 재간도 있고 열정도 있는 동무로 구만.》

그이께서는 뒤집을 지신채 생각에 잠겨 거니시었다. 인식이 그이의 곁으로 다가서며 한마디 말씀드리었다.

《제작년에 덩어리블록을 창안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식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웃음을 약간 뒤로 젖히시며 얼굴에 반가움을 담으시었다.

《아, 이제야 생각납니다. 그 블록을 똑막이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그해 6월 당보에 크게 실렸던 그 기사동무말이겠습니까?》

《예 ...》

인식은 이렇게 대답을 올리면서도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배인인 자신도 언제 신문에 났던지 까맣게 잊고있는 그런 문제를 아직 기억하고 계시는데는 경탄을 금할수 없었던것이다. 온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정사를 한몸으로 돌보시는 그이가 아니신가. 《뭘 그리 놀랍니까. 간석지야 우리 수령님께서 매우 중시하시는 부문이 아닙니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흔연히 웃으시며 말머리를 돌리시었다.

《요즈음도 박기사동무의 그 덩어리블록이 은을 냅니까?》

《은을 냅니다. 저희들이 명년 6월까지 두루미섬 간석지건설공사를 마감짓자고 하는것도 그 덩어리블록을 믿기때문입니다.》

《지금 당은 기술자들을 보석처럼 아끼고있습니다. 그런 동무들을 적극 찾아내고 잘 돌봐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윽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합숙 현관으로 나서시었다. 계단앞에 승용차가 대기하고있었다. 인식은 느닷없이 마음이 초조해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합숙을 다시금 찾아주셨으면 하는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것때문임을 모르지 않았으나 그는 감탕에 폭 빠졌던 차바퀴를 보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져서 그것을 입에 담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도로가 저 모양이니...)

그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가벼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허나 다음순간 인석은 문득 그 무거운 생각을 떨어버리려는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자신으로서도 어쩔사이 없이 그는 그에게 도로를 잘 정리해놓겠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올렸다.

《그건 참 좋은일입니다. 현대 기왕 손덜바에는 전문가들과 의논도 하고 손색없이 해야겠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길을 크게 바로잡아야 할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건 넘려 마십시오. 저도 이제 복구현장에 나가겠습니다. 하루나 극상 이틀이면 잘해놓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말입니까? 빠른것은 좋지만 설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며칠로 그렇게 바투 찍어놓을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네 ?... 그럼 날자를 좀 늦잡아도 일없겠습니까?》

그리고는 부지중 수령님과 지도자동지를 다시 함속에 모시고싶은 자기의 그 심정을 드러내놓았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며 가벼이 고개를 끄덕이시고나서 너그럽게 웃으시었다.

《지배인동무의 심정은 알만합니다. 허나 수령님께서 시간은 매우 바쁘십니다. 함속에는 못와보시지만 두루미섬에는 나가보시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해 마시오. 그때 잘 모시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

인석은 조용히 대답올렸으나 벌써부터 가슴이 부풀어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사실은 아침에 수령님께서 간석지함속이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시였습니다. 그래 함속이나 잠간 보려고 시간을 내여 떠나왔습니다.

떠날 땐 불안한 마음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영실동무를 만난 때부터 그 불안이 가셔지기 시작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 마음가득합니다. 수령님께서 한시름 놓으실수 있게 되어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셨단 말인가.)

인석은 멀어져가는 승용차를 바라보며 경건한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러면서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도로를 두고 하신 말씀의 뜻만은 종시 알수가 없었다.

애당초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간석지함속에 들리시지 못하신다는것을 알고계시였다. 그렇다면 도로를 전문가들과 의논하여 잘 고쳐야겠다고 하신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또 도로를 많이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하신것은?...

인석은 착잡한 생각에 잠긴채 천천히 마을길을 거닐었다.

사택마을은 상상외로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있었다. 집집마다 회칠도 새로 하고 화단들도 알뜰히 가꾸었다. 울긋불긋 갖가지 꽃들이 피어있는 화단 둘레에는 꽃벽돌로 울타리도 둘렀다. 마을길은 어디라없이 산뜻하게 정리되어있었다. 길가며 집주변에는 벌써 깨끗한 모래를 퍼다가 깔아놓았다.

인석이 이제 협의회를 열고 도로복구와 함께 잘 정리하도록 토의하자던 그 사택마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구태여 협의회에서 논의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다. 누가 벌써 조직사업을 했는가? 언뜻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설레설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인석은 간석지사람들을 안다. 알아도 자기자신처럼 잘 안다.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현지 지도소식을 전해듣고 그들 스스로가 떨쳐나 마을을 정리했을것이다. 어찌 안그러겠는가? 그들은 거개다 이전날의 품팔이군이거나 그들의 자손들이다. 인석이자신도 열세살에 이곳 부두건설장에 소년인부로 끌려왔다. 아담하게 일떠선 간석지 마을은 그전에 《함바》가 들어앉았던 자리였다. 인부들은 성냥갑같은 함바에서 성냥가치처럼 끼워살았다. 왜놈들은 조선인부들을 한번 그어버리고마는 성냥개비이상으로는 치부하지 않았다. 이곳 부두공사때에도 놈들은 미리 사망통지서를 수천매나 찍어놓고 시작했던것이다. 그런 인부들과 그의 자손들이 오늘은 나라에서 귀중히 여기는 간석지건설자가 되었다. 여기 간석지마을에서만도 벌써 여러명의 영웅이 났다. 이름있는 박사가 나오고 교수가 나왔다. 기사, 기수는 수도룩하다. 인석이 자신도 아들딸 셋을 모두 대학공부를 시켰다. 옛날같으면 꿈엔들 상상이나 할수있었겠는가. dots 없이 노도 없이 인생의 쪽배에 올라 허허 창파우에서 부대끼던 그가 해방을 맞은것은 갓스물 청춘시절이었다. 하늘은 열리고 희망은 부풀었으나 그의 앞에 순란한 길만 있는것은 아니였다. 이제 멀지 않은 앞날에 60을 굽어보게 된 지금 곡절많은 인생행로를 돌이켜 그가 가슴사무치게 절감한것은 세상에 우리 수령님과 지도자동지 같은분은 다시 없다는 한가지 철리였다. 그것은 온 나라 인민이 이곳 간석지사람들이 자기들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심장속깊이 간직한 진리이며 신념이기도 했다.

인석은 어느덧 가슴이 훈훈해졌다. 아무쪼록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셔야겠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라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는 되어있었으나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딱히 종잡을수 없어 그저 답답할뿐이였다.

그는 문득 어버이수령님께서 두루미섬을 찾으시게 된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이 되새겨져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최선을 다해 잘 모시자면

서둘러야 했다. 그는 어서빨리 그 대책부터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사업소를 향해 활기에 넘쳐 걸음을 다그쳤다.

3

며칠이 지나갔다.

비가 오고 바람이 지동치듯 불었다.

인석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부랴부랴 도소재지로 올라갔다.

그이께서 계시는곳에 도착하여 대기하는 시간에도 그는 기상관측소에 줄전화를 걸어 날씨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귀맛닿는 소리는 한마디도 얻어 듣지 못했다. 앞으로 며칠간의 날씨도 오늘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기상관측소 일군들의 잘못이기라도 한듯 화를 내며 전화기를 놓았다. 사나운 날씨가 그저 얄밟고 원망스럽기만 했다.

그동안 인석은 두루미섬에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실 꿈만같은 기쁨을 안고 바삐 뛰어다니며 힘자라는것 정성을 고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놓았다. 배도 준비하고 두루미섬에 립시도로도 닦아놓았다. 하지만 날씨만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는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수령님께 두루미섬 현지지도를 날씨가 좋아질때까지 며칠만이라도 뒤로 미루어달라고 청을 드릴수도 없지 않는가.

인석은 문득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뵈는 기회에 그이께 좋은 날씨를 택하여 수령님을 모시고 두루미섬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자기의 심정을 말씀드리볼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자 어느 정도 마음이 놓여짐을 느꼈다.

그는 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는 방으로 갔다. 방안은 검소했다.

그이께서는 책상우에 휴대용 녹음기를 틀어놓고 수령님의 교시를 듣고계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식지배인의 인사에 따라 약간 고개를 숙여 답례하시며 부드러운 손짓으로 어서 들어와 앉으라고 자신의 옆자리를 권하시었다.

인석이 조용히 그자리에 들어가앉자 그이께서는 다시금 녹음을 들으시는데 열중하시었다. 년초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간석지문제와 관련하여 주신 수령님의 교시였다.

인석은 그이께서 녹음을 듣고계시는동안 어찌서 부르셨겠는가를 생각해보았다. 모름지기 수령님을 두루미섬에 모시는 문제때문이였을것이다. 인석은 그이께서 물으시면 제격 대답을 올릴수 있도록 그동안 자기가 한 일을 머리속에 두루정리해보았다. 미흡한 점은 적지 않았으나 그만하면 기본적인것은 해놓았다고 생각되였다.

녹음기가 멎은 다음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계시었다.

《수령님의 교시는 들으면 들을수록 그 뜻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어느 교시를 막론하고 기본골자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속연해진 음성이지었다. 그이께서는 녹음기를 책상 한옆으로 밀어놓으시고 깊은 사색이 담긴 눈길로 인식지배인을 바라보시었다.

《세상에 우리 수령님같이 인민을 위해 헌신하시는분은 없습니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로고를 도리어 기쁨으로 여기시는분이 우리 수령님이 아니십니까. 한평생을 그렇게 인민을 위한 길을 걸어오시는 수령님이시기에 우리는 더 잘 모시고 이해드려야 하는것입니다.》

그 절절한 말씀을 한마디한마디 가슴깊이 새겨가는 인식의 눈앞에는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이 선히 떠올랐다. 그때 인석을 비롯한 기업소의 몇몇 일군들은 간석지문제와 관련하여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평양으로 올라간 그들은 어느 초대소에서 대기하게 되였다. 이틀째 되는날 저녁이였다. 해가 지면서 날씨는 몹시 춥고 땀까지였다.

그들은 저녁식사를 마치자 중앙홀의 안락의자에 앉아 휴식을 하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때 아무런 예고도 없이 홀안으로 쑥 들어서시었다. 인식이네들은 얼른 일어나서 그이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가볍게 인사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약간 흥분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동무들, 수령님께서 나오십니다.》

인석이네들은 수령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문밖으로 나갔다.

《동무들, 서시오. 왜들 그러니까?》

인석은 문득 멎어서기는 했으나 그이께서 무엇때문에 서라고 하시는지 영문을 알지 못했다. 방금 수령님께서 도착하신다고 자신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는가. 그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의도를 종시 가늠하지 못한채 문밖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어서 안으로 들어들으시오.》

그이께서는 손짓으로 부르시었다. 초대소앞 가로수길에 벌써 까만 승용차 한대가 나타났다.

《저 차가 안보입니까? 어서 들어들으시오.》

그이의 음성은 다소 엄해지시었다. 인식이네들은 그제서야 어쩔수 없이 홀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비로소 마음이 놓이시는듯 부드럽게 말씀하시었다.

《동무들의 실정은 알만합니다. 그러나 동무들이 밖에 나가 수령님을 맞이하면 수령님께서 이 추운 날씨에 찬바람을 맞으시며 밖에 지체하게 되신다는걸 왜 생각못합니까.》

인석은 언제나 수령님의 안녕을 첫자리에 놓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숭고한 마음에 깊이 머리를 숙였었다...

그러니 이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비바람 사나운 그 험한 배길에 수령님을 모시자고 하실수는 없는것이였다. 인석이 자기가 주체넘게 그런 청을 드리지 않아도 그이께서 어련히 일을 바로 잡을것이 아닌가. 인석은 안도감을 가지고 그이께 비로소 용건을 말씀하시려는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석을 향해 반쯤 돌아앉으시였다.

《비바람이 거친데 먼길을 오게 해서 안됐습니다. 그레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두루미섬에는 나가보았습니까?》

《섬에 나갔다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럼 박기사동무랑 다 만나보았겠습니까?》

《예.》

《그랬으리라구 짐작을 했습니다.》

그이께서는 의미있게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영실동무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섬에 나가있습니다. 지도자동지께서 다녀가신 날 오후에 나갔습니다.》

《박기사동무의 일손을 도우려고요?》

인석은 그렇다고 대답물었다.

《그랬을테지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의미심장하게 긍정하시고나서 물으시였다.

《두루미섬에 나가서 박기사동무랑 그곳 동무들과 좀 구체적으로 의논해보았습니까? 사실은 그 얘기를 좀 듣고싶어서 불렀습니다.》 인석은 그이께서 물으시는 뜻을 선뜻 이해하지 못해 어정쩡히 그이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이께서는 의아해하시며 물으심의 폭을 좁히시였다.

《공사기일문제를 두고말입니다.》

인석은 대답을 드릴대신 그만 고개를 떨구었다. 립시 잔교며 도로를 내는데 바빠 뛰어다니다 보니 그런 문제를 두고는 미처 토론해볼 생각조차 못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못내 서운한 표정을 지으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였다.

《간석지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끊으시고 맞은편 벽을 향해 걸으시였다.

《그렇기때문에 수령님께서서는 이제 모진 비바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직접 두루미섬에 나가시게 됩니다.》

무거우신 음성이였다.

《네 ?》

예상을 뒤집어엎는 뜻밖의 말씀에 인석은 너무도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렇게야 어떻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

그것이 얼마나 불손하고 무엄한 대답인가 하는것을 미처 생각할 사이도 없이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부르짖듯 말했다. 그이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거칠은 비바람이 휩휩 태질을 하며 창유리를 후려갈기고있었다.

《이 구질은 날씨에 수령님을 모시고 바다로 나갈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쁩니다. 수령님 년세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배인동무도 아는것처럼 이제 환갑을 맞으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이께서는 뒤말을 더 잊지 못하시였다. 걱정이 차넘치는 가슴을 진정시키시듯 비바람이 아우성치는 창박을 내다보시며 잠시 서계시였다. 이윽고 인석을 향해 돌아서시며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어제밤에도 자정이 넘도록 간석지문제를 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인민을 위하시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하루라도 더 빨리 현실로 꽃피게 하여야 합니다.》

문득 그이께서는 말씀을 끊으시고 생각에 잠기신채 책상앞으로 다가가시였다. 빼람에서 지도 한장을 꺼내어 책상위에 퍼놓으시자 인석을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였다. 인석이 그이의 결으로 다가가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손으로 지도를 짚으시며 물으시였다.

《금년봄 정무원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두루미섬 공사가 끝나면 인차 고래섬과 도요섬을 막게 되여 있는데 그동안 계획을 좀 변경해야 되겠다고 생각해본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계획대로 내민다면 몇해안에 수만정보의 새땅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개 군과 맞먹는 새땅입니다.》

《웁습니다. 두개 군이지요. 그레 지배인동무는 그 문제를 두고 좀 생각해보았습니까? 두개 군을 새로 내오자면 군소재지와 리소재지는 어디에 두고 기본도로와 간선도로는 어떻게 짜고... 이런것들에 대해서말입니다. 이를테면 지배인동무의 손으로 일구는 그 새땅의 새살림을 두고말입니다.》

인석은 이번에도 선뜻 대답을 드릴수가 없었다. 그는 지금껏 그런 문제는 간석지건설사업소 지배인이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왔고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런것에는 거의나 관심을 두지 않았던것이였다.

《물론 이것이 지배인동무의 사업권에 속하는 일은 아닙니다. 허나 그런것을 다 머리속에 넣고있어야 집을 한채 짓고 도로를 새로 하나 뿔아도 두번 손이 안가게 드림없이 할수 있을게 아닙니까.》

언뜻 인석에게는 그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함속에 찾아오시였을 때 험한 도로를 두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키워졌다. 인식에게는 이제 비로소 그 말씀의 참뜻이 다 이해되는듯싶었다.

인식은 얼굴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더듬더듬 대답 올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는… 그런 각도에서 아직 …》

중시 그는 말끝을 맺지 못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서운해하시는 눈길로 잠시 그를 바라보시었다.

《내보기에도 지배인동무는 지금 자기 사업에서 뭔가 중심을 놓치고있는것 같습니다.》

낮으나 심중하신 음성이었었다.

《물론 이 며칠동안 지배인동무가 수령님을 두루미섬에 모시기 위해 바빠 뛰어다니며 수고를 한것만은 사실입니다. 잔교도 만들고 길도 새로 내고… 그것들이 다 중요한 사업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었다. 방안에 그이께서 조용히 마루를 밟고 거니시는 발자국소리만이 울리었다.

인식은 온몸이 뽀뽀 달아오르고 이마에서 진땀이 나는듯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있는것은 틀림없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안타깝게도 꼭 짚여지지가 않았다. 침묵… 침묵이 흐른것은 몇초에 불과했으나 인식에게는 웅근 한시간도 더 지난듯이 느껴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식의 그 심정을 헤아려보신듯 인차 말을 돌리시었다.

《지배인동무, 비가 멎는것 같습니다. 시원한 바람도 맞을겸 우리 함께 강가에 나갑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앞서 출입문쪽으로 걸어가시었다.

4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식을 데리고 숙소에서 얼마 멀지않은 강가로 나가시었다. 강기슭의 목잔교에는 그리 크지 않은 쾌속정 한척이 매여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기슭을 거니시던 그이께서는 강바투에 나서시여 하구쪽을 바라보시었다. 강하구는 짙은 구름속에 잠겨있었다. 검고 퍼렇게 독이 오른 강물은 태질하는 바람결에 향기하여 무엇이건 닥치는대로 들부서덜듯 성난 파도머리를 한껏 풀어헤쳤다. 두루미섬으로 가자면 그 파도를 뚫고나가야 했다.

그곳까지는 물길로 배리남짓했다. 한시간이면 즉할거리… 비록 멀지는 않은 길이였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제 풍랑사나운 그 물길우에 수령님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니 저으기 마음이 무거워지시었다.

만약 그리실수만 있다면 수령님께서 가시는 그 길우에 별처럼 빛나고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보석주단을 깔아드리고 수령님께서 가시는곳마다에 백화만발한 화원을 펼쳐드리고싶으시었다.

물기에 젖은 한줄기 강바람이 휘익 불어왔다. 인식은 찢어질듯이 펄럭이는 옷자락을 부여잡고 그이결에 말없이 서있었다.

그이께서는 인식지배인의 얼굴에서 무엇인가 심히 자책하고있는것 같은 회오의 표정을 문득 감수하시자 아무 생각도 없으시였던듯 웃으시며 반쯤 돌아서시었다. 혹시 자신의 그 무거운 마음이 어디엔가에 드러나. 인식지배인의 심정에 영향을 미치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때문이었었다.

그이의 눈길이 가닿은 강기슭에서는 쾌속정이 세찬 바람을 타고 배의 벌이줄을 팽팽하게 행구어 놓기도 하고 늦구기도 하면서 룰동적으로 목잔교를 쿵쿵 떠박지르고있었다.

그 모양을 잠시 눈여겨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배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었다.

《배가 아주 경쾌해보입니다. 첫눈에도 지배인동무의 성의가 느껴집니다.》

이윽고 생각에 잠기시였던 그이께서 말씀을 이으시었다.

《지배인동무, 모든것이 다 잘 준비되었으리라고 믿어지지만 이제 수령님을 모시고 두루미섬으로 나갈 배인만큼 다시 한번 살펴보는겸 우리 함께 배로 내려갑시다.》

그이께서는 스스럼없이 인식의 팔을 끼시고 물가로 내려가시었다. 갑판으로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인식의 안내를 받으시며 배칸을 하나하나 돌아보시었다.

맨나중에 전망실로 들어가시었다. 앞과 옆이 창문으로 된 크지 않은 아담한 방이였다. 방안에서는 향기로운 꽃냄새가 짙게 풍기고있었다. 량쪽 창턱에 월계수와 만리향 화분이 마주놓여있었다.

《아니, 이 화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와있습니까?》

그이께서는 저으기 놀라시었다.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두루미섬으로 타고 가실 배칸에 놓아달라고 영실동무가 저에게 맡겼길래 가져왔습니다.》

두개의 화분은 수령님의 앞길에 화원을 펼쳐드리고싶은 그이의 심정을 짐작하고있기라도 한듯 꽃망울을 터치고 활짝 피어났다. 하나는 수줍음을 타는 처녀처럼 빨강계, 다른 하나는 정교하고 순결한 함박눈송이처럼 희게… 며칠전 영실이가지고 올적만해도 겨우 꽃방울이 졌던 꽃이었다.

《기특한 동무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거들 영실을 치하시며 쏘파에 가서 앉으시었다.

《그때 영실동무가 차안에서 나에게 물기를 우리 수령님께서 무슨 꽃을 제일 좋아하시는가 하지 않겠습니까?》

(버릇없이 그런 말씀을 다 드리다니…)

《그때 내 수령님께서 영실동무의 그 화분래력을 아시면 세상에서 그 꽃을 제일 아름답게 여기실게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뻐하던지… 내 마음이 다 밝아지더라말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날의 일을 즐겁게 회상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인석지배인의 팔을 당겨 옆에 앉으신 다음 폭신한 좌석등받이에 한껏 기대시며 말씀하시였다.

《배가 괜찮습니다. 기관이랑 다 제대로 돌려보았습니까?》

《네.》

《오늘처럼 비바람이 사납고 파도가 거친 날에도 바다에 나가보았습니까?》

《…》

사실 그렇게는 해보지 않았었다. 그것은 이 배를 가지고 하필 파도가 사나운 날에 나갈 필요가 없었기때문이었다.

인석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그런 사정을 죄다 말씀드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소 심중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그렇다면 시운전겸 배도 좀 타볼겸 두루미섬까지 나갔다고요.》

인석은 그만 머리가 핑도는듯했다. 며칠전 그 험한 도로로 함속까지 오시게 한것만도 죄스러운데 어떻게 또 저 사나운 배길을 다녀오시게 한단말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 혼자서 나갔다 오겠습니다.》

인석은 간청하듯말이 말씀드렸다.

《함께 나가봅시다. 말동무라도 있어야지 지배인 동무 혼자서야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인석은 무엇이라고 더 말씀 올리지 못했다. 평범히 하신 말씀이었으나 거기에는 이미 그이의 확고한 결심이 숨배어있다는것을 느꼈기때문이었다.

배는 곧 잔교를 떠났다. 이윽고 배는 물결을 헤가르며 쾌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경쾌하게 울리는 발동소리를 들으시며 한동안 전망실에 앉아계시던 그이께서는 이윽고 갑판에 나서시였다. 바람이 아우성치며 마주 불어왔다. 물결은 높지 않았으나 맵찔다. 그 맵찔 물결이 배머리를 짹짹 들이칠 때마다 배는 사정없이 기울거렸다.

반소매상의자락이 마구 펄럭이고 물보라가 휘뿌려졌으나 그이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서계시

였다. 한덩어리의 물결이 배전에 부딪쳐 뽀얀 물갈기로 솟구쳐올랐다. 삽시에 구슬처럼 부서진 물보라는 휘몰아치는 바람을 타고 갑판으로 날아들었다. 철썩! 어쩔사이없이 그이께서도 물을 맞으시였다. 인석은 가슴이 한줄만해졌다. 허나 그이께서는 손바닥으로 얼굴의 물을 훔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지배인 동무, 이만하면 배타보는 맛이 납니다.》

강쪽은 점점 넓어지고 물결은 커졌다. 뜨음해였던 비까지 짹짹 내리기 시작했다. 인석은 당황하여 몇번이나 지도자동지께 어서 선원실로 들어가시고 말씀올렸다. 그이께서는 그저 일없다고만하실뿐 들어가실념을 안했다.

비발은 더욱 굵어졌다. 그이의 옷이 젖어들기 시작했다. 비옷을 드렸으나 갑판에서는 바람때문에 입으실수가 없었다. 인석지배인은 울상이 되어 그이앞에 나섰다.

《이젠 그만 선원실로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는 선실문을 쭉 열어제쳤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신중한 표정을 지으시고 문고리를 쥔 그의 손을 꼭 잡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생각깊은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다가 사정하듯 말씀하시였다.

《지배인동무, 나를 놓아두시오. 이제 수령님께서 두루미섬일대를 더 잘 보시고 구상을 무르익히시기 위해 갑판에 나와계실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미리 예견해두어야 합니다.》

퍼붓는 비와 솟구치는 물보라에 그이의 옷이 젖어들수록 인석은 더욱 죄송스러워지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미리 그이를 앞질러 풍랑이 사나운 조건에서도 시운전을 해보고 직접 이 배길을 밟아도 보면서 최대한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그이께 보고드릴 생각을 했더라면 그이께서 지금과 같은 수고는 하시지 않아도 될것이 아니였는가. 수령님과 지도자동지를 모시는 사업에 너무도 빈구석이 많은 자신을 발견하였으나 이번에도 때는 이미 늦었었다.

배는 바야흐로 바다에 접어들었다. 풍랑은 더욱 사나와지고 선체는 몹시 흔들렸다. 갑판은 자주 앙칼스럽게 달려드는 파도에 뒤덮이곤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배란간을 꼭 쥐신채 한가슴으로 파도를 밀어내고 배길을 여실듯 거연히 서시여 우렁이 형체를 드러낸 두루미섬을 바라보시였다.

《기관상태는 괜찮은것 같습니다… 수령님을 모시고 나갈 땐 여기서부터 속력을 떨거야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선장실앞에 수령님께서 앉으실 자리를

미리 마련해놓아야 하겠습니까. 눈여겨보니 거기가 그래도 물보라가 그중 덜 미칩니다.

《알겠습니다.》

인석은 겨우 그 한마디를 올렸을뿐이었다.

5

얼마후 배는 두루미섬에 도착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발판을 타고 잔교에 내리시였다. 잔교우를 거닐어보시던 그이께서는 흥떡이는 발판을 거듭 오르내리시면서 발딘개도 한단 한단 눈여겨보시고 발판우에 서시여 가늠해보기도 하시였다.

《발판이 자꾸 흔들려서 수령님께서 내리시기 힘들겠습니다. 그러니 수령님을 모시는 당일에는 배와 잔교가 수평이 되게 물때를 맞추어 발판없이 잔교에 직접 내리실수 있게 해드려야 하겠습니까.》

인석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잔교우에 서신채 하늘을 올려다보시였다. 비구름이 낮게 드리운 하늘에서는 또다시 굵은 비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또 한바탕 퍼부어댈 잡도리인것 같았다. 인석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전에 어서 되돌아서시기를 바랐으나 그이께서는 전혀 그럴 기색이 아니시였다. 그래서 인석은 그이께 이젠 그만 돌아가시자고 말씀드렸다.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갈수야 없지 않습니까. 지배인동무, 피곤하겠지만 섬에 들어가서 영실동무랑 박기사동무랑 건설자동무들을 좀 만나보고 갑시다.》

인석은 그만 무슨 말로 만류해야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비바람을 맞으시며 여기까지 오시게 한것만도 마음이 피로운데 이제 또 5리가 넘는 감탕길을 헤쳐가시겠다니 눈앞이 캄캄했다. 무엄하더라도 섬에 오르시게 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동무들은 후날에 만나시고 오늘은 그만 돌아가셔야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러는 인석을 다소 섭섭해하시는 표정으로 바라보시였다.

《지배인동무는 간석지에서 일하는만큼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간석지를 하루라도 더 빨리 잘 막는것이 수령님의 안녕을 위해드리는데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순간 인석은 그 어떤 거대한것이 불시에 날아들어 가슴노리에 힘껏 부딪치는것 같은 강한 충격을 느꼈다.

간석지는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시려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속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

지한다고 하시던 말씀도 그리고 박기사며 건설자들과 좀 의논해보았는가고 물으시던 말씀의 참 뜻도 사업에서 무엇인가 중심을 놓치고있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도 이제 비로소 명백하게 느껴졌다.

인석은 드디어 그이께서 지금 두루미섬에 나오신 중요한 목적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수령님께서 현지도하실 배길을 먼저 돌아보시고 모든 안전대책을 사전에 취해놓으실뿐만아니라 주요하게는 박기사며 건설자들을 만나 고무해주시고 공사기일을 하루라도 앞당겨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시려는것이였다. 두말할것없이 그것은 전적으로 지배인인 자신이 어느때나 중심으로 툭툭히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었어야 할 사업이였다.

받아안은 은정에 보답할줄 모르는 인간, 문득 그것이 다름아닌 자기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자 인석은 그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인자하신 모습을 대하기조차 죄송스러워졌다. 급기야 그는 초점 잃은 눈길을 잔교우에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리였다.

《아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오랜 기간 지배인사업을 해온다고 자부하면서도… 저는 수령님의 안녕하나 제대로 위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도자동지께 걱정만… 제가 무슨… 저는 지배인자격이 없는놈입니다.》

모진 풍랑과 비바람 속에서도 오직 수령님과 당만을 믿고 살아온, 그래서 수령님께서도 나중에 두고계시는 한 일군에게서 갑자기 심한 자기 질책의 말씀을 들으시니 그이께서는 도리어 마음이 아프시였다. 그래서 자신께서 이 오랜 일군에게 너무 불의에 강한 충격을 주지나 않으셨나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잠시 은정어린 눈길로 흰서리가 허영게 내몰린 그의 귀밑머리를 바라보시였다. 가슴속에 차오르는련민의 정을 금할수가 없으시였다.

《왜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오늘아침 수령님께서서는 지배인동무를 간석지에서 한뼘 고생하며 당을 받들어오는 동무인데 잘 도와주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고보면 아마 내가 그동안 지배인동무를 잘 돕지 못했는가봅니다.》

뜨거운 애정이 넘치는 그 말씀에 인석은 눈앞이 콧 흐려져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푹 떨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인석의 두 어깨가 가볍게 떨렸다. 그이께서도 눈곱이 축축해지시였다.

《일을 하다보니 빈구석이 좀 생긴겁니다. 허나 그것을 깨달은이상 조금도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자, 어서 섬으로 올라갑시다.》

비는 내리고 길은 몹시 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진창길을 디디시며 건설장을 향해 곧바로 걸으시었다.

얼마나 걸었는지... 그리 멀지않은 앞쪽에서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건설자들이 달려오고있는것이였다. 맨앞에 영실이가 서고 그뒤로 박기사가 따르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손을 흔들며 답례를 보내신 다음 그들을 향해 바삐 걸음을 옮기시었다.

바람이 불고 비도 여전히 내리고있었다. 현장을 다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석지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평퍼짐한 둔덕에 오르시었다.

그이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신채 수원들을 둘러보시며 비는 좀 맞았지만 두루미섬에 나온 보람이 있다고 만족해하시었다. 수령님을 모신 자리에서 건설자들은 두루미섬공사를 석달이나 앞당겨 완공하겠다고 일치하게 결의해나섰던것이다.

수령님께서는 건설자들의 기세가 매우 높은데 대해 다시금 기뻐하시면서 지배인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한 결과라고 거듭 치하해주시었다. 그럴수록 인석은 더욱 충구스러워짐을 느꼈다. 그 치하의 말씀은 응당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받으셔야 할것이였다. 그는 이 영광의 마당에서 그이를 수령님 몸가까운 앞자리에만이라도 모시려고 몇번이나 그이의 뒤로 물러섰다. 그때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겸허하게 미소를 지으시고 오늘의 주인은 지배인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등을 밀어 수령님앞에 내세워주시었다.

수령님께서는 고래등처럼 거뭇하게 드러난 기름진 간석지를 바라보시면서 저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하루빨리 개척하여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써먹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인석은 바삐 수첩을 꺼내들었다. 휴대용 록음기를 준비는 했으나 비바람때문에 록음이 잘되지 못할것 같아서였다.

퍼붓는 비때문에 수첩을 펴들수가 없었다. 그는 하는수없이 수첩을 가슴바투 붙인 다음 고개를 수그려 머리와 가슴으로 비를 막으며 수령님의 말씀을 수첩우에 새겨갔다.

수령님께서는 간석지건설은 나라의 종합적인 국토건설계획의 한부분이라든지,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 살게 될 후대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에도 어긋나지 않게 돌 하나를 쌓아도 문화적이면서도 만년대계로 되게 하며 집 한채를 짓고 도로를 하나

뽑아도 백년, 천년 앞을 보아야 한다고 세세히 가르쳐주시었다.

(수령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석은 수령님께서 자신의 사업에서 발로된 곁합들을 짊어가시며 너그럽게 타일러주시는것만 같아 연신 두눈을 습벅거리며 그이의 말씀 마디마디를 놓칠세라 열심히 적어나갔다. 그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재부가 자기의 가슴속에 자꾸 쌓여지는것 같은 뿌듯한 감정을 체험하며 새로운 수첩갈피를 또 번졌다. 그는 어언중 허리를 쭉 펴고 편리한 곧은 자세를 취했다. 웬일인지 불편이 느껴지지 않았고 아까처럼 수첩이 젖지도 않았다.

잠시 수령님께서 말씀이 없으시자 인석은 얼른수첩을 일별해보았다.

이때 인석은 문득 쭈르륵거리는 물소리를 감촉했다. 어디서 나는 물소리일까? 그는 피곳 발치쪽을 내려다보았다.

(영 ? ...)

이 어찌된 일인가. 비는 한본새로 계속 내리고있었다. 인석은 머리를 치는 그 이편 예감에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너그럽게 웃으시며 커다란 우산을 인석의 머리우에 받쳐들고계시었다. 자신께서는 퍼부어대는 비를 처음부터 몽땅 맞으신듯 웃웃이 흠뻑 젖으시었다. 인석은 솟구치는 걱정예 목이 메어 죄송스럽다는 말씀 한마디 드리지 못한채 뒤로 급히 물러서며 그 우산손잡이를 짊 쥐었다. 이제라도 그 우산으로 그이를 받쳐드리기 위해서였다. 했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벼이 그 손을 밀어놓으시며 조용하게 다정하신 목소리로 물으시었다.

《혹시 수령님의 교시를 놓친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지배인동무가 수령님의 교시를 잘 받았다니 됐습니다. 교시를 잘 받았다는건 수령님의 의도대로 일을 잘할수 있다는 전제로 되지 않습니까? 정말 잘됐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구실을 못하는 저같은 사람들때문에 그 웃이 언제가면 마를 날이 있어보겠습니까?)

리인석이라는 한 인간의 생에서 또하나 영생하는 새삶의 목표가 뚜렷이 정해진 지금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한없이 경건하고 숭엄한 생각에 잠겨들었다.

어느덧 눈동자가 흐릿해지더니 그의 두볼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불 빛

리일복

1

눈섭같이 가냘픈 초생달이
엷은 눈물우에 출렁이다가
베어낸 벼그루에 부딪쳐
거울쪼각처럼 부서지는 가을밤

구월산을 넘어온 서해바람이
끈덕지게 옷깃에 매달려
찬기운을 비수처럼 내흔드는
들판의 밤길

어둠속을 걸어도
마음의 길은 어둡지 않아라
들가 막바지 작업반까지
다 돌아보고 오는 이 길
동진의 가벼운 발걸음엔
어둠이 휘휘 감겨돌며
어리광 부리는듯...

농장에 나온지도 어언 달포
경제선동의 불바람 일으켜
벼가을을 열흘이나 앞당겨끝내고
벌써 흥겨운 탈곡도 시작했으니

-이만하면 !
이만하면 다른 농장 말아나간
아래일군들에게 면목이 설거라고
가슴은 흐뭇

-이만하면 !
이만하면 당의 방침대로
현실속에 깊이 들어온
군당일군의 체면도 설거라고
마음은 핫핫 !

군당선전비서 박동진
여느때없이 발걸음 가벼워라
희미한 발빛아래
논판마다 줄지어 늘어선 벼동가리들
반가웁게 우줄우줄 따라서는듯

때아닌 가을비 내려

우묵진 논들엔 물이 고여 출렁이지만
머칠안으로 그 물다 찌면
삽시에 벼동가리 들창나리라
그러면 올해엔 어김없이
이 농장이 통장훈을 부를테지 !

어깨는 들썩
발걸음은 가벼워
저절로 코노래 흥얼흥얼
멀어도 힘들지 않는
탈곡장 향해가는 가을밤의 들길-

이때 문득 뒤에서
가볍게 울리는 경적소리-
때아닌 때 이 외진 들길에
웬 차일까?

기차길이 먼 이곳
길은 좁아도 큰길이거니
이 바쁜철에
어두운 밤이라고 다니는 차 없을가만
가슴에 갈마드는 호기심

동진이 길옆으로 비껴서
차를 먼저 앞세워 바래이는데
어인 일인가?
전조등 밝히고
미끄러지듯 가벼이 달리던 승용차
저만큼 앞서다가 똑 멎고

차문이 소리없이 열리며
어둠속에 들려오는 웅근 목소리
《어디까지 갑니까 ?》

어느 옷기관 간부를
바쁜길에 멈춰세운 송구함 안고
동진이 서둘러 대답한다
큰 목소리로
《탈곡장까지 갑니다.》

《이리 와서 타시오.》
《조금 가면 됩니다.
어서 가보십시오.》

그래도 떠나지 않는
승용차 가까이로
송구스런 마음 걸음에 속도를 더해
동진이 급히 다가갔을 때

전조등의 후광에
차에서 내다보시는 환한 모습,
순간에 어둠이 몰려가고
동진의 눈앞이 밝아지는가
영채도는 안광
따뜻한 그 미소-

아! 그립고그립던 그이를
때아닌곳에서 때아닌 때에
이렇게도 뜻밖에 만나뵈다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순간에 목이 꼭 메여
깊숙이 고개숙여 인사드리는
동진의 뜨거워지는 마음
울렁거리는 가슴...

《군당선전비서 박동진입니다.》
군대식으로 차렷자세,
경건히 그이를 우러르니
가슴속에 방망이질하는
심장도 이런 땀 두세배로 커지는듯

고요하던 대기가 출렁!
순간 호방한 음성
찬 대기를 뜨겁게 휘저어놓는가
《마침 잘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어떻게 이런 길을 걷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선
못내 반가우신듯
차에서 내리시여 손을 잡아주신다
《왜 혼자 밤길을 걷습니까?》

40대 사나이도
어린애 마음 되게 하는
그 자애의 체취
얼음같이 찬 심장도
단숨에 불돌같이 달쿠어주는
그 뜨거운 포용력-

너무도 가까이서
너무도 급작스레
아름찬 영광 받아안은

동진의 마음 진정할 길 바이 없고
울리는 대답도 뜨거움에 젖어라
《저... 농장의 가을걷이 전투때문에...》

대답은 중간에서 끊어졌으나
그이께선 그의 마음속
벌써 다 헤아리신듯
다정히 등을 두드려주시며
기쁨어린 목소리로 대지를 울리신다

《나는 원래 군당일군들을
군당사무실이나 회의실이 아니라
밭머리나 두렁길에서 만나는것이
가장 리상적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참 기쁩니다!
이렇게 동무를 들길에서 만나니...》

밤길에 바빠
가실 길도 잊으신듯
발동을 끄지 않은채 세워둔
승용차도 안중에 없으신듯
천천히 논두렁에 들어서시는 그이앞에서
뜨거워지는 동진의 얼굴

늘 사무실에서 땀똥다가
처음으로 현실속에 들어온것을
그이께서 벌써 다 아시는것 같아
치하를 받을수록
옥죄여지는 동진의 가슴

《저... 흠이 젖어
미끄럽습니다.
논두렁도 비좁고...》
어쩔줄 몰라하는
동진의 등을 두드려주시며
그이께선 두렁길을 즐겁게 걸으셔라

《농촌에 나와
두렁길을 안건고 어딜 걷겠습니까
수령님께서 가을걷이를 걱정하시길래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형편은...》

농장원보다도
관리일군보다도
더욱 간절히
가을걷이를 근심하시는
그이께 기쁨이 될 대답

더 많이 드리고싶은 마음 담아

동진은 신이 나서 말씀올렸다
레년에 없던 가을걷이속도를
벌써 퍼그나 벼단을 축낸
탈곡장의 하루 실적을...

친 아버지앞에서처럼
농장실정 다 말씀올리다니니
마지막엔 동진의 입에서
자랑겨운 말까지 흘러나왔다
오직 그이께
기쁨만을 드리려는 그 마음인듯-

《당의 방침대로
아래에 내려와 일해보니
정말 사무실 책상앞에선 알수 없었던
많은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랑에 겨워
기쁨에 겨워
동진은 깨달을수 없었다
언뜻 그이의 안광에 흐른
한가닥 심려의 빛...

그래서
논판에서 아직 끌어들이지 못한
벼단이 많다고 그이 말씀하실제
동진은 가볍게 대답올렸다
《보기 드문 대풍이어서
벼단들이 논판에 쭉 깔린데다
가을비까지 내리어
트랙포트가 들어설수 없어 밀렸지만
일없습니다
며칠 지나 물이 찌면
와닥닥 해제끼겠습니다. 》

근심을 끼쳐드리고싶지 않은
그 마음으로
자기도 근심거리로 생각지 않는
대수롭지 않은 일인듯
동진이 선뜻 말씀올릴 때

무겁게 울리는 그이 목소리
《저렇게 벼단들을
여러날 물에 잠긴채 두어도
일없겠습니까?》

그 물음속에 깃든
깊은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동진
낮에 관리일군들에게서 들은대로
천진스럽게 대답올리는구나

《일없을것 같습니다. 》

심각해진 안색으로
논판과 동진을 번갈아보신 그이
다시금 심중히 물으신다
《일없다 ? !
그게 동무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농장사람들의 말입니까?》

의외로 심각해지신
그이의 물음앞에서
동진이 황망히 대답올려라
《작업반장들도
관리일군들도
다른 방도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 농장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다음엔 침묵
무거운 침묵...

대답을 올려야 하련만
그이께선 기다리시건만
침묵
납덩이같은 침묵...

어떻게
뭐라고
대답올리랴
작업반장들과 관리일군들 말만 듣고
농장원들의 말까지는
미처 들어보지 못했으니

관리일군들 말이면
그게 곧 농장원들의 말일거라고
생각한 그것이 잘못된것인줄
미처 깨닫지 못하고있었으니...

갑자기 그이의 발걸음
더 무거워지신듯
앞서시여 두령길로 걸으시는
그이의 손에서
밝은 전지불빛이
눈뿌리 아프게
물속의 벼단들을 훑는다

갑자기 물에 젖은 벼단처럼
온몸이 후줄근히 무거워짐을 느끼며
그이를 송구스레 따르는
동진의 가슴속에
알지 못할 불안과 죄스러움이

꿈틀- 뒤채인다

2

두렁길,
이 나라 들판의 하많은 두렁길에
그이 찍으신 자옥 그 얼마였던가

아직도 청산리의 논둑길엔
모내기철 모춤을 손에 드시고
진창길로 걸으신 그 자옥
뜻깊은 역사를 세상에 말하고

지금도 삼석의 두렁길은
수령님께 기쁨드릴 풍년열쇠 쥐여주시며
봄비내리는 들길에 자옥 남기신
그이의 사적 길이 전하고

창성, 대관의 밭두렁길도
신천, 안악의 논두렁길도
위대한 자옥우에 황금나락 무르익힌
이 땅의 자랑 누리에 웨친다

말하라, 이 나라의 들어여 !
잡초덮인 논두렁길이
언제 이토록 뜻깊은 길로
보석처럼 빛난적 있었던가

인민을 위한 길에서는
실오리같은 한가닥 두렁길에도
크나큰 자옥 새겨가시는
그이의 사랑을 다 안기엔
땅이여, 네가 너무 좁구나
그이의 은덕 빛내기엔
하늘이여, 네가 너무 모자라는구나

친애하는 그이
이 밤 또다시 이름없는 들판
좁은 두렁길우에 서시었으니
천갈래 만갈래
두렁길보다 더 살살이
이 나라 방방곡곡에 잇달아있는
그이의 사랑의 빛발 어이 다 헤아리랴

말없이 동진을 이끄시고
두렁길로 걸으시던 그이
다시금 전지불로
논판의 벼단들을 비쳐보시여라

불성사납게 무지다 만 벼동가리

물우에 척 누워있는 벼단들을
다시금 바라보시며 생각 깊으신
그이를 우러르는 동진의 송구한 마음

(물에 잠긴 벼단 !
그것이 그처럼 그이께 걱정을 끼칠줄
어이 알았으랴
우리가 전사의 도리를 다 못해
이렇게 그이께서...)

허나 동진은 알수 없었어라
나라일에 바쁘신 친애하는 그이께서
이 밤 인적없는 들판의 두렁길에서
그토록 가슴아파하신것이
결코 물에 잠긴 벼단때문만이 아니었음을

알지 못했어라
물에 잠긴 벼단을 무심히 넘겨보는
한 당일군의 그 태도속에서
당사업에서 놓쳐서는 안될
중요고리를 발견하신 그이 심중을...

두렁길로 걸으시던 그이
문득 물 고인 논판에 내려서신다
(? !)
만류할 사이 없이
어찌할 도리 없이
뒤따라 내려서며 동진이 헤덤빌 때

그이께서
물에 잠긴 벼단을 제끼시고
젖은 벼이삭 한개를 뿔아드시여라
밝은 전지불빛아래
확연히 드러나는 물에 부푼 벼이삭...

《보시오. 벌써
싹이 나오려고 부풀지 않았습니까.
그래 며칠 더 있어도
일없겠습니까?》

벼이삭으로부터
동진의 얼굴로 옮겨지는
그이의 시선
《...》

《벼알도 살아숨쉬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물속에 오래 있으면
싹이 나오든가 썩지 않겠습니까?》
《...》

무거운 벼이삭보다
더 깊이 숙어드는
동진의 머리,
마치 못된 일을 하다 돌킨
어린애와도 같이
죄책감으로
얼굴은 화끈 모닥불을 들썩듯
온몸은 그대로 논물속에 잠겨들듯-

다시금 심각히
그의 머리우에 올리는
친애하는 그이의 목소리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간절히...

《아까 두령길에서 말해줄수 있었지만
동무의 대답이
남의 말만 듣고 하는 소리 같아서
여기까지 왔습시다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보자고...》

어찌 알았으랴
그이 현지지도의 길에서
벌써 농장원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들판의 실례 다 헤아리셨음을-

그이앞에선
한점의 어둠도 있을수 없고
그이앞에선
밝혀지지 않는 일이란 티끌만큼도 없음을
다시금 가슴사무치게 느끼며
죄책감으로 무거운 동진의 마음-

물에 젖은 벼이삭을 드신채
다시 두령길을 걸으시며
친애하는 그이께선 나직이 말씀하셔라
준절히
그러나 뜨거웁게-

《동무는 관리일군들의 말만 믿고
군당은 동무의 말만 믿고
그것을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면,
그리하여 당중앙은 그에 따라
사업을 포치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후과를 빚어내겠습니까.

당일군이 눈이 어두우면
혁명이 길을 헤매게 된다는것을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농장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에 발동을 걸 생각 하지 않고
몇몇 일군의 말만 들으면
물우에 뜬 기름방울처럼
현실속에 들어와도 현실을 모릅니다.
나는 우리 당일군들이
주관주의를 범하는것이
제일 가슴아픕니다.》

물에 빠진 벼단들보다
당일군이 더 귀중해서
현실에 눈이 어두운
그를 건져주시려
깊은 밤 험한 두령길 걸으시며
가슴아파 말씀하시는
크나큰 그이의 뜻

예지에 넘친 그 뜻앞에
갑자기 번쩍 눈을 뜬듯
너무도 환히 앞이 밝아와서
동진의 눈시울 뜨거워왔다

(깊은 밤 들길에서 만나신
당일군을 두고 것처럼 기뻐하시더니
그이께서 얼마나 섭섭해하신가?)
빠져린 자책
심각한 회오-

기쁨은 못드린다 해도
걱정을 끼치다니
배은망덕도 분수가 있지
죄라면 이보다 더 큰 죄 어데 있으랴
눈물어린 가책
가슴쓰린 질책...

말없이 발걸음 무거이
그이께서 두령길을 걸으실수록
더더욱 죄어드는 동진의 가슴,
더는 참을수 없어
간절히 아뢰이는 목멘 목소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
말씀을 천백번 명심하겠습니다.
밤서리가 내리는데
어서 차에 올라주십시오 ! 》

동진의 마음을 헤아리신듯
그이께선 밝게 웃으시여라
《추워오는것은 참고

견딜수 있지만
이렇게 눈두렁길에서
당일군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데
이대로 그냥 가면
그런 형식주의가 어데 있겠습니까! 》

갑자기 들판에 울리는
호탕한 그이의 웃음소리,
밤서리에 얼어든 대기가
순간에 녹아내리고
자책으로 얼었던 가슴이
불시에 뜨겁게 녹아내리게 하는
아,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인간의 그 웃음소리 !

마치 당중앙의 집무실을
이 들판에 옮겨오신듯
현실속에 들어간 당일군이
어떻게 일하고 사고해야 하는가를
일일이 깨우쳐주시는 그이

한점에서 백천을 보시는 안광으로
두렁길에서 만난 한 일군을 통하여
우리당 사상사업의 편향을
예리하게 밝혀내시는
천리혜안의 예지여 !

하나를 통해 전체를 가늠해보시며
그것을 바로잡을 방도를
찬서리내리는 두렁길에서 밝혀주시는
령도자의 위대한 풍모여 !
문득 그이께서는
어두운 밤하늘에 시선을 보내신다
끼르륵 끼르륵-
드바빠 날아지나는
밤하늘의 기러기무리-

무엇을 찾아
그리도 바빠 가는것이냐
누가 그리워
그리도 간절히 우짚는것이냐

점점이 널린 별무리속을 누벼
성급히 어두운 하늘로 날으면서도
때를 놓치지 않는것처럼
정연히 줄짓는 일도 잊지 않는
정다운 계절조의 무리-

《날짐승들도 철을 놓칠가봐
저렇게 밤에도 길을 서두르는데
사람들이 걸음을 느장부러서야

어디 될 말입니까.》

웃으시며 하시는 그 말씀속에
숭고한 생의 철리가 스며있음을
사무치게 심장으로 깨달으며
다시금 승엄히 그이를 우러르는
동진의 가슴을 치며
밤하늘에 구성진 기러기울음소리-

끼르륵 끼르륵-
어두워도 길길을 확신한
정연한 대오의 길잡이가
마치 동진에게 무엇인가 속삭이는듯

사람들의 길잡이로
당일군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이 밤 깊이깊이 깨닫는
동진의 마음도 기러기떼와 함께
날고날았다
넓은 하늘로 동등...

3

밤
이름없는 들 한가운데
두렁길우에서
이 나라 혁명의 력사가
또 한페이지를 빛나게 아로새기는
뜻깊은 이 밤

두렁길이 끝나고
들길이 시작되는곳에 이르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선
동진의 손을 이끌며 차에 오르셔서라

탈곡장은 멀지 않다고
어쩔줄 몰라 동진이 물러섰건만
진흙탕에 어지러워진
투박한 솜신을 내려다보며
너무 딱해 작별인사 올리려 했던만

그이께선 기어이 이끌어 태우시여라
자신의 옆자리에
잠시라도 더
함께 있고싶다 하시며-

뜨거운 사랑을 싣고
끓어오르는 마음을 싣고
차는 들길로 서서히 달리고

달리는 차안에서
그이께선 다시금
동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다정히 일깨워주시여라

《우리 일군들이
자기가 배부르면
남도 배부르고
자기가 더우면
남도 의례히 더울 것이라고
한뼘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설사 군중속에 들어갔다 해도
군중의 마음속엔
들어갈수 없습니다. 》

웃음속에 깨우쳐주시는 그 말씀
천금보다 더 소중한
동진이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그 말씀속에
인민의 어버이이신
그이의 고매한 품모가 비끼여있고
우리 당일군들이 지켜야 할
사업의 참된 진리가 담겨있어
다시금 심장속에 뜨거이 새기고...

달리고 달리던 차가
어느덧 다달았구나
탈곡장으로 들어가는 갈림길
서운한 작별의 시각에...

스르르-
차는 벗어나고
동진이 성큼 내리자
친애하는 그이께서도
다시 차에서 내리시여라

새 전구로 떠나는 전사마냥
경건히 그이를 우러러 선
동진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그이 하시는 말씀 뜨거워라

《논판에 차나 트랙토르가 빠질 땐
소발구나 달구지를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문제해결의 열쇠는
대중의 심장속에 있습니다

부지런한 농사군이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듯이
우리 일군들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수박 겉 핥는 식으로 일해선
쫄정이밖에 거둬들일게 없습니다.》

태양과 같이 찬란한 빛발로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깨우쳐주셨어라
문서에 과문혀 사무실에서 맴도는것은
일군들에게 죽음과 같은것
설사 아래에 내려간다 해도
유람식으로 빙- 돌아보는것은
자기를 소경으로 만드는것

힘과 지혜의 무궁한 원천이며
사업과 생활의 참된 교사인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호흡을 같이하는 그속에
혁명을 전진시키는 열쇠가 있음을

깨우쳐주시였어라
군중속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사업의
성공과 승리의 첫 출발점
군중속!
이곳이 바로 일군들이 서야 할
영원불변의 초소이며
그들의 유일한 주소라는것을...

아! 자신의 모범으로
일군들을 깨우치시고
작은 사실속에서도
문제해결의 큰 열쇠를 찾아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하나의 싹에서 전반을 헤아리시고
하나를 통하여 백, 천을 불러일으키시는
그이는 탁월한 정도예술가
주체의 당사업방법으로
로동계급 당건설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는
비범한 혁명의 영재!

자식을 떠나보내는 다심한 어머니인양
자애의 미소 담뿍 받으시고
그이께선 다시금
동진의 잔등을 매만져보시며
근심스레 말씀하시여라
《날씨가 찬데

숨뱃저고리라도 걸치고 다니지
농촌에 나와선 뭐랴오.
몸이 뜨뜻하면 그만이지...》

그만 그이의 품에
얼굴 묻고 감격에 흐느끼고싶은
강렬한 충동을 애써 누르며
눈물머금고 서있는 동진의 손을
그이께선 다시금 꼭 잡아주시여라

《나는 동무가
당에서 바라는대로
일을 잘하리라 믿습니다.
명심하시오.
당일군이 줄면
인민이 줄고 혁명이 줄게 됩니다!》

믿음으로 가득차고
사랑으로 뜨거운
그 불같은 악수!

힘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안겨주시며
나아갈 앞길
환히 밝혀주시며
심장속에 무궁한 충성의 피 부어주시는
아, 크나큰 그 믿음!

《알았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
믿음과 사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충직한 전사의 숭고한 맹세를
목이 메여 그이앞에 아뢰이고
동진이 그이를 바래드리려 할 때
먼저 걸으라고
어서 먼저 탈곡장언덕길로 걸어가라고
그냥 서시여 바래워주시는 그이

문득 생각나신듯
무엇인가 차안에서 꺼내시더니
몇걸음 내디딘
동진을 다시 불러세우시여라

왜 그러실까?
헤여지기 아쉬워
발길 서슴어지던 동진이
급히 되돌아서 달려와라
영영 떠나고싶지 않은 그이곁에
순간이라도 다시 더 서보고싶은

그 강렬한 열망에 몸을 맡기고-

몇걸음 동진이쪽으로
마주 걸어가시던 그이
뜨겁게 안아주실듯
다시금 그의 어깨를 꼬당기시며
손에 꼭 쥐여주시는
그것은 크지 않은 손전지 !

아직도 그이의 체온이 스며 파스한
손전지를 두손에 받아들고
동진이 영문 몰라 할 때
자애에 넘치신 그이의 말씀-

《어두운 밤
낮선 두렁길을 다니다가
밭목이라도 접질리면 어떻게 하겠소
새것은 못되지만
내가 쓰던건데
받아두시오.

당일군이 가는 길은
언제나 밝아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하다 해도
앞은 어둡지 말아야 합니다 ! 》

불같은 그 말씀
해빛같은 그 사랑
심장속 깊이 심어주시고
그이께선 동진을 돌려세우시여라
어서 자기 초소로 떠나라고...

가장 뜨거운 감사와
가장 불타는 충성의 맹세를
그이앞에 올리고싶었으나
목이 메여

눈앞이 더운 이슬로 흐리어
동진은 어린애처럼 흐느끼며
돌아섰다
명령받은 전사가
자기 전투초소로 향하듯
그이앞에 충성의 인사를 올리고...

몇걸음 걷다 되돌아봐도
그자리에 서계시는 그이
그이의 따뜻한 손길인양
또다시 승용차의 전조등불빛
탈곡장이 바라보는 언덕까지
걸는 앞길 환히 밝혀주고있어라

다시 몇걸음 내디디다가
되돌아봐도
그 불빛 켜주시고
그냥 서시여
다정히 손저어주시는 그이의 모습

저도 모르게
불빛에 번쩍이는것이
두볼로 줄지어 흘러내리는것을 느끼며
동진은 가슴으로 뜨겁게 느껴어라

그이께서 비쳐주시는
불! 아, 밝은 저 불빛!
먼 태고적
인간에게 처음 불을 가져다주었다는
프로메테우스의 전설도 있지만
그것은 자연의 불이야기일뿐

우리의 지도자동지께서는
인민의 피끓는 심장에
영원한 신념의 불
사랑의 불을 안겨주시여
그것이 꺼짐없이
활활 타오르도록 해주시는게 아닌가!

불! 아 눈부신 저 불빛!
불타는 심장을 꺼내들고
몇사람이 나갈 진펄길 밝혔다는
단 꼬의 전설도 있지만
그것은 한갓 빛에 대한 갈망의 표시였을뿐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온 인민의 앞길을 밝히시고
온 인류의 나갈 길 밝히시는
영원한 등대불을 켜드시지 않았는가!

인간의 심혼에 불씨를 안겨주시고
인민의 심장에 등불을 켜주시고
인류의 진로에 해빛을 뿌리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찬란한 향도
그것은 영원무궁한 혁명의 광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비쳐주시는
그 밝은 불빛아래
저 혼자뿐아니라
우리 당의 모든 일꾼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견고있음을 심장으로 느끼며

그이결을 떠나고싶잖은 마음과는 달리
발걸음 재촉하는 동진이
언덕을 넘어설무렵
다시 돌아서 경건히 머리숙여라

먼 수도까지 험한 밤길에
부디 편안히 가시라!
아, 천리를 가도 만리를 가도
물속을 가도 불속을 가도
언제나 그 품에 안겨
그 은정속에 힘과 용기를 얻을
자애로운 품
은혜롭고 위대한 품이여!

문득 언덕너머에서
승용차 떠나는 소리
그 소리에 놀란듯
동진이 되돌아서 언덕위로 달려올라라

전사가 가는 앞길에
빛을 주시고,
영원한 사랑의 빛을 주시고
어두운 들길로 달리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승용차-

승용차는 달려간다
조국의 들판을 누비며
밝고 눈부신 불빛으로
삼라만상을 환히 드러내며-

인간의 심장에
언제나 꺼짐없는 불을 달아주는
그 불빛!

인민의 앞길에
영원히 어둠을 가셔주는
위대한 사랑의 그 불빛!

들판을 가로질러
두줄기 전조등빛으로
어둠을 쭉- 가르며
승용차는 저 멀리 사라져가도

동진의 눈에는
조국땅이 환히 다 바라보였다
이 시각, 이 땅, 이 강산엔
눈부신 빛발이 가득차 넘쳤다...

조선의 기쁨

무함마드 알 미썸리

해마다 기쁨안고
찾아오는 2월의 봄
그 봄을 안았기에
주체조선은 영생하리
언제나 젊음으로

조선이여 그대의 기쁨
그대의 궁지 비길데 없으라
김정일 동지를 모시여
그이께서 인민에 대한 뜨거운 믿음
불굴의 의지를 지니시고
조선을 이끄시기에

조선은 그이의 령도따라
위대한 백전백승의 나라로
사회주의락원으로
세계인민의 희망의 나라로 되었으라

축하하노라
위대한 아들을 모신 나라
조선의 영원한 봄을
조선에 보다 큰 사랑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노라

(필자는 수리아 기자)

그날의 총성을 들으며

김종원

언제나 그리운 그 영상
못잊어 내 찾아오면
어데나 소중히 펼쳐져있으라
어머님께서 사격하신 자리

염분진, 주을...
바다가의 바위도 기이한 모습 드러내고
산촌의 맑은물도 은구슬로 흐르는
아름다운 절경속의 사격터여서
바라보는 이 가슴
이리도 생각깊은것인가

가슴뜨거워라
준엄한 싸움길에 찾은 조국의 향취여서
길가의 들꽃 한송이
재물을 부리는 갈매기의 나래
그리도 소중히 바라보시면서도
어이하여 가신곳마다 총성을 울리셨는지

진정, 바라지 않았던가
어머님을 모시고
해방된 북변을 찾은 투사들
어머님께서 눈보라만리 헤치신 피로
이랑이랑 달려오는 맑은물에 다 푸시길
날려오는 솔향기에 다 가시기를

그래서 올린말도 꽃이야기
불러드린 노래도 봄노래
걸음걸음 더 큰 기쁨만이 넘치게

앞장에서 이끄신곳도
온천이 넘쳐나는 기묘한 바위터
고기떼 넘실대는 도래곶이었던만

푸른 숲에 담으시는 환하신 미소도
명중의 기쁨과 함께
더 밝으시였으라
경치가 좋아서 펼치시는 노래춤도
명중사격과 함께
더 흥에 겨우시였으라

다 헤아릴수 없으라
가시는곳마다
울리신 어머님의 사격총성에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얼마나 크셨는지

정녕 어머님께선 그날에
해방된 아름다운 조국강산
다시는 그 어떤 원썬도 넘겨보지 못한다고
하늘가득 혁명의 메아리를 울리시고
영원한 수호자의 자취를 남기시였거니

오, 오늘도 김정숙어머님
락원의 요람이 아무리 아늑해도
행복의 봄이 아무리 따뜻해도
거기에만 안식의 자리를 펴지 말라고
우리 인민의 손길에
멸적의 방아쇠를 걸어주시여라

당이어 ! 그대를 우러러

리영복

내 어린시절 메뚜기 잡으며
해종일 들판에 뛰놀 때
긱힌웃 여며주며 꾸지람 많던 어머니
내 손목잡아 유치원뜨락에 세워줄 때
나는 생각했더라
나를 아끼는 어머니사랑으로만

어느해 개학날 아침
내 책가방메고 첫 등교길에 나설 때
한뼉 땅을 다뤄 장알진 손으로
연필 한자루 소중히 쥐여줄 때
나는 생각했더라
어머니가 주는 다심한 사랑인줄로만

창공에 피어나는 흰구름처럼
바다위를 날으는 자유론 갈매기처럼
세상이 모두 제것인듯
부러움을 모르며 자라던 유년시절엔
몰랐더라
내 미처 다 몰랐더라

땅을 분여받은 첫해 가을
난생 처음 살아보는 기와집마당가에
알찬 소출을 산처럼 쌓아놓고
그것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며
어찌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온밤 서성거리며 잠을 못이루었는지

미처 다는 모르고 자랐어라
세상 행복이 모두 내것으로 될 때
삶의 순간마다가
기쁨에 젖어 명절처럼 흐를 때
그 행복, 그 기쁨의 뒤에
그것을 베풀고 흐뭇이 미소짓는
부모보다 더 은혜론 사랑의 손길이 있었음을...

오, 당이어 !
알고 자란것보다 모르고 자란것이 더 많은
그대의 은혜, 다심한 그 사랑을

다 깨달으려면
내 생각이 너무도 모자라고
내 한일 너무도 적거니

청신한 공기와 같이
맑고 깨끗한 샘물과 같이
이 가슴속에 흘러드는
그대의 그 사랑을 떠나
내 무엇을 해낼수 있으랴

들 한가운데 서도
가슴가득 스며드는 그대의 숨결
구내길을 걸어도
온몸에 뿌듯이 활력을 주는 그대의 맥박
그대의 그 숨결, 그 맥박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채웠나니

나이 들어 철이 들수록
더욱 은혜롭게만 느껴지는 어머니
세월이 흐를수록
행복이 커갈수록
언제나 내곁에 있어
심장과 혈맥처럼 가까워진 당이어 !

이 심장 고동을 멈출 때까지
나의 모든것 다 바친다 한들
그 은덕에 어찌 다 보답하랴
바치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더더욱 크게만 안겨오는 그 사랑앞에
나이 들어도 나는 언제나 철없는 아이

그때문에 행복한 날에도 그대를 따르고
준엄한 날에도 그대를 받드는 길에
한줌 흙이 되어 쓰러져도 영광인
나는 그대의 아들
오, 불속을 가도 진펄길을 가도
오직 그대만을 받들어 지켜갈
나는 영원한 그대의 전사!

농장벌에 흐르는 사랑의 계절

최준경

이른봄 농사일 의논하시러
수령님 령넘어 오셨던 그날
뒤산엔 뻗꼭새 노래부르고
앞벌엔 뿔상모 새움이 텃네
아, 우리 수령님
농장의 새봄을 안고오셨네

무더운 여름철 소문도 없이
수령님 농장에 다시 오신 날
고마운 그 사랑 향기로 넘쳐

농장벌 천리엔 벼꽃이 폈네
아, 우리 수령님
꽃피는 행복을 안겨주셨네

설레는 황금벌 굽어보시며
수령님 가을에 다시 오실 때
인민의 감사를 담고담아서
오곡은 물결쳐 머리숙였네
아, 우리 수령님
이 땅에 만풍년 안겨주셨네

서해갑문 건설자 고향에 왔네

박세일

서해갑문 건설한 미더운 병사
표창휴가 받고서 고향에 왔네
위훈의 금별을 가슴에 빛내며
위풍당당하게 들어섰다네

아, 스무살에 영웅된 그 병사
온 마을이 경사로 맞이하였네
아, 미더운 그 병사

파도세찬 날바다 헤치는 나날
가슴속에 소중한건 맹세였다네
믿음으로 넓어진 가슴마다엔
맹세가 생명처럼 귀중했다네

아, 갑문 세운 이야기들으며
온 마을이 잠들지 못하였다네
아, 새날이 밝도록

휴가기일 아직도 남아있건만
병사는 서둘러 떠나갔다네
우리 당 불러준 새 초소로
바빠 한시바빠 가야 했다네

아,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온 마을이 떨쳐나 바래주었네
아, 건설의 영웅을

눈꽃날리는 2월이 오면

권정웅

릉라도의 모래사장에도 대동문의 추녀에도 유보도의 금잔디에도 눈꽃이 피었다. 모란봉에 오르면 그것은 참으로 장관이다. 마치 별천지에 들어선것 같다.

봄은 불어서 오고 봄은 싹터서 오고 봄은 또한 흘러서 온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지금은 그러한 기미를 어데서도 찾아볼수 없다.

그러나 봄은 봄이어서 사람들을 새생활로 부르고 있는것이다. 달력에서는 한해의 기점을 1월, 설명절로 보지만 실지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겨울이 가고 봄을 맞는 2월에 두고있는것이다. 벌써 옷과 차림새가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며 또한 마음도 달라지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인 경사스러운 2월16일을 기다리는 나의 가슴속에도 벌써 봄의 훈향이 깃들고 봄의 맥박이 높뛰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뜨거운 경모의 정에 휩싸여 나는 이렇게 붓을 들어 나의 추억, 나의 감정을 적는다.

추위를 향해서 과거가 뻗어있고 대칭으로 더위를 향해 미래가 놓여있는것이다.

무한한 공간속에 놓인 인생의 과거는 추억으로, 그 미래는 희망으로 표현할수가 있다. 물론 그 기점을 오늘인 이 2월에 놓고 나는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우선 과거로 거슬러올라가보자.

사람은 누구나 의식이 생겨서부터 그것이 지는날까지 한생을 보람있게 살기를 바라며 참으로 그것을 위해 모진 고난도 이기며 살아간다고 할수 있다. 그래서 하루 작업을 끝내는 총화모임에서 작업반장이 《오늘 동무는 일을 잘했습니다.》 하고 말해주면 그것은 곧 생의 보람으로 되어 가슴에 그득히 희열이 고이고 심장은 흥벽을 두드리며 높이 뛰는 것이다.

이것을 직접 체험해본 사람은 그 기쁨이 아마 한 달은 고이 간직된다는것을 인정하게 될것이다.

그런 하루가 한달이 계속되어 월총화를 하는 자리에서 부서책임자가 《동무는 이달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하면 나는 순간에 온몸이 허공에 뜨는것 같은 환각에 사로잡히고 한동안 입이 얼어 말도 못할만치 흥분되는것이다.

그 기쁨은 과장하지 않고도 그해가 다 가는 마지막달까지 가는것이다.

1년이 12달, 옛사람들이 정해놓은 60갑자가 끝나는 인생의 한개 주기는 무려 720개월이다.

연연히 흘러온 과거, 이를테면 인간의 한생을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채울수가 있다면 그의 행복은 얼마만한 크기로 헤아릴수 있을것인가, 인생 60이란 참으로 짧지도 않으며 험치도 않다는것을 누가 모르랴.

나는 이 문제를 놓고 다른 때도 아닌 바로 2월에 단 한마디 뽀뽀하게 말할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것이다. 정신적재부에 있어서 맨주먹뿐인 내가 그것을 론할 힘이 있다는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지난해 이맘때 틀림없이 그날도 오늘처럼 눈꽃이 날리고있었다고 기억된다. 아침에 문득 어느 한일군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해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일상을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순간 나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정신을 수습할수 없었던것이다.

이것이 나의 과거 720개월에 대한 평가라고 볼수 있을진대 나는 결코 헛살지 않았다는 자부를 가지는것이다. 이 궁지와 기쁨의 메아리가 어데까지 울려갈수 있는가.

나는 생일상을 마주하고 열떠름해 앉아있었다. 향기로운 술도 갖가지 맛나는 음식도 무득무득, 그것을 바라보고있는 순간 한쪽에는 기쁨이 다른 한

쪽에는 자책감이 가위다리로 되어 나의 심장을 압박하였다. 미흡한것이 저기 놓이고 못다한 일감이 저기 쌓이고 결함과 부족점이 보인것이 키높이 얹혀있었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다.

추억에 대해서나 희망에 대해서 매우 실무적이었던 나는 그때로부터 자주 량극을 이루고 달려가는 그것들을 더듬어보는 습관이 생기었다. 그렇게 되면 궁지와 자부는 커다란 의무로 자기생활에 대한 끝없는 의욕으로 불타게 된다.

창작의 붓을 들 때마다 나는 크낙한 심장의 고통을 느끼곤한다.

탄부의 자식이며 자신이 또한 탄부였던 미세한 모래알을 누가 당의 작가로 값있는 광석덩이로 만들어주었던가. 총서 《불멸의 력사》의 첫걸음을 댄 장편소설 《1932년》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일 때 누가 그것을 손잡아 바른길에 들어세워주었고 그의 세부와 문장에 이르기까지 지도를 주었는가, 글을 쓰자면 건문이 넓어야 한다면서 비행기에 태워 대양과 대륙을 넘겨보낸것은 누구인가. 말하자면 궁지와 행복으로 한생을 총화할수 있는 그 모든것을 누가 주었는가.

나는 이에 대해서 솔직하고 서슴없이 말해야 하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계시며 우리 작가들의 영명한 스승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해서 이룩된것이다!

나는 얼마전에 외국을 려행하면서 적은 다음과 같은 일기구절을 지금 상기하게 된다.

…나에게는 할일이 많다. 천평 한쪽에 놓인 오늘은 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해서 무게가 생기었다. 이제 그 반대쪽에 무엇을 올려놓으면 그것이 수평을 그울것인가. 쓰고 또 쓰자. 심장이 찢겼다 해도 사색이 멎지 않는 한 쓰자. 그래서 60년을 함축한것보다 더 큰 밀도를 가

지게 하자. 그이의 업적, 그이의 령도, 그이의 덕성… 그것을 후대들이 높은 공지와 즐거움을 가지고 읽을수 있도록 쓰자. 솔직하고 명백하게 그리고 뜨거운 입김을 거기에 불어넣자. 이것은 조선의 한 소박한 작가의 웨침이다. 이 세상 그 누구든 이것이 무엇때문인지 리해가 되지 않거든 제일 좋기는 조선에 한번 와보는것이다.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지였고 리성에 의해 자기와 우주를 파악할수 있는 현대 조선사람이 자기들이 이룩한 전취물과 자기들이 지닌 미래를 그토록 귀중히 여기면서 어째서 그것을 령도자의 흠모와 찬양에 융합시키는가를 한순간에 리해하게 될것이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 우리들이 나타내는 감정, 힘겹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망을 모르고 돌진하는 그 기세, 그것을 보면 알것이다…

2월이다. 아직은 추위가 다 물러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룡라도, 양각도, 광복거리 건설장에서 일하는 건설자들의 노래소리가 흥겹게 울리고있다.

태천에서, 사리원과 순천, 서해간석지에서, 안주 탄광과 검덕에서, 풍년을 당겨오는 들판에서, 봄은 기운차게 숨쉬고있다. 귀를 기울이면 땅밑에서 우적우적 지심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것만 같다.

새날이 밝아오고있다. 안개덮인 뿌연 동녘이 차츰 유자빛으로 변하고있다.

순간 어둠을 활짝 밀어제끼면서 한가닥 빛발이 눈부시게 대동문추녀를 스치면서 지나간다. 온 하늘이 은백색으로 물들었다. 은가루를 뿌린것 같이 현란한 눈꽃이 대공에 가득차있는것이다.

소슬바람이 불었다. 버드나무가지에 피었던 눈꽃이 또 허공에 날아오른다.

《아! 2월이 왔구나.》

나는 이 모든것을 놓고 이렇게밖에 달리 표현할수 없다.

1987년 2월

대동강반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 형상을 위한 예술적탐구

윤상현

혁명과 건설의 결출한 지도자에 대한 전인민적인 경모의 정은 그 어떤 도덕적·무감이나 논리적 사고의 귀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의 품모와 자질의 위대성에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혹된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진실하고 숭고한 감정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만민의 찬란한 향도성으로, 은혜로운 스승으로 높이 우러러받드는것도 다름아닌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인민적지도자로서의 숭고한 덕성, 통털어 그이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뜨겁게 절감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형상을 예술적화폭에 모십에 있어서 마땅히 그이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는데 온갖 탐구적지혜와 열정을 집중시켜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은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십, 확고부동한 충성의 신념을 굳게 간직하도록 인민들을 교양하여야 할 우리 문학의 항구적인 주제적과업이며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 절박하게 나선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다.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숭고한 역사적임무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1

로동계급의 탁월한 지도자의 위대성은 거대한 폭과 심도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들에서 빛나게 발현된다. 작가들은 그 다양한 측면들에 전면적으로 파고드는 동시에 특히 위대성을 보다 폭넓게 보여줄 수 있는 사상리론적 및 령도업적분야에 주목을 돌려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사상리론활동과 탁월한 혁명실천으로 인류의 사상리론발전과 혁명운동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의 준엄한 나날에 개척하신 우리 당의 위대한 주체위업은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으며 이 땅위에 전대미문의 세기적변혁과 찬란한 새 승리를 아로새기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하여 위대한 주체의 사상리론적보물고가 나날이 풍부화되고있으며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백전백승의 전위당으로 더욱 튼튼히 강화발전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대외사업 등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들을 천리혜안의 예지로 굽어살피시며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변혁들을 련이어 이룩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광찬란한 혁명활동과정에 쌓아올리신 그 빛나는 인류사적공적을 통하여 그이의 인민적품모와 뛰어난 자질을 심오하게 형상할 때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은 감명깊은 예술적화폭으로 힘있게 부각될수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오시면서 이룩해놓으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튼튼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 절박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혁명업적을 예술적화폭으로 고착시켜 우리 세대만이 아닌 먼 후세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전해가야 할 영예로운 사명을 지니고있다.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맞이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모와 업적을 산 현실적 체험으로 감수한 우리 세대의 작가들이야말로 그이의 혁명업적을 잘 형상하여 만대에 길이 전해가야 할 직접적담당자들이다. 이 성스러운 시대적 과제를 참답게 수행하지 못하고서는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시대 문예전사의 책임을 다할수 없다.

결출한 지도자의 혁명업적을 형상하는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소재선택문제와 관련되어있다.

원래 로동계급의 수령과 지도자를 형상함에 있어서 소재문제는 창작가들의 특별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군한다. 그것은 예술적허구를 제한없이 받아들일수 있는 다른 일반작품들과는 달리 실재한 사적 자료에 철저히 기초하는 문제를 중요한 창작원칙의 하나로 제기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소재선택문제는 창작의 성과를 결정하는데 적지 않는 작용을 하게 된다.

현시기 가장 영예로운 과업으로 절박하게 제기되고있는 업적형상문제도 어느 분야의 혁명사적자료에 더 큰관심을 돌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 즉 소재선택문제와 직접 관련되어있다.

지금까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화폭에 모سم에 있어서 우리 작가들은 주로 은덕교양에 깊이 관심하면서 그이의 고매한 덕성과 관련된 혁명사적을 연구하는데 힘을 돌리었다.

물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덕에 대한 혁명사적자료들은 두말할것없이 모두가 만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것들이며 따라서 그 소재들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깊이 감동시켜야 할 예술형상의 본성적요구에 부합된다.

그리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매한 덕성은 혁명의 탁월한 지도자, 가장 위대한 인민적지도자만이 지닐수 있는 숭고한 품모인것만큼 그에 대한 예술적형상을 통해서도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보여줄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그이의 숭고한 덕성과 고마운 은덕을 노래하는것은 역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매한 덕성과 고마운 은덕에 대해서만 노래하여서는 그이의 위대성을 폭넓게 형상할수 없다.

인간의 감동은 결코 따뜻한 배려와 사랑에 의해서만 형성되는것이 아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뛰어난 능력과 위대한 정신적높이, 그 비법성으로 마련되는 특출한 업적을 대할 때 역시 사람들은 끝없는 경탄과 감동에 휩싸이게 되는것이다. 사실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폭넓게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눈부신 혁명업적분야에서 자료를 찾아쥐는 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되고있다.

문제는 해당 혁명사적에 반영되어있는 위대한 정신적면모와 거대한 사회정치적의의를 착안해내는데 있다. 업적분야의 사실자료들이 이런 본질적인 심오한 의미를 충분히 음미할만한 예술적형상으로 재가공된다면 작품은 틀림없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본질적바탕에 대한 탐구와 작가의 독창적인 발견이 없이 다만 소재 그자체의 감동적인 흥미만으로 한몫보려는 경우에는 업적분야의 소재로 작품을 성공시키기 어렵다. 게다가 업적분야의 소재를 취급할 때는 여러가지 심중한 정책적문제에 자주 부딪치게 되며 당과 국가사업 전반과 관련되는 복잡한 사회정치적문제들을 폭넓게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때문에 업적분야의 소재로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생활현상을 깊이 있게 연구분석하고 일반화할수 있는 높은 사회정치적식견과 탐구능력을 갖추고있어야 한다.

탁월한 지도자가 이룩한 혁명투쟁업적을 전면적으로 폭넓게 반영하자면 소재탐구에서 대담하고 통이 커야 한다.

선이 가늘고 생활세태적인 소재에만 매력을 느끼거나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즉흥적인 감정의 세부만 노려가지고는 탁월한 지도자의 위대한 면모를 충분히 보여줄수 없다.

우리는 지금 가슴벅찬 수많은 소재영역을 놓치고 있다. 우리는 우리들자신이 직접 체험한 문학예술 부문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 과정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형상하지 못한채 있으며 세계혁명부문과 조국통일부문에 대한 정도사적을 형상한 작품도 거의나 내놓지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대한 고전적정식화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의 선포, 생기발랄한 새형의 전투적당의 건설, 3대혁명의 힘찬 진군, 혁명전통의 빛나는 계승발전, 혁명대오의 일심단결, 력사적인 70 일전투와 100 일전투, 각종 대중운동의 발기와 지도, 평양시와 서해갑문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의 대기념비적건설, 온 나라에 세차게 타오르는 속도전, 사상전의 불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룩하신 이 세기적업적들은 그이의 위대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혁명사적들이다.

작가들은 작고 아담한 소재들을 가지고 크고 심원한 시대적본질을 해명해야 하는 동시에 소극성과 소심성을 버리고 통이 크게 거대한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업적분야들에 주목을 돌려 선이 굵게 형상하여야 한다.

2

지도자형상문학에서 소재선택이 중요한것은 사실이나 아직 그것은 창작의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것은 형상에 얼마만한 작가의 탐구적뒀이 깃들어있는가. 그 소재가 어느 정도의 지성적안목과 정서적열정에 의해 조명되는가 하는데 있다.

문학작품은 사실의 실재성에 기초한 회상실기와 달리 작가가 새로 탐구하고 발견한것이 있을 때라야 독자들에게 읽히울수 있다.

특히 작가가 발견한 종자와 사회적문제성이 희미할 때 작품은 혁명력사의 소개와 자료라렬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결국 회상실기화를 면치 못하게 된다.

사변적인 역사적소재들에 낫을 돌리라는것은 어디까지나 해당소재에 깃들어있는 심오한 내적의의와 본질을 찾아내고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큰 문제들을 제기할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이런 대담한 발견과 심오한 문제의 제기를 떠나서는 아무리 거창한 사변적인 소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귀중한 소재의 가치를 충분히 살려낼수 없으며 작품의 철학적성을 담보할수 없다.

문제의 기본은 소재의 크기에 있는것이 아니라 종자의 철학적무게와 문제정의 깊이에 있으며 로동계급의 탁월한 지도자의 위대성을 얼마만큼한 사상미학적높이에서 밝혀내는가 하는데 있다. 비록 크지 않은 소재라 해도 그속에서 누구도 미처 생각할수 없었던 거대한 사상적의의를 새롭게 꿰뚫어보고 독자들에게 충격적으로 안겨준다면 작품을 크게 성공시킬수 있다.

탁월한 지도자가 창조하는 생활은 그 매 순간순간이 보통사람들로서는 한생을 다 기울여도 따를수 없는 거대한 가치와 의의를 가지고있다.

문학에서 미담식라렬과 기록주의적복사로서는 그 크나큰 내면적의의를 도저히 해명해낼수 없다.

작가에게는 반드시 심오한 지성적안목과 투철한철학적견해가 갖추어져있어야 하며 그래야 탁월한 지도자의 위대성이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첨예한 극적제기를 잡고 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할수 있다.

단편소설 《조선시간》(성혜량)은 이 측면에서 성공한 작품이다.

소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한 조직력과 예지로운 향도의 손길에 의하여 어느 한 기계공장의 《어머니기대》라고 할만한 큰 기대의 보수기일을 반년간이라는 긴 예정기한으로부터 단 7일간으로 대폭 단축하게 된 뜻깊은 사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다.

이 기대로 말하면 기계공업부문에서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 뚝까지 완수하는데 중추적역할을 담당한 핵심공장의 심장부이다. 그런 기대가 당창건 30 뚝을 코앞에 두고 보수때문에 당장 생산을 멈추지 않으면 안될 긴급한 사정이 제기된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곧 유능한 건축공학 교수를 현지에 파견하시어 기대보수작업을 도와주도록 하신다. 교수의 도움에 의하여 어느때갈으면 반년이 걸린다던 보수기일을 40 일간으로 앞당기겠다는 보고가 올라온다.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40 일을 10 일간으로 훨씬 더 단축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필요성을 제기하신다.

10 일간, 그것은 단하루도 드릴수 없는 법적이한이다.

하다면 기초공크리트를 굳히는데 필요한 최소한 날자만 해도 28 일간은 꼭 있어야 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만 총 10 일간에 끝낼수 있겠는가?

한치의 여유도 없이 극적긴장의 밀도가 압축되어 있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기존관념과 일반상식으로써는 어느 누구도 헤쳐볼 엄두를 낼수 없는 이렇듯 첨예한 상황이 조성됨으로 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한것을 가능한것으로 전환시키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상한 자질과 뛰어난 령도적수완이 밝혀질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그 위대성이 집중적으로 드러날수 있는 첨예한 극적제기를 포착하였다는것만으써는 아직 작품의 성공에 대하여 다 말할수 없다. 보다 중요하게는 작가가 바로 그 계기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속도전의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조선시간의 탄생이라는 커다란 사회적문제, 조선혁명의 근본문제의 해명으로 형상을 값높이 유도해낸데 있다.

작가의 주정토로에서 천명된바와 같이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단위로 력사와 세기를 재고 인생을 한도짓던 시간개념은 속도전의 새시대에 사는 조선사람에게는 이제 더는 맞지 않게 되었다.

조선시간! 그것은 우리만이 가질수 있는 시간개념이다. 그 조선시간이 다름아닌 《주체사상을 지지점으로 하고 거기에 무한히 긴 충성의 지레대를 건 조선》의 거인적힘을 자래우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창조물이라는것이다.

작가가 해명해낸 이 심오한 사상은 그의 문장론적의미의 철학적심도만으로서가 아니라 형상전반에서 진실하게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형상결과로 하여 독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뜨겁게 접수되고있다.

사실 작품의 전체 형상과정은 촉급한 시간문제를 다루는 작품의 양상에 조용하여 독자들의 마음을 시종일관 긴장하게 옥죄여가며 매 형상들의 움직임을 날날이 주시하게 만든다.

독자들은 매 작품마다에서 이처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과 관련되는 뜻깊은 철학적진리를 값진 신념의 양식으로 심중깊이 받아안게 되기를 바란다.

이 소설의 경험은 지도자형상작품에서 성격과 사건의 호상관계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사를 주고있다.

다른 모든 주제의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도자형상작품에서도 사건은 역시 무시할수 없는 중요한 형상요소로 된다.

당과 혁명의 탁월한 지도자를 형상하는 경우 현실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실자료들을 취사선택하는 조건에서 작품의 사건은 그자체로도 사람들을 흥분시킬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학은 어떤 경우든지 사건 자체의 흥미만으로 한몫보려는 경향에 떨어저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사건의 흐름새만 옴니암니 따지면서 아기자기한 사건조직에 매달릴 때 작품에 일정한 흥미가 생겨나는것은 사실이지만 읽을 때뿐이고 남는것이 별로 없게 된다.

작품을 읽고나면 마땅히 지도자의 숭고한 영상, 지도자의 위대한 품모가 가슴깊이 안겨오고 그 형상의 여운이 오래동안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사건위주로 나갈것이 아니라 형상의 중심에 위대한 인간을 확고히 모시고 인간학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사건은 사건 그자체의 흥미를 추구하는데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화폭의 중심에 높이 모셔진 탁월한 지도자의 숭고한 영상과 그의 위대한 품모를 뚜렷이 부각시키는데 복종되어야 한다.

형상의 기본선을 성격위주의 방향으로 명백히 설정한 조건에서는 사건의 극성에도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현실에서 취제한 자료들에서 극적요소를 발견하고 이러저러한 생활적사실들을 극적으로 재조직하는 여기에 또한 작가의 창조적분야가 있다.

물론 작품의 양상에 따라 극성의 강약정도를 다양하게 취할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아 사건은 극적일수록 긴장감을 주며 깊은 인상과 여운을 남겨주게 된다.

지도자형상문학에서도 사건의 극성은 작품의 사상에술적효과를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이 주제의 문학에서 회상실기화의 편향은 적지 않게 사건위주의 방향으로 형상하거나 극적탐구가 없이 사건을 평면적으로 라렬하는데로부터 초래될수 있다.

지금 독자들속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는 단편소설 《조선시간》을 비롯한 일련의 성과작들의 경험은 바로 사건을 땀땀 극으로 엮을 때 작품중심에 모셔진 탁월한 지도자형상에 대한 예술적 감동이 높아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작품의 미학적견인력이 강해진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요컨대 탐구한 력사적자료를 인간학적으로 원만히 무르익혀 참신하고 무게있는 예술적형상으로 꽃피우기 위하여서는 그속에서 철학적인 종자와 문제성만이 아니라 지도자의 위대한 품모를 새롭게 발견해야 하며 아울러 심오한 생활의 극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3

결출한 지도자의 형상창조에서 나서는 다른 하나의 문제는 다양한 묘사각도와 기법으로 형상의 참신성과 립체성을 보장하는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지도자가 지닌 위대한 품모와 그가 이룩한 불멸의 업적은 사실상 그 한도를 헤아리기 어려운 거대한 폭과 깊이로 하여 작가들에게 무진장한 형상적탐구의 가능성을 안겨주고있다.

결출한 지도자의 형상작품에서는 자칫하면 형상의 개성적탐구의 부족으로 하여 성격을 더 인상깊게 더 깊이있게 그려낼수 있는 여지를 놓칠수 있으며 해당 사실자료들이 여러가지 출판물과 선전수단들을 통해 대중속에 널리 알려지군하는 조건에서 작품이 예술적형상으로서의 새로운 맛을 그렇게 원만하게 주지 못할수도 있다.

결출한 지도자의 형상작품에서도 도식과 류사성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금물이다.

도식은 형상창조에서 기정사실화하는 경우에도 생겨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내놓으시는 혁명로선과 투쟁방침들에는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고심 어린 탐구와 사색이 깃들어있으며 그 관찰과정 역시 첫걸음부터 순탄하게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위인의 력사는 투쟁의 력사이며 위대한 투쟁을 떠난 위대한 생활은 없는것이다.

만약 위대성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어떤 요란한 결과만 제시하고 그 투쟁과정을 진지하게 파고들지 않는다면 독자들을 납득시킬수 없을뿐아니라 작품의 특색과 감화력도 잃어버리고말게 될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투쟁의 길에서 고심과 정력적인 탐구의 나날을 거쳐 혁명의 위대한 진리와 투쟁의 진로를 새롭게 밝혀내고 온갖 시련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인민들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모습을 진실한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인간의 성격을 외부적인 행동의 세계에서뿐만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사색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있는가 하는 그 심오하고도 풍부한 내부적체험의 세계에서 보다 강렬하게 드러나게 된다.

때문에 작가는 지도자의 위대성을 형상함에 있어서도 외적으로 나타나는 생활현상일면에만 주의를 돌릴것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적풍모, 그 끝없이 폭넓고 웅심깊은 심중세계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심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창작실천상 문제의 하나는 바로 어느 한 방계인물의 시점에 서서 형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묘사방식을 하나의 틀로 간주하지 않을데 대한것이다.

물론 인민들속에서 살며 활동하는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을 형상하자면 필수적으로 일련의 방계인물들이 설정되기 마련이며 또 그중 어느 한 인물의 시점을 통해 형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묘사방식으로 작품을 써나갈수도 있다. 단편소설인 경우에는 묘사시점을 통일시켜야 하기때문에 일단 어느 한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서술이 시작된 다음에는 묘사시점을 바꾸기 어려울수도 있다.

그러나 한 작품권내에서 묘사시점의 이동이 결코 불가능한 일인것도 아니다.

따라서 어느 한 방계인물의 객관적인 시점에만 의거하는것을 형상창조의 유일한 틀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더우기 그 수법이 내면적풍모를 직접 묘사하기 어려워 취하게 되는 방도로 리용되어서는 안된다.

묘사시점과 묘사각도를 다양하게 설정할데 대한 요구는 본질에 있어서 지도자의 내면적인 정신적풍모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직접 밝힐데 대한 요구이다.

지도자형상작품에서 방계인물의 시점은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지도자의 고매한 덕성의 어느 한 측면을 형상할 때와 달리 그의 사상리론적업적이나 령도업적분야를 보여주려 할 때는 어느 한 간부나 일군의 시점만으로는 다 밝혀내기 어려울수 있다.

탁월한 지도자의 사상리론적업적을 원만히 형상하자면 위대한 사상리론을 탐구하고 구상하는 그 내면세계를 전면적으로 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지도자의 령도풍모와 령도업적을 잘 형상하자고 해도 혁명과 건설의 넓은 령역을 통일적으로 고찰할수 있는 폭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작가들은 지도자의 위대한 사색과 심오하고 풍부한 감정세계를 직접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하며 그를 통해 사상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덕성의 위대성을 보다 립체적으로 보여주어야한다.

그렇게 하자면 형상에서 심리정서적인 극이 조성될만한 적중한 소재를 탐구하여야 하며 특히는 지도자의 숭고한 풍모를 깊이 파악하고 뜨겁게 체험해야 한다.

위대한 지도자의 생활을 잘 아는것은 지도자형상창조의 선결조건이다. 지도자의 내면세계를 직접 전면적으로 묘사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도 이와 관련된다.

그리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뜨거운 충성의 심장으로 받드는 작가만이 작품에서 그이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형상할수 있으며 따라서 독자들의 크나큰 감동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모든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풍모와 업적을 누구보다 깊이 파악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그이를 우리러 받드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전사로 준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잘 형상한 우수한 작품을 끊임없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동화문학의 빛나는 본보기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옮긴 동화작품들의 몇가지 사상
예술적특징에 대하여 -

리효운

주체의 동화문학이 어떤 풍모를 갖추어야 하는가를 연구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주체적문예사상과 이론에 기초하여 우리의 동화문학을 창작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새시대의 지향과 인민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동화문학을 건설함에 있어서 근본문제로 된다.

특히 주체의 동화문학을 창조하고 건설함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옮긴 동화작품들의 사상예술적특징과 창작수법을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주체시대 근로인민대중의 사상미학적 리상과 요구에 맞는 동화문학을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오늘 우리 동화작가들의 영예로운 사명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옮긴 우리 식의 동화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옮긴 동화들과 함께 우리 인민의 가장 귀중한 예술적재부이다.

이 글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옮긴 일곱편의 동화작품들이 가지는 사상 예술적특징에 대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1. 동화의 문제성과 철학적깊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옮긴 동화들이 가지고있는 중요한 사상예술적특징의 하나는 무엇보다 그의 심원한 철학적깊이에 있다.

이 동화작품들은 다 인간학적견지에서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우리 시대, 주체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인민들의 생활과 지향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체현하고있는 전형적인 동화적성격들을 창조하였다.

동화들은 주체의 사상미학적원리와 근로인민대중의 념원과 지향, 생활신조와 교훈을 체현한 진실하고도 생동한 예술적형상들으로써 빛나고있다.

특히 동화들은 작품의 정치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철학적깊이를 가지고 인민대중의 심금을 울리며 우리 시대 인민들에게 의의깊은 인간문제,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심오한 사상에술적해답을 주고있다.

동화들은 무게가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종자와 철학적심도가 있는 사회적문제를 담고있어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는다.

동화 **《까치와 여우》**에서는 까치가 비참하고 가련한 운명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이 어데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해답을 주고있다.

까치가 신세를 망치고 고독한 존재로 되고만것은 자기의 힘을 믿지 않는데로부터 원쑤앞에서 겁을 먹고 패배주의에 빠진데 있다.

까치는 자기 개인의 리익만 생각하면서 자기가 속한 새동산에 사는 새들의 집단적힘을 믿지 않으며 그들의 집체적의견과 슬기로운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까치는 또한 삶에 대한 옳은 신념과 관점을 가지고있지 않다.

까치는 진정한 생활이란 투쟁이며 집단과 함께 준엄한 시련을 투쟁으로 이겨낸 승리의 기쁨이 행복이라는 옳은 신념과 관점을 소유하지 못하고있다.

이로부터 까치는 자기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여우와 같은 원쑤의 힘을 과대평가하며 승리의 신심이 없이 겁부터 앞세우면서 도피자가 되어 집단을 버리고 새동산을 떠나고만다.

새마을에 침범해들어온 여우와 맞서 싸우자는 새들에게 까치는 말한다.

《...그래서 여우와 맞서 싸우지 말자는거야. 보잘것 없는 우리 힘을 아무리 합친댔자 무슨 소용이 있니?

난 여우놈을 피해서 모두 동산을 떠나 숨어살자는거야. 그러면 고생스럽지만 새끼들을 무사히 키울수 있지 않니.》

그러나 새동산을 버리고 그가 찾은 산기슭 이깎 나무의 맨 옷초리도 도피자에게는 편안한 집자리가 되지 못하였다.

자기만을 생각한 가치와 같이 신세를 망치고 비참한 운명에 처한 고독한 존재로 되지 않으려거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동화 《까치와 여우》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의의깊은 해답을 주고있는것이다.

동화 《짐장다리가 된 돌부처》에서는 어찌하여 돌부처가 쓸모없는 존재로 굴러떨어져 종당에는 영영 버림받고 멸망했는가를 밝혀주고있다.

짐승들이 물을 길어다가 불을 끄는것을 보고 돌부처는 《옳거니, 책에 써여있기를 〈수화상구〉이라 했겠다. 물과 불은 서로 반대란말이지.》라고 말하면서 토끼가 길어온 물을 불길에 끼여어보고서 독경식으로 외웠던 지식을 진리로 깨닫게 된다.

《자기만 아는체하면서 녀불만 외우더니 실은 제가 바보였구만.》 하고 토끼는 비웃는다.

팔병에 들어 죽게 된 돌부처에게 사슴의사가 북쪽 눈산에 가서 고드름을 따다 찹질을 하면 단번에 낫는다고 말하자

《뭐? 고드름을 따오라구? 내가 어떻게 고드름을 따다구 그래? 녀불만 외우면 다 되겠는데.》 하면서 무더운 여름에 고드름이 달리게 해달라고 녀불만을 외운다.

작품은 이처럼 노동과 답을 쌓고 일하기 싫어하는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안히 살기를 좋아하는자는 멸망의 운명에 처한다.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 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있어야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될수 있다는 진리를 깨우쳐준다. 작품은 《절간에서 녀불만 외울 땐 바보같더니 그런대로 돌다리로는 꽤참군.》 하고 부덕쥐까지도 야유조로 말한것처럼 인간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보탬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깊은 뜻을 밝혀주고있다.

사람은 교조주의와 독경주의에 빠지면 머저리가 되고 혁명적실천과 창조적로동을 통하여 삶의 진리를 체득하지 않고서는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만다는 웅심깊은 진리가 동화에서는 울려나오고있다.

사람들은 자기 교리의 파산을 죽음으로 보여준 돌부처의 종말을 보고 인간의 가치와 참된 인생관 문제를 사색하게 된다.

비록 령토가 작은 나라라도 고슴도치처럼 전민이 무장하고 적의 약점을 잡아 용감하게 싸운다면 호랑이같은 큰 적이라도 타승할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동화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 물질적부뿐 아니라 인간을 창조한 로동을 싫어하며 제정신으

로 사는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남을 본따다가는 동생원숭이처럼 꿀탕을 먹는다는 교훈을 주는 동화 《원숭이형제》 등은 자주시대의 사람들이 지녀야 할 관점과 립장 문제에 해답을 주고있다.

동화들에서는 사람은 사업과 생활에서 자주적사양의식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일하여야 한다. 제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로동과 투쟁에 자기 힘과 지혜를 바쳐야 삶의 보람과 사람다운 긍지와 자랑을 지닐수 있다는 깊은 뜻이 안겨온다.

《며느리와 좀다래나무》, 《봉선화》와 같은 유래동화인 경우에도 옛이야기, 전설 등 인민구두창작에서 력사에 의하여 검증된 풍부한 생활교훈을 계급적원칙, 력사주의적원칙에서 잘 살리면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여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교훈적인 해명을 현대성의 견지에서 주고있다.

유래동화들은 억압자, 착취자들의 천대와 멸시속에서 자주성을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선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숭고한 정신도덕적미를 간직한 근로인민출신의 인물성격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할수록 지난날 부모형제들이 당한 쓰라린 고통과 교훈을 잊지 말고 계급적자각을 높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개척해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고있다.

동화 《달나라 만리경》은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긴박한 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하고있다.

여기에서는 토끼들이 달나라에서 공화국북반부의 인민적사회제도와 남반부의 반인민적통치제도를 만리경으로 들여다보는 시점을 통하여 맑은 아침의 나라에 인민의 지상락원이 있는것은 《지구의 자랑이요, 온 우주의 영광》이라고 례찬하면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사람들을 고무하고있다.

《달나라 만리경》에서는 동화적형상으로 우리 민족지상의 녀원이며 갈망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미국놈들이 남녘땅에서 하루빨리 물러가게 해야 한다는 사상이 호소성이 강하게 울리고있다.

이처럼 일급편의 동화들은 발전하는 현실과 우리 당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문제를 안은 종자를 선택하고 철학적깊이가 있게 사상미학적해답을 주고있다.

동화들은 시대정신과 현대성의 원칙을 구현하여 참신하고 독창적인 종자를 짙은 민족적색채와 현대적미감, 동심에 맞고 동화적환상이 풍부한 형상으로 꽃피우고있다.

2. 뚜렷한 개성적성격창조

일곱편의 동화들의 독창성은 작품들이 밝혀준 철학적깊이에서뿐만아니라 형상된 전형적성격에서 찾아볼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는 인간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리는 것과 함께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그려야 한다.》 (《영화예술론》, 10페이지)

일곱편의 동화들에서 등장인물들은 다 사회계급적본질을 체현한 인물들인 동시에 산 개성들이다.

옛날도 아득히 먼 옛날 어느 한 짐승동산 밤나무골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센가를 가르는 내기가 있는 가을날에 벌어진 일을 그린 동화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에서 고슴도치는 온몸에 가시털옷을 입은 조그마한 짐승의 형상으로 등장한다.

그는 금방 벌어진 밤송이처럼 굴러와서 누런색바탕에 어롱어롱 가로난 검은 줄무늬들과 바늘처럼 뾰뾰한 흰수염, 보기만해도 오시시 소름이 끼치는 시퍼런 불이 이는 눈을 가진 호랑이앞에 짧은다리를 펴고 난딱 서서 호통치는 적수에게 당돌하게 맞선다.

《흥! <산중의 왕>이노라 우쭐대는 네놈의 수작이 주제넌다. 길고 짧은건 대박야 안다구 어디 나와 겨뤄볼테면 겨뤄보자!》

작은 몸이지만 굳센 의지와 큰 마음을 지닌 고슴도치는 호랑이와의 대결과정에서 대담하고 패기가 있고 기지가 있는 발랄한 성격으로 부각된다.

고슴도치는 산중의 **《왕》**이노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우쭐대고 거만하게 판을 치는 호랑이의 약점을 포착하고 코등을 가시로 쏘면서 용감하게 공격을 들이대며 마침내 적의 허장성세를 보기 좋게 꺾어버리고는 말한다.

《좋다. 그럼 오늘은 내기를 한것이니 이쯤해준다. 그러나 다시한번 동산에 나타나 착한 짐승들을 깔보고 못살게 굴었다가는 그뻔 용서치 않을테다!》

자위의 혁명정신이 구현된 이 동화에서 형상된 고슴도치는 호랑이와의 호상관계속에서 동심을 틀어잡는 패기있고 생기발랄한 개성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동화 **《까치와 여우》**에서 형상된 까치와 여우, 동화 **《머느리와 줌다래나무》**에서 그려진 주인공 머느리와 량반부부, 중, 동화 **《봉선화》**에서 창조된 주인공 봉선이와 주인네부부, 동화 **《징검다리가 된 돌부처》**에서의 돌부처형상과 부덕위를 비롯한 짐승들은 의의깊은 문제를 제기하고 생활의 진리와 교훈을 밝혀주는 생동하고도 진실한 개성으로 살아움직이고있다.

동화들은 같은 성질을 가진 성격적특징을 그리는 경우에도 그들의 본질적특징을 개성을 통하여 고유한 성격론리에 맞게, 인상깊이 부각하고있다.

동화 **《머느리와 줌다래나무》**의 주인공 머느리나 동화 **《봉선화》**의 주인공 봉선이는 다 착취사회에서 지지리 놀리워살던 우리 나라 근로녀성들의 전형들로서 부지런하고 무던하고 선하면서도 외유내강하고 대바른 성격으로 그려져있다.

봉선이는 봉건사회근로녀성들이 가지고있던 보편적인 성격적특징과 함께 작품의 종자와 그의 생활론리에 맞는 순결하고 정직하며 끈은 마음씨와 아름답고 착한 정신적미의 소유자로 형상되고있다.

동화들은 부정인물을 형상하는 경우에도 생활현실에서 드러나는 성격적특징을 진실하고 섬세하게 그리면서도 부정적성격의 론리에 맞게 예술적으로 개성화하고있다.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에 등장하는 여우나 **《까치와 여우》**에 나오는 여우는 다 음흉하고 교활하며 표리부동하고 머리가 껍뻑 도는 성격으로 그려지면서도 그들에게 고유한 성격론리와 종자의 요구에 맞게 개성화되어있다.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에서의 여우는 권력에 빌붙어 아첨하고 아양을 떠는 성격의 소유자로 부각되었으며 **《까치와 여우》**에서의 여우는 까치를 속여넘기고 그의 등을 쳐먹고 그의 운명을 짓밟는 간교하고도 악착한 개성으로 예리화되었다.

《머느리와 줌다래나무》에서 형상된 량반부부와 **《봉선화》**에서 형상된 주인령감과 그의 녀편네는 욕심이 지독하고 음흉하고 악독하고 남을 못살게 굴기를 좋아하는 착취자, 억압자로 그려지고있다.

두 작품들은 그들의 부정적인 성격적특징을 그리면서도 **《머느리와 줌다래나무》**에서의 량반부부는 머느리에게 먹을것을 주지 않아 굶어쓰러지게 만드는 린색함과 그에게 죽도적이란 무명을 억지로 들썩워 밖에서 얼어 죽게 만드는 악착성을 통하여 선명하게 개성화되었다.

《봉선화》에서는 주인령감과 녀편네를 착취자, 억압자로 그리면서 봉선이가 얻은 금빛을 빼앗아 가지려는 그들의 끝없는 욕심과 아름다와지는 봉선이를 시기질투하는 추악한 성미를 통하여 부정면을 예리하게 부각하였다.

《징검다리가 된 돌부처》에서 창조된 돌부처의 형상과 **《원숭이형제》**에서 그려진 동생원숭이의 형상은 다같이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먹기 좋아하는 건달군으로서 로동을 천시하고 편안히 살기를 좋아하는자들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있다.

동생원숭이는 자기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덮어놓고 수리개와 꿈을 본따는 성격의 론리에 맞게 그의 건달군으로서의 본성이 부각되었다.

이처럼 일곱편의 동화들은 등장인물들의 개성적 특성들을 모나게 돈구면서 성격의 본질적측면을 일반화하여 높은 경지에 오른 예술적전형들을 창조하였다.

일곱편의 동화들은 동화적성격의 형상화가 가지는 특성을 살려 성격을 다면적으로 립체화하는것이 아니라 성격의 본질적특성을 가운데서 어느 한 두 측면을 개성적으로 예리화하여 전형적인 동화적 성격으로 승화시켰다.

우에서 든 까치, 고슴도치, 돌부처, 머느리, 봉선이 등 동화적개성들은 깊은 철학과 교훈으로 근로자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3. 동화의 인민적성격

일곱편의 동화들은 모두 인민적성격으로 특징적이다. 이 동화들의 인민적성격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념원과 리상, 사상과 기분, 미감과 구미 등을 구현한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 철학과 교훈, 창조된 동화적인 성격들에서 구현되고있다.

동화들에서 창조된 긍정적성격들은 다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체현하고있다.

일곱편의 동화들에서는 인민대중속에서 나온 주인공들을 가장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존재로 내세우고있다.

동화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에서 창조된 용감하고 힘있고 담차고 주대가 있는 고슴도치를 비롯하여 꿈, 메돼지, 토끼, 사슴, 노루 등은 근로자들의 군상이다.

동화 《까치와 여우》에 등장하는 클락새를 비롯하여 많은 새들은 인민대중의 견해와 지향을 체현한 군상들이다.

그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마련한 새동산의 안녕과 행복을 원수의 침범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새들이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단결된 힘으로 남의 등을 쳐먹는 여우와 같은 침범자를 쳐물리칠뿐아니라 까치와 같은자들의 패배주의, 도피사상, 개인본위주의 등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나서는 새동산의 주인들이다.

동화 《원숭이형제》에서 형상된 형원숭이를 비롯하여 토끼, 왕눈쟁이부엉이, 사슴 등 잠간 등장하는 인물들도 부지런하고 동지우애심이 강하며 서로 도와주기 좋아하는 선량한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동화 《징검다리가 된 돌부처》에 등장하는 토끼, 노루, 너구리, 사슴 등은 자기 로력으로 농사를 지

으며 세계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근로대중의 군상이다.

그들은 산불이 나서 산골도 절간도 위험에 처하였을 때 념불만 외우고 팔짱끼고 앉아있는 돌부처와는 달리 모두가 물을 길어다 불을 끄며 그 숲에서 부지런히 일을 한다.

그들은 제가 잘나고 아는체하고 위엄을 부리는 돌부처보다 월등한 지혜를 가진 이 산골의 진정한 주인들이다.

동화 《달나라 만리경》에서 창조된 흰토끼형제를 비롯하여 긴수염토끼의원, 반달토끼박사는 지구우에 있는 맑은 아침의 나라에 세워진 인민의 지상락원에 대하여 《지구의 자랑》, 《우주의 영광》이라고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는 우리 시대 긍정적성격의 소유자들이며 재빛토끼, 사슴 등은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적시책의 빛발아래 재생의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보통인간들의 형상들이다.

동화 《머느리와 줌다레나무》의 주인공 머느리와 동화 《봉선화》의 봉선이와 같이 근로인민출신의 인물성격으로서 착취받고 압박받으며 쓰라린 운명을 강요당하는 경우에도 량반들과 부자놈들은 따를수 없는 정신도덕적우월성과 인간적미를 지닌 아름다운 형상으로 등장한다.

머느리와 봉선이는 비록 갖은 천대와 구박을 받다가 비극적종말을 고하기는 하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착한 마음씨와 부지런한 품성과 굳은 의지를 가진 지난날 우리 나라의 수수한 근로녀성들의 형상이다.

이처럼 인민적인 인물성격들은 자연을 개조하고 발전시킨 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사상과 리념, 품성을 지닌 슬기롭고 아름답고 고상한 성격들이거나 지난날 계급사회에서 쓰라린 운명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었던 근로하는 최하층의 인물성격의 본질적특징을 진실하게 체현하고있다.

동화들의 인민적성격은 또한 작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의 인민적성격에서 잘 표현되고있다.

동화들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들은 모두 근로인민대중의 생활의 깊은곳에서 그들의 생활과 정신도덕적품모의 근본적인것을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동화의 형식과 표현들이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기호와 취미에 맞고 그들에게 리해되기 쉽고 친숙하게 씌여져있다.

《머느리와 줌다레나무》, 《봉선화》의 이야기들은 지난날 우리 인민들의 생활력사, 근로녀성들

의 비참하고도 쓰라린 운명에서 우리나라 친숙하고 석연하고 알기 쉬운 이야기들이다.

이 이야기들은 생활을 과장하거나 미화분식함이 없이 진실하게 반영하고있으며 까다롭지 않고 알기 쉬운 생활적인 이야기로 되어있다.

또한 일곱편의 동화들에서 매개 이야기들은 들을 맛이 있게 그것을 다 읽고나면 자연히 깊은 뜻이 우리나라오도록 구성되어있는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이 동화작품들이 주는 깊은 사상과 예술적요미는 물론 그 주제사상적내용에서 오는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작품내용의 중추를 이루고있는 켜인 이야기줄거리에서 오는 감흥이며 여운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동화 《정점다리가 된 돌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읽고나면 사람들은 손발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이지만 자기만이 가장 지혜롭다고 자처하고 남을 깔보는 가스로운 인간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며 자신을 죽음에서 건질수 있는 손쉬운 일까지 하기 싫어하며 녀름만 외우면 극락세계로 간다고 자기위안하면서 비극적종말을 고하는 운명, 버림받는 인간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며 인간의 값있는 삶에 대한 문제를 사색하게 한다.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에서는 인민들의 기호와 구미에 맞게 이야기가 흥미있게 꾸며지고있다. 이 동화에서는 호랑이와 고슴도치의 대조적인 두 동물들을 놓고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하고 처음부터 흥미를 가지고 대하게 되나 보잘것없이 작은 고슴도치가 기존관념과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엎고 호랑이의 코대를 보기 좋게 꺾어놓는다.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 즐겨부르는 구전동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의 민족적인 정서를 타고 끌려들어가게 되는 예수나무동산, 거기 사는 흰토끼형제의 생활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에 대한 흥미있는 친숙한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여러가지 상상과련상, 환상과 공상의 동화세계에로 가게 된다.

부지런한 흰토끼형제, 신기한 금절구, 백가지 병을 낫게 하는 《월계향》약, 달나라에 있다는 월궁과 빨간 보석렌즈가 달린 신기한 만리경 등 모두가 우리 인민의 구미와 감정, 정서에 맞는 환상의 창조물이다.

달나라 모든 토끼들이 귀중히 여기는 동생토끼의 병을 고치려고 온 달나라가 떨쳐나서 지구를 굽어보고 밝은 아침의 나라를 찾아내어 마침내 이 나라 북쪽에 가서 불로초와 산삼을 얻어다가 동생토끼를 재생시키는 이야기는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재미나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동화들은 민족적정서와 인민적감정에 맞는 내용을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절절한 념원과

지향을 현대적미감과 시대정신에 어울리게 동화적으로 잘 형상하고있다.

일곱편의 동화들의 인민성은 작품에 썩여진 언어의 통속성, 정확성, 명료성 등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동화들은 인민대중의 구두어에 원천을 두고 그 풍부한 보물고에서 가장 알맞는것을 골라 문학적으로 다듬고 세련시켰다. 작품들은 내용에 맞게 말과 문장을 알기 쉽게 만들었을뿐아니라 작품의 깊은 내용과 뜻을 가장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하고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고 마음이 고약한 량반이 살고있었습니다.

그에겐 팔삭둥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였습시다.

아홉살이 되도록 말도 제대로 할줄 몰라 더듬거렸으며 썰도 썰줄 몰라 누가 나이를 물으면 언제나 한본새로 손가락 한개를 펴보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격하면 큰소리로 울기 잘하는 울보였고 밥을 어른들보다 굵이나 더 먹는 식충이였습니다.》

동화 《머느리와 좀다래나무》는 이처럼 량반의 아들 팔삭둥이가 둘도 없는 바보였다는것을 가장 통속적인 말로 그리고 몇마디의 문장으로 방불하게 부각하였다.

《그날밤 봉선이는 잠자리에 누웠으나 금빗을 잃고 안타까와할 임자를 생각하니 좀처럼 잠을 이룰수가 없었습니다.

봉선이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강가에서 금빗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집엔 은빗도 없단다.〉

그러면 또 다음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강가에서 금빗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집엔 구리빗도 없단다.〉

그러면 또 다음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강가에서 금빗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집엔 열레빗도 없단다.〉

집집마다 찾아다녔으나 금빗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시다.》

이 간단한 문장을 통하여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봉선이가 금빗임자를 얼마나 안타까이 찾아돌아다녔으며 마을이 얼마나 구차한가를 눈에 선한 화쪽으로 볼수 있다.

일곱편의 동화작품들은 그의 인민성으로 하여 각 급학교 학생들에게 흥미있게 읽힐뿐아니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지성이 높은 대학생, 지식인들에게도 깊은 사상에술적매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4. 다종다양한 묘사 수단과 수법

일곱권의 동화들에서 찾아볼수 있는 사상에술적 특성의 하나는 다종다양한 형상수단과 창작수법을 독특하게 활용하고있다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독창적인 형상을 창조하려면 형상 수단과 수법, 기교도 비반복적으로 살려써야 한다. 형상 수단과 수법, 기교를 독특하게 리용할줄 알아야 작품의 사상을 독창적으로 밝혀낼수 있다.》
(《영화예술론》, 132페이지)

일곱권의 동화들에서는 의인화수법뿐아니라 예술적과장, 동화적환상, 형상적상징, 해학, 풍자등 여러가지 동화창작수단들과 형상수법들이 능숙하게 독특하게 구사되고있다.

이상의 형상수단과 묘사수법들은 동화문학작품 창작에서 일반성과 공통성을 띠는것으로서 많이 사용되어온 동화적인 표현수단이며 수법이다.

그러나 일곱권의 동화들에서 씌여진 형상 수단과 수법들의 독창성과 독특한 묘미는 현실과 생활의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특색있게 형상해내는데 능란하게 활용되고있는데 있다.

동화들에 나오는 동물들은 모두 자기의 생태적 속성에 의거하면서 그에 맞고 작품에서 주어진 사상에술적과제와 자기 몫에 맞는 역할을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수행하고있다.

《머느리와 줌다래나무》, **《달나라 만리경》** 등 동화들에서는 환상적수법이 훌륭히 활용되고있다.

《머느리와 줌다래나무》에서는 진종일 굶은 머느리가 너무 배가 고파 누렇게 익은 줌다래나무열매를 따먹는 장면이 나온다.

그랬더니 줌다래는 꿀보다 달고 사과보다 더 향기롭고 배보다 더 시원하였다. 그런데 줌다래가 입 안에서 눈처럼 스프르 녹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다.

머느리의 앙상하던 몸에 금시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기운이 막 샘솟듯하였다.

그리고 줌다래를 방금 딴 그 가지엔 어느새 향기로운 열매가 다시 맺히는것이였다.

동화 **《달나라 만리경》**에서는 토끼형제가 사는 달나라에 조상때부터 금절구와 함께 전해져내려오는 빨간 보석렌즈가 달린 만리경이 그려져있다.

이 만리경으로는 아무리 먼곳도 가까이 당겨 볼수 있고 아무리 작은것도 크게 볼수 있으며 지어 먼곳의 냄새도 맡고 소리까지 들을수 있다.

그런데 동생토끼에게 먹일 약을 구해올 고장을 찾고있던 긴수염토끼의원은 지구의 북쪽을 만리경으로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된다.

지구의 북쪽은 온통 얼음으로 뒤덮인 눈무지인데 얼마나 추운고장인지 만리경으로 찬바람이 휘휘 풍겨와 긴수염토끼의원의 눈썹과 수염엔 고드름이 대롱대롱 달리게 된다.

작품들에서 동화적환상은 인민들의 리상과 지향, 희망과 꿈이 미학적으로 구현된, 예술적향취가 풍부한 화폭으로 창조되고있다.

동화들에서는 이야기줄거리, 사건전개, 장면과 대사 등에서 반복수법도 능란하게 구사되어있다.

동화 **《까치와 여우》**에서는 간교하고 음흉한 여우가 겁많은 까치를 꼬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면서 그가 낳은 일곱개의 알을 마지막 한알까지 빼앗아먹으려는 이야기가 발전적으로 반복수법으로 묘사되어있고 동화 **《봉선화》**에서는 금빗을 얻은 봉선이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금빗 주인을 찾는 행동과 금빗으로 머리를 빗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전속에서 펼쳐진다.

여러 동화들에서 활용되고있는 발전적인 반복묘사수법은 형상을 예술적으로 과장하고 부각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반복묘사수법은 직관성, 단순성, 명료성을 요구하는 아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알맞는 동화적인 묘사수법의 하나로서 인물의 성격적특징을 부각하며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과 여운을 준다.

일곱권의 동화들에는 예술적상징의 묘사수법도 잘 리용되고있다.

형원송이가 인간으로 진화되는 과정을 그린 대목은 동화적상징수법으로 그려진것이다.

일하기 싫어하는 동생원송이의 몫까지 맡아서 부지런히 일하던 형원송이가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궁리하던 끝에 긴 장대기를 만들어 쓰게 되었고 어느때부터인가는 막대기와 돌을 써먹게 되였으며 그후에는 돌도끼까지 만들어쓰게 된다.

그런데다가 장대기를 쳐들고 일어서서 열심히 열매를 터는 사이에 그는 두발로 서서 걸을수 있게 까지 되였다.

이렇듯 머리속의 궁냥은 넓어지고 일하는 과정에 앞발은 어느새 손으로 변하였다. 그리하여 형원송이는 점차 사람으로 되였다.

그러나 남만 흉내내던 게으른 동생원송이는 예나 다름없는 원송이모양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처럼 동화 **《원송이형제》**는 원송이가 장구한 세월 로동을 통하여 인간으로 진화된 과정을 동화적상징의 수법으로 풀어보고있으며 자주적인 존

제로 될 때만이 인간은 진실로 인간다운 존재로 된다는 깊은 사상을 재미있게 밝혀주고있다.

일곱편의 동화들에서는 해학과 풍자의 수법도 다양하고 기교있게 구사되어있다.

동화 《**징검다리가 된 돌부처**》에서는 얼마나 돌부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일하기 싫어하며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는 부정적존재인가 하는것을 다음과 같은 세부를 통하여 해학적으로 묘사하고있다.

제단의 불공음식을 훔쳐먹기 위하여 돌부처의 돌방석밑에 등지를 틀고 사는 부덕쥐가 부처가 어찌하는가 보려고 추녀에 매달린 풍경 하나를 떼내여 그의 앞에 살짝 떨어뜨린다.

꿈쩍도 하지 않는 돌부처에게 부덕쥐가 이것을 알려주자 눈을 감고 불경만 외우던 돌부처는 《버르장머리 없는놈》, 《건달군같은놈》 하고 부덕쥐를 욕하면서도 제가 풍경을 다는것이 아니라 《대웅전 추녀 한귀에서 풍경이 떨어졌으니 다시 올라본게 해주옵써.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녀름만 외운다.

여러날째 이 광경을 보다못해 부덕쥐는 자기 입에 풍경을 물고 올라가 추녀끝에 매달아놓는다.

이것을 본 부처는 눈이 휘둥그래지더니 두손을 하늘에 대고 맞비비며 또 중얼거린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소이다. 고맙소이다. 아미타불께서 베푸신 그 은혜 망국 망국하오이다.》

이 얼마나 우스운가! 남이 해놓은 일을 자기도 아닌 관세음보살이 해주었다고 생각하는 돌부처의 꼴이 얼마나 우스운가!

이 동화에서는 돌부처가 어찌나 좋았던지 움푹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간만에 절간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농사일을 하다가 절간앞 밤나무밑에서 쉬고있는 짐승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임자네들도 힘들게 일을 하지 말고 경을 외우란 말야. 그러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극락세계에 갈수 있다네.》

극도로 라태하고 의존심과 신앙심이 지나칠 정도로 강한 돌부처는 도리어 부덕쥐를 건달군이라고 욕할뿐아니라 자기 힘은 조금도 들이지 않고 다시 달아맨 풍경을 두고 경만 외우면 모든것이 다 이루어지는듯이 우쭐대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우스운 존재인가.

돌부처는 얼마나 현실생활과 담을 쌓고있는 공허한 인물이며 그의 성격은 얼마나 내용과 형식, 본질과 현상이 불일치한 인물성격인가 하는것을 웃음속에서 잘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동화 《**징검다리가 된 돌부처**》에서 구사된 해학적수법은 돌부처의 라태하고 독경주의적이

며 현실생활과 유리된 허황하고 허장성세한 본질을 까밝히는데 활용되고있다.

돌부처의 회극적형상은 인물성격을 높은 전형화의 경지에 이르게 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묘사의 본보기로 된다.

일곱편의 동화들에서는 풍자적수법도 능숙하게 활용되어있다.

동화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에서는 고슴도치에게서 코등을 날카로운 가시털로 찢리워 혼썰이 난 호랑이가 어느 밤나무앞에서 폭 쓰러지고만다.

공공 앓음소리를 내며 죽은듯이 눈을 감고있던 호랑이 눈앞에 밤송이 하나가 부어올라서 얼얼한 그의 코등을 쿡 찌르고 아래로 땀대그르 굴러져간다.

흠칠 놀란 호랑이는 그것을 고슴도치인줄로 알고 떨기 시작한다.

《고슴도치님, 고슴도치님, 인젠 제발 내 코등을 찌르지 말고 용서해주십시오.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호랑이는 그자리에 넙적 엎드려 꾸벅꾸벅 절을 하면서 앞발을 싹싹 빈다.

...

여우가 호랑이에게 그것이 밤송이라고 알려주었으나 호랑이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고슴도치의 동생이라고 계속 우긴다.

동화에서 이처럼 자기를 과신하고 우쭐대던 호랑이가 고슴도치에게 약점을 잡혀 찢절때는 모양은 통패한 웃음을 자아낸다.

자기 힘에 대한 과신, 자기 위세에 대한 지나친 자만이 무너지는것을 그린 이 풍자적수법은 호랑이와 고슴도치, 큰것과 작은것의 날카로운 대조속에서 생활의 진리를 밝힌 힘있는 예술적수법으로 되고있다.

일곱편의 동화들에서는 해학과 풍자의 묘사수법이 능란하게 구사됨으로써 다양한 생활과 현실의 본질이 두드러지게 그려지고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전형화되었을뿐아니라 작품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동화의 감화력이 강화되었다.

5. 다양한 양상

일곱편의 동화들은 다양하고 독특한 양상으로 사상에술적특성을 나타내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품의 양상은 생활의 본색을 정서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형상의 독특한 색깔이다.**》
(《영화예술론》, 119페이지)

동화들에서는 그려진 생활이 각양하고 복잡한것 처럼 작품의 양상이 또한 다양하고 한본새가 아니다.

동화의 철학적깊이, 내용의 인민적성격, 작품의 민족적정서, 사상미학적평가 등에 의하여 작품에서 형성된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미적색깔이 각양하며 작품의 미학적모미가 다양하다.

유래동화 **《머느리와 좀다래나무》**, **《봉선화》**의 머느리와 봉선이의 형상들은 애절하고 처량한 정서로써 사람들에게 독특한 인상과 잊을수 없는 정서적여운을 주고있다. 성격형상이 안겨주는 애절감과 처량감은 착취사회가 나아린 녀성들의 온몸에 들씌우는 모진 불행과 비극이 주는 정서적색깔이며 그 불행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문을 던지는 미학적정서적인 감흥이다.

작품들은 지난날 착취받고 천대받던 조선녀성들의 설음과 불행, 고통과 원한을 사연많은 독특한 정서적색깔로 그려내고있다.

그러나 작품들은 우울하거나 암담하거나 절망적인 감을 주지 않는다.

작품들은 강한 정서적 힘과 매력으로 사람들에게 비극적운명을 강요당하는 주인공들에 대한 깊은동정과 련민과 울분을 자아내고있으며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우리 인민과 민족의 쓰라린 과거력사에 대한 사색과 자각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죽도적》**의 억울한 루명을 쓰고 눈보라 휘몰아치는 스산한 산기슭에서 얼어죽는 머느리에 대한 애절하고 처량한 감정에 휩싸인다. 그러면서 머느리를 부엌바닥에 엎어놓고 그 입에 펄펄 끓는 죽을 마구 퍼넣어 허가 데어 하얗게 만든 고약한 량반시예비와 시예미에 대한 울분과 적개심을 안고 미구에 그런자들의 허가 썩어 말도 못하고 밥도 못먹게 되어 모두 죽고야말 세상이 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사람들은 돈도적으로 몰려 몽두리를 쓰고 오라를진 불쌍한 봉선이가 억울한 루명을 쓰고 사느니보다 차라리 깨끗하게 죽자고 결심하고 물속에 몸을 던짐으로써 착취자들에게 항거한 그의 형상이 안겨주는 애절하고 통분한 감정을 품게 된다. 그러면서 사람은 죽으면서도 진실을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한다는 교상한 사상감정을 안겨준다.

동화 **《봉선화》**에서는 처녀 봉선이는 비극적으로 죽어서 방울같이 생긴 아름다운 꽃으로 피여 오늘도 계속 살아있으며 **《내 마음은 깨끗해요》**, **《내 손도 깨끗해요》** 하고 웨치는 그의 뚝뚝한 목소리가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깨끗하고 어질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게 한다.

동화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는 약동하고 발랄한 기백과 락천적인 감흥이 넘치는 양상을 가지고 호랑이를 희극적인 형상으로 부각하고있다.

동화 **《정검다리가 된 돌부처》**에서 창조된 부처의 형상이 자아내는 웃음은 경만 외우면서 자기는 극락세계로 간다고 남을 깔보면서 로동과 사회적실천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있다가 종당에는 쓸모없는 존재로 죽고마는, 리상과 현실과의 불일치에서 오는것이다.

그러나 돌부처는 통쾌한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호랑이와는 달리 쓰거운 웃음을 자아내게 하면서 사색의 세계에 이끌려간다.

동화 **《원숭이형제》**에서 창조된 동생원숭이의 형상은 작품전체가 주는 적극적양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밝고 경쾌하고 가벼운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경희극적인 성격으로 등장하고있다.

동생원숭이가 불러일으키는 웃음은 그의 허황한 지향과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현실과의 불일치에서 오는 웃음이다.

일곱편의 동화들에서는 이처럼 웃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다양한 색조를 띠고 나타나 여러가지 양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독특한 정서적미감을 안겨준다.

동화 **《달나라 만리경》**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인민적 레찬과 칭송의 감정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그것이 남조선의 반인민적식민지제도에 대한 폭로규탄의 감정과 얹혀 정론적으로 강하게 안겨온다.

동화는 예리한 정치적문제를 동화형식으로 구현하고 생활묘사에서 민족적색채와 현대적감각을 짙게 풍겨주는 양상적특성을 가지고있다.

작품은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으로 강하여진 정론적양상의 동화의 본보기이다.

이처럼 일곱편의 동화들에서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생활의 본색을 정서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독특한 색깔을 가진 형상들로서 철학적깊이가 있는 참신한 인간학적문제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제기하고 해명하여주고있다.

이상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옮긴 동화작품들이 거둔 커다란 성과들 가운데서 그 일부만을 분석하였다.

우리는 일곱편의 동화들에서 우리 식의 현대동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동화문학이 어떤 풍모를 갖추어야 하며 동화들의 본보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몇가지만 연구하였다.

동화작가들은 이 빛나는 성과를 본받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우리 식의 동화문학작품을 더많이 창작해나가야 할것이다.

잊을수 없는 모습

리호인

나는 지난 9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열렸던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현대문학의 역할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했던 어느 한 나라 작가대표와 며칠동안 같이 보낸바 있었다.

그때 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사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역사와 인류 앞에 세운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과 국제로동계급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고있습니다.》

누구나 잊을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마음속에, 혹은 사색속에 고이 간직하고있다. 그 모습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사귀는 과정에 마음속에 자리잡기도 하고, 비록 사귀는 과정이 짧았지만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기도 한다. 그 모습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희미해지거나 뇌리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그런데 그 작가대표의 모습은 날이 감에따라 나의 사색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진하게 새겨져가는 것이다.

그는 구라파의 어느 한 섬나라 사람이였다. 구라파의 발전된 수많은 나라들을 방문한바 있는 견식도 있고 관찰력이 예민한 중년 문필가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눈이 높고 자존심이 강한, 한다 하는 저너리스트이며 작가였다.

평양국제문학토론회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날 그는 토론할 원고를 가지고왔다.

《만족합니다.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는 타자를 친 원고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여러차례 걸쳐 수정, 가필하여 완성한 토론문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타자를 깨끗이 친 원고를 보며 사의를 표했다. 그의 성의가 고마웠다.

《래일 오전에 토론해야 하기에 오늘은 꼭 쉬겠습니다.》

그는 숙소로 올라갔다. 비행기를 세번 갈아타고 만 이틀, 48시간의 려정이 몹시도 피곤했던것이다.

다음날 아침, 그는 회의장으로 가는 버스안에서 당황한 어조로 나에게 말했다.

《토론문을 채 쓰지 못했습니다. ...》

《?! ...》

나는 의아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는 죄송하게 됐다고 하면서 가방안에서 토론문을 꺼냈다. 어제 봤던 그 깨끗한 토론문이 어찌나 찢고 가필하였던지 어느것이 주어인지 어느것이 술어인지 분간키 어려웠다. 그가 연단에 나가 제대로 읽겠는가 하는것이 우려되였다.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장담하던 토론문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는 나의 물음에 영문판으로 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을 가방에서 꺼내보였다.

《나는 이 로작을 읽고 흥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을 학습하는 과정에 자기가 준비한 토론문이 유치하다는것을 느꼈다. 그래서 준비해온 토론문을 수정하느라 밤을 꼬박 밝혔던것이다.

그의 눈에는 피곤과 졸음이 가득 실려있었다. 그러나 그는 회의장에 도착하자 곧 휴게실 구석벽에 놓인 쏘파에 앉아 채 쓰지 못한 원고를 완성하기 시작하였다.

회의시작할 때까지는 45분이 있었다.

그는 자주 근시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안경알을 닦았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내뿜었다. 그가 친 원주필이 쉽없이 원고지우로 내달렸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원고를 내려다보았다.

구라파 문예리론가들의 《명구》들이 하나하나 지워져간다.

이윽고 회의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더는 수정가필할 시간이 없게 되었다.

그는 나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고 일어났다.

나는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원고가 너무나도 어지러워 제대로 읽겠는지, 원고가 논리정연하게 됐겠는지...

...나는 회의장구석에 앉아 그의 토론을 들었다.

실은 공연한 걱정이었다. 그의 토론은 논리정연하고 힘이 있었다.

토론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작가들과 우리나라 작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토론은 작가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다.

《토론이 아주 잘됐습니다. 깊이있고 논리정연하며 분석적인 토론이었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나는 오전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올 때 그에게 솔직한 심정을 말했다.

《감사합니다. 〈영화예술론〉을 학습한 덕분이지요. 만약 〈영화예술론〉의 독창적이고 심오한 문예리론을 연구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세계작가들앞에서, 조선작가들앞에서 저의 토론은 매우 저조한것으로 되고말았을겁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혀주신 문예리론이야말로 20세기 문예리론의 최고봉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체류기간 하루도 빠짐없이 밤이 이슬도록 《영화예술론》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사업일정을 토의하기 위하여 숙소로 찾아가보면 늘 그는 책상에 마주앉아 《영화예술론》을 학습하고있었다. 어떨적에는 어찌나 심취되었던지 문기척소리를 듣지 못해 문밖에서 오래동안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체류일정을 마치고 객차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의 그의 모습은 지금도 나의 눈앞에 삼삼히 떠오른다.

패청한 가을날씨였다.

공항의 드넓은 활주로에 서있는 객차를 향해 우리는 걸어갔다.

사다리차가 소리없이 미끄러지듯 왔다. 그러자 우리의 뒤를 따라오던 역안내원이 그의 트렁크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트렁크를 받아드는 순간 트렁크가 너무도 가벼워 놀랐다. 빈 트렁크같았다. 나는 의아해서 고개를 기웃거리며 그를 쳐다보았다.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

그는 트렁크를 두손으로 앗아들었다.

그리고 하던 말을 이었다.

《옷가지들과 책들은 화물로 부쳤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오직 〈영화예술론〉이 들어있을뿐입니다. 비행기로 평양에서 모스크바, 모스크바에서 이탈리아의 로마, 로마에서 우리 나라로 가자면 48시간이 걸립니다. 그 아까운 시간을 그냥 보내겠습니까? 〈영화예술론〉을 다시금 탐독하면서 가자고 합니다.》

그는 나의 손을 굳게 잡고나서 사다리를 타고 객차로 올랐다.

그는 객차의 출입문앞에서 뒤로 돌아서더니 트렁크를 머리위로 높이 쳐들었다.

이윽고 그를 태운 객차는 요란한 폭음을 울리며 활주로를 미끄러져가더니 리륙하였다.

객차는 푸른 가을하늘로 높이 떠오르더니 미구에 점으로 되어 시야밖으로 사라졌다.

나는 가끔 평양국제문학토론회가 열렸던 인민문화궁전이며 그 토론회에 참가하였던 세계작가들이 들었던 숙소, 고려호텔앞을 지나느라하면 푸르스름한 근시안경을 낀 그 모습이 눈앞에 불쑥 떠오르곤한다.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있을까?)

나는 속으로 이렇게 반문해보곤한다.

그러면 나의 눈앞에 지중해의 잔잔한 물결이 조용히 치는 해변가 도시의 어느한 아담한 단층집이 밝혀온다. 이어 그리 넓지 않은 서재가 영화화면처럼 떠오른다. 그 서재의 창문가에 책장이 놓여 있다. 책상에 마주앉은 중년사나이가 자주 근시안경을 벗어 안경알을 닦으며 타자를 치고있다. 타자의 곁에 두툼한 책이 한권 놓여있다. 존귀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상이 모셔진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이 !

무지개 비낀 창광원에서

지효섭

우리가 창광원앞에 이르렀을 때는 보통강반에 어스름이 깃드는 저녁녘이었다. 한겨울이건만 창광원 앞거리에는 오가는 사람들로 흥성거렸다. 젊은이, 늙은이, 학생들... 아마도 우리결을 지나 어깨를 으쓱거리며 활기있게 앞서걸는 저 젊은층들은 하루훈련을 마치고 창광원을 찾아오는 체육선수들이리라. 그리고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우리를 마주향해 사뿐사뿐 걸어오는 저 얇전한 처녀는 미용원에서 머리단장을 곱게 하고 애인을 만나러 가는길일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백발의 로인들도 보인다. 그들은 방금 한증을 하고 나온 길인듯 얼굴이 불깃불깃하고 걸음걸이도 활기있었다. 백발홍안이라더니 그 로인들을 두고 한 말인듯싶다.

우리는 그들과 여기며 창광원중앙홀에 들어섰다. 순간 우리앞에 기묘한 정경이 펼쳐졌다.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현란한 가지각색의 빗발을 내뿜는 분수들이 신비로운 전경을 우리의 눈앞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마치도 수십개의 꽃무지개를 여기저기에 걸어놓은듯 우리의 눈을 황홀케 했다. 꽃양산처럼 물발을 활짝 펼치며 쏟아져내리는것이있는가 하면 질서정연하게 한줄로 쭉 늘어서서 저마끔 외가닥 물줄기를 엇비스듬히 뿜어올리는것도 있었으며 심산유곡 너럭바위밑의 샘물처럼 팔팔 솟구쳐오르는것도 있었다. 그 한복판으로는 높다란 천정에 매달린 대형무리등에서 한아름이 넘는 구슬씨들이 보기 좋게 내려드리워있었다. 마치 한복의 정교한 그림을 보는듯한 감이 들었다. 색도 없고 형태도 없는 물이 저토록 기묘묘한 재주를 부리며 아름다운 화폭을 펼쳐놓았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신비롭기만 하였다.

물! 그렇다. 창광원은 사람들이 물을 즐기는곳이다. 목욕탕, 한증탕, 수영장, 물놀이장, 여기서는 손님들에 대한 모든 봉사가 물로 이루어진다.

물! 사람들이여, 세상에 흔한것이 물이라고 무심히 생각지 마시라. 창광원이 자리잡고있는곳이 바로 옛토성랑자리이니 물에 대한 생각은 더욱 깊어지는것이 아닌가. 이 세상 그 어디에나 흔한것이 물이라지만 여기 토성랑은 물결에 살면서도 물이 귀한고장이었다. 또 그 물때문에 얼마나 크나큰 참화가 빚어졌던가. 그래서 토성랑이라면 물의수난지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그것은 옛세월의 이야기이다.

보통강은 해방직후 이 땅을 락원으로 전변시킬 위대한 구상을 안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보통강개수공사에 나오시여 건국의 첫삽을 뜨신 유서깊은곳이다. 이 유서깊은곳에 창광원이 일떠서게 된데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여기 보통강기슭에 우리 창광원의 위치를 몸소 정해주신데는 우리 인민들이 물로하여 더욱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 크나큰 은정이 어려있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던 이곳 책임일군이 감회깊이 하는 말이었다.

물로 하여 더욱 문명한 생활을 누리다! 이 얼마나 뜻이 깊은 말인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시고 몸소 이끄시는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전취물이며 대대손손 행복을 누리며 빛내어나갈 영광스러운 조국입니다.》

못잊을 몇해전 4월의 어느날, 창광거리의 어느한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하늘가에 치솟은 건물옥상에 오르시여 멀리 바라보이는 보통강유원지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시원하게 열린 넓은 길이며 인민문화궁전과 체육관 등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기념비적건물들과 준비하

게 늘어선 고층주력들을 바라보시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겨계시던 그이께서는 보통강기슭의 넓은 공지를 가리키시며 참 좋은자리라고, 오래전부터 저기에다 무엇을 지었으면 좋겠는가 하고 생각해왔는데 목욕탕을 지어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토성량은 지난날 인민들의 피눈물이 고이던곳인데 이제 현대적인 목욕탕을 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고 하시며 밝은 미소를 지으시였다.

아, 토성량! 옛세월에는 그토록 버림받던곳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 락원의 땅으로 꽃피었는데 오늘은 또 은혜로운 향도의 빛발을 안고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게 된것이다.

그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2층으로 올라간 우리는 남자대중탕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곳은 목욕탕 건설당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들리셨던곳이였다. 그날 완공을 앞둔 목욕탕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던 그이께서는 여기에 몸소 들리시여 욕탕과 물안마기, 샤워설비들을 그쯘히 갖추어놓은 내부를 세심히 살펴보시고나서 일군들에게 수용능력을 물으시였다. 한번에 850명정도 수용할수 있다는 한 일군의 보고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수용능력을 더 늘려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에 일군들은 무척 놀랐다. 현재 인원도 대단히 많은 수자였기때문이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목욕탕의 수용능력은 평양시인구에 대비하여 이 현대적인 목욕탕에 오고싶어하는 인민들의 심정에서 타산해야 한다고 심중하신 어조로 타이르시였다. 그 어떤 설계가도 시공일군도 그리고 건설을 지도하는 일군들도 목욕탕의 수용능력을 그것을 리용할 인민들의 심정에서 타산해본적은 없었다. 그 순간 일군들은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오직 인민의 복리를 위해 펼쳐나가시는 그이의 고매하신 풍모앞에 다시한번 고개를 숙이게 되였다.

《이렇게 되어 대중탕의 수용능력은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책임일군의 이야기를 감명깊게 듣고있던 우리는 창광원에 구급의사가 있다는바람에 저으기 의아해했다. 목욕탕에 구급의사라니 ?... 선뜻 리해가 가

지 않는 일이었다. 현대적인 설비가 모두 갖추어진 여기에 무슨 구급의사가 필요하단말인가.

《자, 그럼 저쪽 한증탕에 가서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는 그가 안내하는대로 한증탕으로 갔다. 자 동시간측정기며 온도계 등 최신설비로 꾸려진 훌륭한 한증탕이였다. 거기에 들어서는 우리의 눈앞에 문득 어릴적에 겪은 일이 떠올랐다.

칼바람이 뿔뿔히 불고 울리불고 내리부는 눈덮인 산기슭에 대충 지어놓은 돌막, 술가치를 몇개 꺾어넣은 돌막안은 델듯이 뜨거웠다. 그것이 우리가 옛세월에 본 한증탕이였다.

과거와 현재! 그것은 단순한 세월의 차이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모든 존엄을 짓밟히고 슬픔의 막바지에서 울던 우리 인민들이 은혜로운 손길에 받들리어 올라선 행복의 높이가 있는것이다. 과거는 슬펐고 오늘은 행복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순시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한증탕에 들리시여 우리 인민들은 목욕탕에 한증탕이 있는것을 제일 반가와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이께서 갑자기 일군들에게 여기에 구급호출신호장치가 되어있는가고 물으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뜻밖의 물으심이였습니다. 그 누구도 신호장치에 대해서 생각해본적이 없었으니까요. 만약 그 신호장치를 하자면 시공도 다시 하고 또 많은 자재와 로력이 드는 매우 까다로운 일이였습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돈이 더 들고 시공도 복잡하겠지만 꼭 신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구급의사도 배치하도록 하라고 따듯이 타일러주시였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만있었다. 그 순간의 감동을 어찌 몇마디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우리의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세차게 뼉뼉뼉었다.

우리는 크나큰 감동을 안고 수영장으로 향했다. 수많은 유리블록을 쪽무이하여 그 황홀감을 부각시킨 수영장에는 조약대와 수영수조들, 승강기, 수중촬영장치가 구비되어있는데 관람석만도 2,000여

석이었다. 우리가 들어섰을 때 마침 수영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이었다. 아득히 높은 조약대에 몸매가 날씬한 처녀수영선수가 서있었다.

그는 날렵한 동작으로 조약대까지 걸어나오더니 두팔을 머리위로 쭉 올리며며 공중에 훌쩍 올리며 있었다. 그다음은 몸을 이리 뒤집고 저리돌리며 별별 묘한 재주를 다 부리는 것이었다. 신기하면서도 가슴을 조이게 하는 한 장면이었다. 공중에서 몇바퀴 돌며 재주를 부리고난 그는 갑자기 몸을 꼳꼳이 펴며 마치도 수면을 향해 곤두박치는 바다의 갈매기 인양 아래로 날아내리기 시작했다.

《아! …》

보는 사람이 오히려 눈앞이 아찔했다. 그 처녀 수영선수는 생긋생긋 웃으며 물우에서 유유히 헤엄쳐 나오고있었다. 참으로 볼만한 광경이었다. 그런데 그 수영선수의 모습보다도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수영장의 물이었다. 드넓은 바다를 연상케하는 수영장과 물놀이장에 물이 가득차있는데 그 물이 어떻게나 맑은지 바닥에 붙인 하얀 타일이 손에 잡힐듯 또렷하게 들여다보였다. 이 맑은 물을 어디서 끌어왔을까? 우리의 물음에 그 일군은 창광원에서 쓰는 물은 매일 갈아대는데 그 량은 하루에 무려 수천톤을 헤아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 물은 대동강에서 끌어옵니다.》

《예?》

우리는 깜짝 놀랐다. 예서 대동강이 어디란말인가. 그런데 그 먼데서 물을 끌어오다니...

하긴 창광원건설당시 이 물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었다고 한다. 건설일군들은 시공이 끝나고 당장 수도공사를 시작해야 할 때 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신통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에서 하는대로 이미 채워넣은 물을 리파해줄 안을 세웠다. 이 보고를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리용할 창광원의 물은 100프로 뽑고 100프로 다시 넣는 원칙에서 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도를 펼쳐놓으시고 색연필로 대동강에서 창광원까지 곧은 선을 쭉

내그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대동강물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사람이 원하는대로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로동당시대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물은 값을 따라 흐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땅에 선 물도 그이의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을 따라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은 창광원의 맑은 물을 은덕수라 부르는 것이다. 사시장철 맑은물 흘러넘치는 창광원! 그 이름 또한 정답고 부르기도 좋으며 뜻도 깊다. 창광원이란 그 이름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지어주셨으니 우리 인민들에게는 더욱 친근하고 소중한 것이다.

창광산기슭의 옛토성랑자리에 솟아난 사랑의 집 창광원! 여기는 사철 여름이다. 여기서 우리 인민들은 여름을 즐기고있다. 창광원은 말그대로 종합편의봉사기지이다. 개별목욕탕, 가족목욕탕, 대중목욕탕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할수 있다. 목욕도 단순한 목욕이 아니다. 초음파와 물안마, 한증과 랭수욕, 찬물덕수까지 맞고나면 날듯이 거뽀한데 텔레비존을 보면서 시원하게 청량음료를 마시는 상쾌함은 또 얼마나 좋은가. 리발실, 미용실이 있어 손님들의 모든 편의를 도모해주고 신경통이나 고혈압 등 여러가지 질환치료에도 좋다고 하니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있는 것인가.

창광원을 찾는 손님들은 수도시민들뿐이 아니다. 그들속에는 황철의 용해공도, 함흥의 영예군인도, 벽성의 농장원도 있다. 어찌 그뿐이랴. 여기 물놀이장은 또 어떠한가. 물의 깊이가 60센치메터로부터 1.2메터에 이르는 경사로 되어있는 물놀이장에서는 어른아이할것없이 누구나 마음껏 즐길수 있다. 지금 물놀이장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 자연의 4계절은 변함이 없건만 사랑의 품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4계절은 원하는대로 찾아온다. 하늘가에 비끼는 무지개는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꽃피워주신 사랑의 무지개는 영원히 아름다운 빛을 뿌리고있다. 그 꽃무지개를 타고 우리 인민들은 더 좋은 래일로 끝없이 줄달음쳐가고있는 것이다.

세월을 찾은 사나이

배민옥 그림 류명구

우리의 주인공 장일환선생이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국으로 돌아오던중 꿈결에도 그리던 용림시에 들린것은 그해 봄이었다.

거기에서 유년시절의 친근한 벗이였고 오늘은 수령님의 친위전사로 자라난 영아와의 상봉은 얼마나 격동적이었던가!

어찌 그뿐이라, 여기에서 그는 세월을 찾은 사나이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아! 세월은 정녕 빠르것이나, 더딘것이나!...

×

옛적부터 사람들은 세월을 일러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다.

한번 가고 다시 오지 않는것이 세월이라 무적의 용맹으로 이름떨치던 영웅호걸도, 꽃과 아름다움을 다투던 절대가인도 그앞에선 무색하여 진토속에 영영 묻혀버렸고 침략의 불구름속에 잠겼던 이 안개낀 고향의 도시는 옛 흔적 찾아볼길 바이없는데 북천강 백사장에서 함께 덩굴던 애꽃은 벗들은 소식조차 묘연하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거늘 50 여년을 타향에서 속절없이 늙어오던 장일환선생에게 있어서 이곳의 모든것은 생소하기 그지없었다.

비록 고향은 아니지만 가슴허비는 추억도 신비로운 유년시절의 꿈도, 한생에 두번다시 차례질수없는 보람찬 생활도 바로 여기에 고스란히 남기고 갔던 장선생이었다.

《용림시에서 우마항이라면 제일 큰 거리여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방금 지나가던 더벅머리총각에게 우마항이 어떤가고 물었다가 우마항이란 어떤 물건인가고 되묻는 바람에 텐집을 한 장선생은 이제 다시는 더 묻지 않기로 다짐했다. 벌써 수십년이 지났는데 어제날에 있던 장거리라하여 오늘도 그 이름 그대로 꼭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는가? 장선생은 혼자 허거뜰 웃음을 웃었다.

며칠전 렬차칸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생각났던것이다. 그 여인은 장선생이 용림시에서 살았다면서도 그 유명한 《영미향》차집을 모른다고 비웃었다.

그런데 이 용림시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은 《영미향》차집과 같은 자그마한 가게방들과 차집들을 수백개나 끼고 앉았던 변화한 거리 《우마항》조차도 모르고있지 않는가! 닭알의 노란자위와 같은 그 우마항을...

장선생은 방금 떠나올 때 혼자나가면 길을 잃는다고 걱정하던 영아의 말이 생각나서 머리를 끄덕였다. 그까짓 북산공원쯤은 식은죽먹기로 찾아간다고 장담하던 자신이 어리석었던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돌아설 장선생이 아니었다...

장선생이 북산에 도착한것은 한낮이 기운 때였다. 생각보다는 일이 잘 껴여 한번 물어서 배스를 탔더니 이렇게 북산정류소에 이르른것이다.

배스에서 내린 장선생은 긴 목을 빼들고 두리번 두리번 살폈다. 《북산공원》이라고 쓴 대문짝만한 현판이 멀리 보이는 입구는 일요일도 아니지만 알락달락한 꽃양산들을 받쳐쓴 한가한 남녀들로 이채를 띠었다.

길옆에 쭉 늘어선 푸른 빛 창살올타리 뒤로는 휘늘어진 수양버들속에 반듯이 누워 일그렇대는 맑은 호수가 보였고 뽀트타기에 성수난 처녀들의 웃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온다.

《이게 진짜 그 북산이 맞거나 맞나. 응?》

쩍쩍 입맛을 다셔가며 가로수가 짝 우거진 소로길을 나서니 탁 트인 큰 길을 한뼘에 안고 우람하게 솟은 북산이 한눈에 안겨왔다.

저 푸르른 산중턱에 두둥실 걸린 구름다리도 아득한 산마루에 신기루처럼 보이는 《왕악묘》의 합각지붕도, 그렇다. 정녕 그 북산공원이 틀림없었다.

억센 두팔을 힘껏 벌린 용사처럼 변함없이 반겨주는 북산을 향해 장선생은 허겁지겁 걸음을 옮겼다.

(어데 보자, 북산아, 이 장일환이가 백발이 되어서야 너를 찾아 이렇게 왔구나...) 뜨거운 감회가 가슴에 솟구쳐올랐다. 실로 얼마나 소중한 꿈과 얼마나 즐거운 생활이 바로 이곳에서 이뤄졌더냐.

... 《야, 일환이, 어서 빨리 달려라! 이겨라. 이겨라.》

하늘땅이 들썩하게 울리던 쾅파리소리, 북소리, 응원소리, 그를 따라 달리며 빨간 손수건을 휘젓던

영아의 쉼쉼한 목청. 더우기 잊을수 없는것은 그날 달리기경기에서 내가 넘어서 졌지만 끝까지 뛰었다고 칭찬을 해주셨다는 김성주선생님.

은빛저녁노을이 황막히 드리운 이 바위열 오솔길로 멀리 걸어가는 김성주선생님의 영상을 우려했다 얼마나 만나뵙고싶어했던가...

《할아버진 누구냐요. 나하구 놀자요. 네? 요거 요거...》

또박또박 울리는 아이의 애된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그는 껍두룩한 체구를 한껏 굽히고 보았다.

키가 제 다리길이만큼밖에 되지 않을 꼬마친구가 그의 바지가랑이를 쥐고 흔들며 빠끔이 올려다 보고있었다. 아이의 감스레한 안경알너머로 울퉁한 두눈이 보이는데 덩그렇게 높아보이는 장선생 얼굴을 올려다보느라 들창코를 한껏 위로 찡그리고있었다.

《할아버지, 요거, 요거...》

그 애는 뽀족한 손가락으로 길옆 화단의 일세에 앉아 두날개를 팔작팔작 나뭇거리리는 나비를 가리키며 조잘댔다. 아마 잡아달라는 모양이다. 그러나 거울진 그의 손이 가닿기도전에 노랑나비는 장선생의 머리우에 날아와 뱅글뱅글 돌아서 어디론지 휙 사라지고말았다.

장선생은 와작 달아올랐던 가슴을 식히려고 깊은 숨을 몰아쉬고는 히죽이 웃으며 꼬마의 발그레한 두볼을 토닥였다.

《에그, 쪼꼬만너석이 안경은 무슨 안경이야, 응.》

《이건 보안경이래요. 우리 아빠가 사줬거든. 할아버지 해와 바깥가? 응.》

《안돼, 이너석, 이걸 끼면 하늘땅이 빙빙 돌아간단말이다. 넌 누구하고 왔니?》

장선생이 자기의 소중한 추억을 깨뜨린 어린 친구의 옆에 엉겨주춤하고 앉으려 하는데 《묘아야, 이리 온. 엄마한테 가지. 응 어서.》 하는 어디선가 중늙은이의 부드러운 부름소리가 들려왔다. 산으로 오르는 길옆에 당실히 선 아담한 단층집앞에서 한 녀인이 걸어오며 손짓하는것이 보이였다. 이마 그 집에서 나온 모양인데 한손에 자그마한 비닐가방이 들려있었다.

《뭘, 나 할아버지하구 놀래. 안경도 바꾸구. 큰 걸 질래...》

《아버님, 이거안됐어요. 아이가 철이 없어서. 애, 철없이 놀지 말고 어서 가자, 응.》

멀리서 보기에는 한 50 고개를 넘어선듯싶더니 가까이엔 온 그 녀인의 동실하니 쪽진 머리에 맑은

얼굴이 나이보다 쉼 젊어보이게 하였다. 그는 유한 웃음을 짓고 아이를 달래며 안았다.

《할아버지, 안녕.래일 나하구 안경 바꾸자요. 네?》

어린너석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서도 뒤를 돌아보며 연방 재잘댄다.

《원 너석두, 정말 귀엽군. 우리 손자너석도 저렇게...》

장선생은 할아버지와 함께 가겠노라고 쭈랑쭈랑 앞서던 손자너석이 눈에 밝혀와 빙긋이 웃으며 그들의 뒤를 따라 스적스적 걸었다.

어느결에 백양나무잎속에 파묻긴 그 아늑한 단층 집앞에 이르렀다. 《기념품상점》이라는 붉은 간판이 붉은 집안에서 뭔가 사고파는 사람들이 보였다. 방금 그 녀인도 복산공원에 왔던 기념으로 뭔가 사려다가 아이를 찾아나온 모양이다.

무심히 걸음을 옮기던 장선생은 집옆의 무성한 푸른 일세를 떠이고 선 백양나무아래에 걸음을 멈추었다. 한아름이나 되는 미출한 나무줄기에 불에 덴 상처마냥 껍질이 벗겨져 누런 속살이 내보이는데 거뭇거뭇한 진때가 눌러붙은 거기에 《福壽》(복수)이라는 글자가 간신히 내비쳤다.

(아, 저것은 분명 류씨네집 둘째아들이 학교로 떠나던 날 써놓고 갔다는 그 글이지. 류씨네 과부가 매일 그앞에 꿇어앉아서 아들이 크게 되어 돌아올것을 빌지 않았던가.)

장선생은 무릎을 탁 쳤다. 그렇다, 그때 이 집터에는 오소리굴같은 토굴집이 서있었고 가난에 쪼들리던 류씨네 과부가 파년한 두 아들과 함께 살고있었다. 언제인지는 알수없지만 류령감은 저 《왕약묘》에서 심부름군질을 하다가 학질을 만나 죽어버리고 과부로 된 류씨부인이 샅빨래도 하고 물도 끓여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었다. 그 과부의 성씨는 누구도 몰라 사람들은 죽은 령감의 성을 따서 류씨부인이라 불렀다.

30 고개에 넘어선 만이는 키는 작고 몸은 다부지게 생겼는데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약묘》 주지의 심부름군으로 일하면서 복산으로 오가는 큰길도 쓸곤하였다.

그런데 그 집 둘째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다고 소문이 나더니 그의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공부시켜 출세시키겠다고 학교에 보냈다 한다. 공부를 한답시고 조선팔도, 동북만주를 다 다니다가 또 언젠가는 일본까지 건너갔다더니 독립바람에 감옥밥까지 얻어먹고 바보가 되어 돌아왔다. 그래도 처음엔 지나온 이야기도 곧잘 하고 이웃들의 편지 깨나 써주

있었는데 아들때문에 속이 탈대로 탄 류씨부인이 병으로 죽고 공부하러 가기전에 정해놓았던 혼처마저 거절당하게 되자 알짜 바보로 되고말았다. 그 처녀가 부자집의 첩으로 끌려가며 통곡할 때에도 그 《류얼바보》는 히죽히죽 웃기만하였다...

창백한 얼굴에 류다르게 큰 머리통, 때이르게 희숙희숙하고 수세미처럼 헝클어진 머리칼, 코밑에 질서없이 덩성덩성 난 수염, 언제나 울상이되어 아래로 축처져 실룩거리던 두툼한 입술, 그 어느 덜된 자식이 잡아당겨 켜놓았는지 단벌바지가 오른쪽 허벅다리까지 켜지었는데 그래도 손에는 언제나 책 한권이 들려있었다.

저 나무밑에 앉아 책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리면 오고가던 애들이 물러와 옛말을 하라고 졸라댄다.

아이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그는 별름별름 웃으며 해식은 모양으로 밀도끝도 없는 소리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건 진짜야. 옛말이 아니란말이다. 어제저녁 리순신장군이 저 뒤길로 내려왔는데 한손엔 붉은 술이 달린 창을 쥐고 또 다른 손엔 총을, 그것도련발권총을 이렇게 쥐었다란말이다. ...》

《해해, 거짓말. 리순신장군은 우리 아버지 옛말 책에 있어.》

이고장에서 글깨나 읽은 정미소집 림서방네 막내 동이가 다 드러낸 볼기짝을 달짝거리며 말하자 그 바보는 자못 심중한 표정을 지으며 《글쎄 정말이라니까. 내 눈으로 직접 봤거든. 이렇게...》 라고 말하며 그것을 증명하려는듯 두눈을 흰자위까지 드러나게 부릅떴다. 그러면 애들은 와 하고 일어나서 《바보, 바보, 류얼바보》라고 놀려대곤하였다. 어떤 지긋은놈들은 긴 나무꼬챙이로 켜여져 너털대는 바지가랭이속을 쿡쿡 찌르며 《발가벗었다. 옷이 켜졌다.》 하고는 냅다뛰었다.

그 모양이 재미나서 까맣게 모여든 조무래기들은 자그마한 자갈들을 성수가 나서 쥐여뿌리며 《팡포쟁이, 팡포쟁이. 볼기 보인다.》 하고 놀려댔다.

이런 심쟁이질은 류얼바보가 얼굴에 서글픈 빛을 가득 담고 눈물이 글썽하여 《나만 벗었니. 온 세상이 다 벗었는데뎌.》 하고 중얼거리며 험망한 집문안으로 머리를 감출 때에야 즈믄해지곤하였다.

어느 눈오는 일요일 아침, 《왕악묘》앞마당의 눈을 치고나서 신체단련을 하고 돌아오던 소년회 회원들이 백양나무앞에 혼자 서서 책을 들여다보며 《진짜, 이건 진짜였어. 옛말이 아니야...》 하고 중얼대는 《류얼바보》를 보게 되었다.

그날 경상도집 맏아들 현하는 그를 《동키호테》라고 별명지으며 옛글을 너무 읽어 백치로 되었는데 옛 장수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다 왔다고 했다. 말하자면 깡깡 여윈 몸집은 오늘에 살고있지만 류별나게 큰 머리통은 언제나 옛날 투구를 번쩍이던 결전장에 가있다는것이다.

언제인가는 그 바보가 저녁늦게 돌아오는 김서방을 다짜고짜로 붙어잡고 《그대는 왜서 리순신 장군이 아니신지요.》 하고 소리치며 땅을 치고 통곡하였다 한다.

그런데 얼마후 《동키호테》가 종적을 감춰버렸다. 영아의 말을 들으니 그가 인력거를 끌고다닌다고 하는데 그런 바보가 인력거를 끄다는것은 《물고기가 나무우에 앉아 지저귄다.》는것처럼 얼토당토하지 않는 일이여서 우스개소리로 들었던것이다.

(아, 거치른 그 세상에 그도 어디 정처없이 떠나다가 속절없이 숨지고말았겠지. 하기는 그 신세에 천대받으며 살기보다 일찍 죽는것이 오히려 행복일것이 아닌가.)

장선생은 자기도 모르게 한탄하며 그 나무를 다시 쳐다보았다.

사람은 인생에 다시 자식을 남기고 초목은 산천에 씨를 남긴다는데 남다른 총명을 가지고 태어난 류씨네 둘째는 나라없는 탓으로 그렇게 바보로 되어 이지러지고말았다. 그렇게 아글타글 일해가면서도 아들이 잘되어 돌아오기를 꺾어앉아 빌던 류씨부인의 가련한 정상이 눈앞에 안겨와 그는 눈굽이 축축히 젖어왔다.

장선생은 저도 모르게 기념품상점안으로 들어갔다. 손님들은 뭔가 마음드는것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는데 대여섯명의 판매원들이 눈코뜰새없이 바빠 돌고있었다.

《손님, 어서 오십시오. 뭘 사시겠는지. 자, 마음껏 고르지요.》

장선생은 어느결에 자기를 보고 반기는 나이지숙한 판매원앞으로 다가가며 머리를 끄덕였다.

《저 한가지 물읍시다. 저 이 집자리에서 살던 류과부라고... 그 집 둘째아들이 류얼바보라 불리웠는데 혹시...》

두서없이 물어대던 장선생은 상대방의 의아쩍은 눈길을 감추고고쳐야 대변에 입을 다물었다.

(아- 내가 또 실수를 했군. 우마항도 모르는 그들에게 바다밑의 모래알처럼 숨어살던 류얼바보를 물어보다니. 무슨 필요가 있어서. 원 나이를 먹더니 로망을 하는군. 험, 어험...)

그는 일시에 자신을 자제하고 급히 되돌아나왔다.

《아바이, 아바이.》

뒤에서 누군가 찾는 소리가 들려와도 그는 화로 불을 들 쓴 사람처럼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산우로 뻗은 큰길로 씨엥씨엥 올랐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같이 가요.》

얼마안가서 애된 부름소리가 들려와 되돌아보니 방금 아래서 만났던 사내녀석이 제 할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오며 부르는 것이었다. 먼저 떠난 그들이지만 아이의 늦은 걸음때문에 뒤떨어졌던 모양이다.

《오냐, 오너라. 어어 그자식, 잘도 걷는다.》

장선생은 그들을 다시 만났게 퍼그나 반가와 달려와 안기는 애의 손을 잡고 앞장에서 걷기 시작했다.

《예구. 애두. 제 할아버지가 늘 여기 와서 등산을 시킨다구 하더니 제발루 걸겠다하며 통 안가지 않는답니다. 오너라. 애, 할아버지를 지체시킬라.》

뒤에서 따라오던 그 녀인이 미안하여 손자애를 불러대도 애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졸랑졸랑 잘도 걸었다.

어느덧 단숨에 구름다리미를 지나 산굽이를 에돌아 하늘높이 솟은 탑이 멀리 보였다. (아니, 저런, 저 산등성이는 우리 소년회원들이 등산운동을 하던 곳이 아닌가. 저렇게 큰 탑...?)

《정말 변했군, 변했어. 언제 저런 탑이 다 서고...》

《저건 원래부터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 데 엄마가 나만할 때에도 있었대요. 할아버진 그것도 몰라요?》

장선생의 혼자말을 어느결에 들었는지 묘아는 조잘조잘 대답하다가 나중엔 호 - 한숨까지 쉬었다. 아마 세상에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고 생각되는 모양이다.

장선생은 어깨를 으쓱하고 입을 찹찹 다셨다.

《그래 그렇지, 있었고말고.》

그렇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가. 저 애가 어찌 수십년전에는 이 장선생도 등산명수였음을 알수 있으랴!

장선생은 다시 온몸에 힘이 넘쳐나 단숨에 층계를 올라 구름다리를 넘어섰다.

《아이구. 좀 쉬여가자!》

마음은 아직 췌었어도 장선생은 저도 모르게 다리옆 돌걸상에 풀썩 주저앉았다. 헐떡헐떡 급한 숨소리속에 가르랑가르랑 하는 모기소리같은 소리가 섞여나왔다. 그래도 묘아는 힘든줄도 모르고 장선생의 손을 끌어당긴다.

《할아버지 다 왔어요. 저기 저 〈왕악묘〉가 보이지요. 빨리 가자요. 엄마한테 가자요. ...》

장선생은 그제야 머리를 들고 쳐다보았다. 분명 《왕악묘》였다.

붉은 기둥, 오색이영, 검은담장, 그레 바로 저미를 에돌아가면 지하실이 있었지. 어느날 밤 나는 그 지하실에서 회의를 하고있는 학우회 회원들을 위해 저 아름답드리나무밑에 숨어 망을 보았지. 그런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부엉이가 화등잔같은 두눈을 번쩍이는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라 《범이다, 범이다.》 하고 소리치며 천방지축 내달리지 않았던가...

영아가 날째게 달려와 붙어잡았으니망정이지 반정신나간 이 장선생이 어둠속에서 험한 벼랑을 가려보지 못하고 내뒹였으면 그때 벌써 산아래 황천귀신이 될번하지 않았는가...

《에이구.》 그때를 생각하니 소름이 끼쳐와 장선생은 어깨를 으시시 떨었다.

아! 그날의 그 《왕악묘》도 여기 있는데 그날의 동무들은 다 어디 갔는가? 한경희도, 팽영도도, 전영심이는...

나는 이렇게 다시 찾아와 그리운 회포를 풀고 머지않아 것처럼 그리던 김성주선생님을 찾아뵈오려 조국으로 가는데 그들은...

새삼스레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들의 모습이 저 천나무숲언저리에도, 저녀노을이 붉게 타는 하늘가에도 어려왔다.

장일환은 서산에 걸린 해를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세파속에 고이 묻혔던 끝없는 감회가 온몸을 휘감는다.

장선생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눈물이 축축히 두볼을 적신다.

포르르-

어느결에 장선생의 어깨에 와 앉았던 참새가 놀라며 날아올라 머리위의 나무가시에 앉아 짹짹 울어댄다.

《할아버지, 이젠 가자요. 할아버지 비왔나?》

어느새 달려와 답씩 안기던 묘아는 장선생의 눈물젖은 두뺨을 보더니 별스레 두눈이 동그래졌다.

《저, 아니다. 그레 가자. 애야, 할머니 안오시니?》

장선생은 황급히 두뺨을 썩썩 문대이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여기 앉아 옛 추억에 잠기느라고 해가 넘어가는 것도 몰랐던 것이다. 그제야 장선생은 영아가 근심하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났다.

《할머닌 나더러 먼저 가랬어. 할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린다고... 우리 할머닌 엄마하구 같이 온땀어.》

《그래 너의 엄만 게서 뭘하니?》

《우리 엄만 저 〈왕악표〉에서 일해요. 우리 집은 산아래 있구요. 할아버지두 같이 가지, 응?》

그제야 장선생은 묘아가 그렇게 제혼자도 잘 걸어오는 연고를 알았다. 그 애는 아마 늘 이렇게 제 어머니한테 다니는 모양이었다.

장선생은 묘아의 손을 잡고 재빛안개 짙어가는 산마루를 천천히 내리었다.

장선생이 호텔에 돌아왔을 때는 벌써 저녁식사가 한창이었다.

영아는 무슨 급한 일이 있어 나가니 함께 온 일군들과 식사를 같이 하라는 쪽지를 남겨놓았다. 다닐 때는 모르겠더니 먼길을 걸은 피곤이 몰려와 식사를 끝낸 장일환은 한참 폭 자려고 쓰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똑똑, 똑똑-》

잠결에 그는 문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누가 왔을까? 영아가 찾아왔을까? 아니야, 벌써 올수 없지. 그러면...하여간 어서 일어나야지. 어서.)

이렇게 혼자 속궁리만 되풀이하면서도 그자리에 눕아떨어져 움직일수 없었다.

《저, 손님이 오셨어요.》 하는 말소리와 함께 문이 방긋이 열리고 문뒤에서부터 꾹술꾹술한 머리를 시원히 풀어헤친 관리원처녀의 고운 얼굴이 나타났다.

《저런 빨리 들어오게나. 어서, 어디서 오신 손님 이신데...》

그제야 몸을 일으킨 장선생은 관리원처녀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사람에게 시선을 보내다가 깜짝 놀랐다.

《영? 이게 누구야...?》

그것은 분명 류얼바보였다. 동실한 얼굴, 입귀가 아래로 처진 두툼한 입술, 류달리 큰 머리통...

(아니, 아니야, 그럴수 없어. 류얼바보는 나보다도 나이가 열살은 더 우인데 어떻게... 세월을 거슬러 살수도 없는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리둥절한채 장선생은 망연히 쳐다보기만 하였다.

《저 안됐습니다.》

손님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약간 허리를 굽혔다

그제야 장선생은 그가 류얼바보가 아니라 오늘 북산공원의 기념품상점에서 본 그 판매원이라는것

을 생각해냈다. 사람의 착각이란 정말 이상한것 같다. 한나절 류얼바보에 대해 생각했더니 이런 착각이 온가싶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소. 영?》

아무리 모르는것을 물었다고 이렇게 뒤를 캐고 돌아갈진 무언가?

식곤증으로 오던 피곤도 삽시에 사라지고 알수없는 불안이 가슴에 갈마들었다.

《저, 저의 처가 오늘 복산에 함께 올라갔다면서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듯하다고 하기에... 또 긴히 알려드릴 말씀도 있어서...》

《아, 그 묘아가 자네 손자여? 그래 그런데 긴히 알릴 말이라니?난 아직 자넬 알지도 못하는데...》

장선생은 의아쩍은 눈길로 다시한번 자세히 그를 뜯어보았다.

(그래 분명 《류얼바보》와 비슷한데가 있어...)

장선생의 복잡한 속생각을 짐작했는지 그 손님은 너그러운 웃음을 띄우며 자기 소개를 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류씨댁 후손인데 류성입니다. 그 류얼바보라고 부르던 사람이 바로 저의 삼촌 류현이지요. 말하자면 제가 그의 조카입니다.》

그는 점점 커가는 장선생의 눈을 지켜보면서 여유있는 어조로 자기 소개를 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옆에 놓인 푸른 꽃천에 끄꽂 물건을 차탁우에 올려놓고는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것이 저의 용무입니다. 수십년간 전해줄길 바이 없다가 오늘 아버지가 우리 삼촌을 아시고 또 저 관리원동무들의 말을 들으니 조국으로 돌아가신다기에 이렇게 요긴한 부탁을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장선생은 이해할수 없는 눈길로 그 신비로운 꽃보자기를 쳐다보았다. 부탁이란 무슨 부탁인가? 그 류얼바보네 집에 무슨 신통한 부탁이 있으랴...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의 일이였지요. 그날밤 늦은 가을 곳은비가 쉴새없이 내렸지요. 일곱살밖에 안되는 저는 어머니의 곁에 누워 군잠이 들었다가 웅성웅성 하는 소리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잠결에 쳐다보니 아버지가 누우셨던 자리에 아지 못할 사람이 누워 어머니가 떠날어주는 물을 간신히 삼키면서 한마디한마디 말하는것이였지요.

〈저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형님. 이 못난 동생이 결코 헛되게 살지는 않았지요. 비록 내 불운하여 이 일을 끝내지 못했지만 쿨룩 쿨룩...〉

자지러진 기침을 짓고난 그 사람은 긴숨을 들이키고는 머리를 돌려 저를 쳐다보다군요. 창백하던 그 사람의 얼굴엔 순간 화색이 돌았지요.

〈저 애가 장손이군요. 참 기특하게 생겼습니다. 형님, 형님이 만약 이것을 전해드리지 못한다면 이제 저 애라도 커서 꼭…쿨룩…〉

이렇게 기침을 계속짓던 삼촌은 더는 아무 말도 남기시지 못한채 새벽녘에 조용히 운명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삼촌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비록 아직도 본적은 없지만 남들의 말을 듣고서 바보였다는 것을 알고있었는데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우리 삼촌이리라고는…〉

그는 말을 채 끝내지 못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 시끄럽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이 편지를 좀 봐주시시오. 그리고 우리 삼촌의 그 간절한 소원도 꼭 실현시켜주십시오. 그러면 황천에 간 우리 삼촌도, 우리부모님도 안심하실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생전에 이것을 전해드리려고 남만으로 북만으로 몇번이나 나가셨지만 끝내 전해드리지 못하고말았지요.》

이야기를 마친 손님은 보자기를 앞으로 당겨놓고는 천천히 풀었다.

마치도 그 무엇이 부서질가봐 저어하듯이…

보자기안에서는 흰 비닐로 뽕뽕 싼 작은 함이 나타났다. 함은 옷칠을 한 참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별로 호화롭지는 못해도 주인의 지극한 정성이 그대로 내비쳤다. 초땀까지 한 뚜껑을 간신히 여니 붉은색 천으로 뽕뽕 싼 공책 몇권과 그라프트지로 길게 접은 편지봉투 하나가 보였다. 책들의 겉뚜껑은 누렇게 고삭았고 거뭇거뭇한 물방울 마른 자욱이 이상한 꽃무늬를 그리고있었다.

(이건 무슨 책이기에 이다지도 정성껏 보관했을까? 아마 무슨 큰 학문을 연구한것이겠지. 그러나 그는 바보가 아닌가?…)

《아버님, 먼저 이 편지를 읽으시면 이 책에 깃든 깊은 사연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손님은 봉합하지 않은 편지봉부안에서 두툼한 종이장들을 꺼내여 두손으로 공손히 들어 장선생에게 넘겨주었다. 장선생은 종이장들이 쥐여진 그의 손이 몹시 떨리고있는것을 보고 호기심을 금치 못하며 편지를 받아들였다.

《…할일은 많고 마음은 조급한데 병마가 시간을 다투고 그이를 다시 뵈을길 없어 이 글을 남겨 간절한 소원을 알리는 바이다.…

…내가 처음으로 그이를 만나뵈운것은 그해 봄이었다.

봄이라고 종달새는 푸른 하늘 높이 떠 지종대는 데 얼어든 가슴을 달랠길 없는 나는 북산기슭에 홀로 앉았다.

〈유련아, 유련아,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죽어간 자식을 부르는 젊은 어머니의 호곡소리가 저 누런 먼지 흩날리는 황토길로 끌려가던 애화의 애절한 울음소리처럼 바람에 실려온다.

슬프다, 반만년의 오랜 문명지국이 오랑캐에게 짓밟히고 불쌍한 우리 민족은 저렇게 죽어만 가건만 나라를 찾으려 떠났던 이몸은 어이하여 이렇게 이국땅의 백수건달이 되었던말인가?!

(아, 리순신장군의 혼이라도 어디에 남아계시오면 굶어살피소서…)

세상을 통탄하고 조상의 혼을 빌어 찢어진 가슴을 위로하며 허거픈 웃음으로 세상 만사를 잊으려 하노라니 또 애들이 물려와 바보라고 놀려댄다.

〈그래, 바보지. 내가 바보지. 조상의 뉘도 잊은 불효자식이 바보이고말고. 아, 어이하여 이 세상은 이렇게 더디게만 가느냐. 죽지 못해 사는 이신세, 허, 내가 바보지. 허허, 허허허.〉

…

〈애들아, 사람을 모욕하면 못쓴다. 저리들 가서 놀아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부질없는 탄식을 멈추고 돌아보니 검은 학생복을 단정히 입은 흥안의 젊은이가 보였다. 그이는 나의 곁으로 다가와서 측은한 눈매로 바라보다가 찢어진 바지앞섶을 여미여주며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선생님, 나라를 찾겠다고 동분서주하시던 선생님이 이제 웬일입니까? 민족의 존엄까지도 잊으시다니요. 우리는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민족답게 살아야지요.〉

그이는 〈조선민족답게 살아야지요.〉 라고 조용히 되뇌이고서 북산기슭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시었다.

〈조선민족이라니? 그래 조선민족의 뉘이 다죽지 않았다는 말인가?〉 나는 자기를 잊고 멀어지는 그이를 우려렸다.

비록 조용하나 드팀없는 의지가 어려있는 그이의 말솜은 산울림마냥 나의 귀전에 울리고 또 울려왔다.

낱아준 부모도 원망하였고 사랑하던 애인도 떠나간 이몸, 친근하던 동료들도 배반한 이몸을 그이

는 그토록 친절히 불러주시며 조선민족답게 살라고 가르쳐주셨다.

가슴을 치며 울리던 그 소리에 쨍쨍 얼어터졌던 나의 가슴에도 눈석이가 시작되었다.

오래동안 고갈되었던 리성이 저 백양나무가지에 새움마냥 움터올랐다.

…나는 그때 그이의 말씀의 참뜻은 다는 몰랐지만 다시는 이렇게 살수 없음을 막연하게나마 깨달았다.…」

글을 읽어내려가던 장선생의 온몸은 세차게 설레었다.

그에게 그런 운명의 전환점이 있었던말인가? 그제야 장일환은 그가 왜 다시는 복산길옆에 앉아 아이들의 놀림을 받으며 옛 이야기로 세월을 보내지 않게 되었는가를 얼마간 깨닫게 되었다.

《류얼바보》의 온몸을 휘감았던 두터운 안개는 점차 걷혀지며 그 인간의 참모습이 어렴풋이 안겨왔다.

그렇다면 그를 타락의 길에서 구원해준 그 은인은 누구인가?

그를 새 생활으로 불러준 구세주는 누구인가…

장선생은 계속하여 내려읽어갔다. 한자한자 정히 쓴 세련된 글귀들은 장일환이의 사색을 수십년전 눈오는 그 새벽으로 이끌어갔다.

…겨울의 아침은 더디게도 밝아왔다. 여기저기에서 개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아침식사준비를 하려 일어난 녀인들이 퐁퐁 얼어붙은 정주문을 식칼로 툭툭 까는 소리가 새벽의 찬 대기를 뚫고 날아온다.

《지금쯤 우마항 길옆에는 고구마장사들로 법석덜덜. 빨리 가자. 아침요기를 하고 오늘은 저 룡대문에 가봐야지. 혹시 그이를 거기서 뵈울지 어찌 알랴.》

류현은 새벽차에 내린 손님을 인력거에 싣고 달리며 혼자 중얼거렸다. 아직 눈을 친 사람이 없는 큰길에서 인력거바퀴밑에 깔리는 눈은 빠드득 빠드득 기분좋은 소리를 내었고 나무에 앉아 철새없이 지절대는 참새들이 놀라 포르르 날아오르면서 나무가지에 소북이 쌓인 눈가루를 날려 뽀얀안개를 피워놓는다. 어느덧 울리막에 다달은 그는 온몸이 녹지근한 허기증을 느꼈다.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요란스런 소리가 울려오는데 하얀 성에가 피어난 눈섭우로 차거운 땀방울이 축축히 흘러내린다.

《이놈, 어서 가지 못할가! 발이 다 퐁퐁 얼어드는데.》

인력거에 앉은 사람은 간신히 울리막길을 툭아오르는 땀배인 류현의 뒗잔등을 개화장으로 툭툭 치며 철새없이 재촉한다.

그럴수록 류현은 발목이 다 시근시근해지며 온몸의 맥이 발끝으로 다 빠져가는것 같은 허탈감에 이를 악물었다.

《이놈, 어서 가자. 이 〈고리빵즈〉 같은놈!》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류현은 간신히 올라선 고개턱에 쓰러졌다. 아리송한 심연속에 빠져드는 그의 잔등우에도, 흰김이 물물 나는 머리에도 징박은 구두바닥이 사정없이 란무한다. 그러나 류현은 움직일수 없었다.

《여보, 조선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쓰러진 사람을 마구 치면 어떻게 하오. 당신은 무슨 사람이기에 그렇게 남을 팔시킨단말이요.》

《여, 난 돈을 냈단말이야. 인력거 값울…》

《흥, 돈이면 다요. 돈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일없단말이요…》

류현은 꿈결에 봄의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자애로운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잃고말았다. 아! 그이다. 내가 바로 오매에도 찾던 그이의 목소리. 그이를 찾기 위해 인력거를 끌고 거리마다 골목마다 찾아다니는것이 몇날, 몇달. 그런데 일각삼추로 학수고대하던 그이가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나 나를 구해주시다니…

그러나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벌써 아늑한 자기 집 방안에 누워있었다. 이게 어찌된셈인가? 그이는 어데 갔단말인가! 내가 어이하여 집까지 오고…

그후에야 류현은 김성주선생님께서 인력거에 탔던 전당포주인놈을 엄하게 꾸짖고 그를 병원까지 데려갔었다는 사연을 형님에게서 듣게 되었다.

형님은 그에게 김성주선생님이 남기고가신 자그마한 글썩지를 전해주었다.

《선생님이 인생의 길을 되찾았다니 기쁩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 우리가 어제날의 죽은 영웅들만을 찾아서야 무얼하겠습니까. 자신이 살아서 왜놈들과 싸우고 나라를 찾는 영웅이 되어야지요. 선생님이 우리 나라 역사를 오래동안 연구하셨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인민의 참다운 오늘의 역사를 계속 연구하리라는것을 믿습니다.》

류현은 바로 그날의 그 감격을 이렇게 쓰고있었다

《…아, 그것이구나. 파란곡절 많은 인생의 길에서 찾아 헤매이던 진리가!…

그제야 나는 현실을 부정하고 역사의 진토속에서 조상의 혼이나 부르는것이 애국의 녀이라고 믿어온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았다.

《우리 인민의 참다운 오늘의 역사》 그것은 바로 일제놈들과 싸우는 오늘의 투쟁이며 왜놈을 쳐

부시고 나라를 찾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
는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오늘의 역사를 창조하는 그 영웅은 어디에 있는
가?... 나는 하늘끝까지라도 찾아가리라 마음먹었
다. 그런데 그 영웅이 바로 나의 생명의 은인일줄이
야 어찌 알았으랴...

그것은 북천강기슭에 노한 불길의 활활 타오르던
그날 밤이었다...》

불길, 북천강반의 불길... 그것은 잊지 못할 일화
배척투쟁의 나날이었지. 그렇다. 그날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장선생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 그날저녁 영아와 함께 북천강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벌써 화광이 충천하고 사람들은 인산 인해
를 이루었지. 검푸른 하늘을 불태우려는듯 활활 타
오르던 불길은 굽이치는 북천강물을 붉게붉게 물들
었고 분노한 사람들의 웨침소리는 기승스레 울부짖
는 노한 파도소리마저 삼켜버렸었다.

《아니, 거건 우리 소년회 회원들이 쌓아놓은 일
본놈들의 물건이 아니야? 누가 벌써 불을 질렀구나.
우리가 늦었어 !》

영아는 낮 한나절 바빠 보낸 소년회원들의 공로
를 누가 가로채기라도 한듯 두덜대는 장일환의 손
을 잡고 앞으로만 내달리었다. 사람들의 물결속을
간신히 뚫고 강둑까지 간 장일환은 문득 멈춰버렸
다.

《아니 저분이 김성주선생님이 아니신가! 얼마
나 만나뵈고싶었던가...》

대낮처럼 밝은 강둑위에 높이 서신 그이께서는
그처럼 씩씩한 자세로 달려오는 청년들에게 손짓하
고계시었다. 그이의 손길에 따라 달려온 한패 또 한
패의 대오가 아름별게 가져온 더러운 물건들을 불
길속에 내던졌다. 불길은 탁탁 소리를 내며 그 모든
오물들을 단숨에 삼켜버린다. 이때마다 빼곡이 물
려선 사람들속에서 우렁찬 웨침소리와 노래소리가
터져나왔다.

거기에서 그는 차선생의 붉게 상기된 얼굴도 보
았고 영아 아버지의 땀에 젖은 이마도 보았다. 아니
그런데 거기엔 분명 영아의 동실한 얼굴도 보이지
않는가...

그제야 장일환은 자기만 혼자 멍하니 서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에이, 또 늦겠군, 오늘은 나도 꼭 만나뵈려야.
꼭.》

그는 이렇게 혼자 중얼대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
다.

《아이고, 망했군, 망했어. 흐흑...》

문득 옆에서 들리는 울음소리에 돌아보니 전당
포집주인이 뼈죽한 제 머리통을 손으로 쥐여박으
며 누런 얼굴에 뿌죽하니 내민 입을 헤벌리고 쿨쩍
이는것이 보였다.

소년회 회원들이 빼앗아낸 약담배가 아까와...

순간 복수의 쾌감이 온몸에 갈마들었다.

《자, 먹어라 콕!》

장일환은 그자의 뒤통수에 대고 격문을 냈다 뿌
렸다. 그바람에 전당포주인놈은 노루 제방귀에 놀
라 뛰듯 달아나버렸지. 얼마나 통쾌하였던가! ...

여기까지 생각하던 장선생은 불현듯 떠오르는 생
각에 눈을 번쩍 떴다.

(그래, 분명 나는 거기에서 그때 그 <류얼바보>
를 보았다. 그는 강열의 쇠란간을 부여잡고 하염없
이 눈물만 머금고있었다. 언제나 해식은 웃음을 짓
던 그가 이렇게 우는 모양을 보고 나는 또 바보노
릇을 하려니 생각하며 지나쳐버렸지...)

장선생은 그제야 그 류현이 무엇때문에 그때 울
고있었으리라는것이 조금이나마 헤아려졌다.

불길속에서 한줌의 꺼먼 먼지로 되어버리는 왜놈
장삼과 게다짜들을 보면서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
그것은 정녕 원한많은 인생에 얼어터진 가슴을 찡
찡 녹여내며 즐기차게 흘러내리던 봄물이 아니었던
가...

짓밟힌 그의 인생에 봄을 안아주시고 나라잃은
우리 민족을 반일투쟁으로 이끄시는 그 은인, 그이
가 바로 것처럼 찾고찾던 민족의 영웅이었다. 그는
바로 그 민족의 영웅을 찾은 기쁨과 행복에 겨워
울고있었으리라... 조선의 낮은 정녕 살아있다고...

장선생은 머리를 끄덕였다.

《저 너무 피곤하신것 같은데 후에 천천히 보십
시오. 전 이젠 돌아가겠습니다.》

깊은 사색속에 빠진 장선생을 바라보며 류성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였다.

《아니, 아닙니다. 저 방금...》

류성은 다시 앉으며 미안한 웃음을 띄웠다. 장선
생은 편지를 다시 펼쳐들었다. 그런데 편지는 온통
눈물로 흐려져서 알아볼수 없었다. 장선생은 그가
이 글을 쓰느라고 얼마나 모태졌으리라는것이 짐작
되어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다음장의 글은 간신히
알아볼수 있었다.

《세월이 왜서 이다자도 빠르나... 내 운명이 왜
서 이다지도 빨리 끝나는지...

아! 철없이 내리는 늦가을의 찬 ○○애석한 ○마
음을 알아 ○○○물안개 ○리는데 그리움은 이 가
슴에 사무치○○

비록 변변치 못하나 그이께서 싸우시던 모든곳을 찾○○○○ 써가던 나의 이 글은 그이에게 매혹된 모든 인간들이 심장과 심장을 합치여 끝내이리라 믿으며 내 혼이나마 옷으며 그이를 찾아가고저하노라…》

다음 글들은 눈물에 흐려져 읽을수 없었다.

장일환은 떨리는 두손으로 펼쳐든 편지지들을 책상우에 정히 놓고서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봄향기를 안은 솔바람이 불어와 달아오른 이마전을 시원히 적서준다.

저기 저 희끗희끗한 야광속에서도 거연한 그 자태를 자랑하는 북산, 바로 그아래에 곡절많은 인간이 고이 눈을 감았을 안식처가 있지 않는가! 그는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끝내 용림시에 와닿았던것이였다. …

불그레한 얼굴, 류다르게 큰 머리통, 희스희스한 머리칼, 두툼한 입술, 손에는 책 한권이 들려있다. 백양나무 설레는 북산기슭에 앉아 해뜨는 동녘하늘을 우러러보다가 깊은 사색에 잠겨 정중히 책을 펼쳐들고 열심히 쓰고 또 쓴다.

그의 필촉을 따라 들끓는 시대가 살아숨쉬고 그의 필촉아래 영웅의 불멸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

그다. 그가 바로 류현이다.

장선생은 분명 류현의 모습을 보고있다. 허무하고 지루하던 나날 세월을 등지고 살던 류현의 죽은 모습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거세찬 세월의 격류속에서 내달리던 류현의 모습을 장선생은 보고있었다.

그처럼 보람찬 삶이었기에 류현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귀중하였고 너무도 빠른것만 같았으리라! 그렇다. 그는 정녕 세월을 찾았다.

때문에 그는 오늘도 저렇듯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있는게 아니겠는가!…

《저… 아버지님, 편지를 읽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 책들에 바로 우리 삼촌이 그동안에 쓴 글이 적혀있습니다.

삼촌이 없은후 우리 아버지가 다니면서 얼마간 알아와서는 저더러 적게 하였는데 제가 그만 너무 어리다보니…》

손님은 얼굴을 붉히고 미안한듯 눈을 내리깔면서 말을 이었다.

《저 우리 묘아의 에미가 지금 그 〈왕악표〉에서 일하는데 사적실도 꾸려놓았습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반향을 적은것이 이렇게 한책 되었습시다. 저, 혹 시간이 있으면 꼭 들려보십시오. 그때 회의하시던 지하실도…》

아! 장선생은 불현듯 가슴을 치는 또하나의 발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세월이 흘러 천지만물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것이 정녕 여기에 있지 않는가!

장선생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었다.

《떠나기전에 우리 집에도 꼭 오십시오. 우리 묘아가 반가와할겁니다.》

순간 그의 눈앞엔 감실감실한 보안경을 끼고서 답삭답삭 앞에서 걸어가던 묘아의 그 모습이 안겨왔다. 그는 매일 소년회원들이 등산하던 그 길에서 미래로 가는 힘을 키워가고있으리라!

류성은 자기가 가지고 온 책 두권도 나무함결에 공손히 놓고서 장선생의 사색을 깨울가봐 저어하는지 조용히 돌아갔다.

장선생은 류성의 뒤모습이 사라진 어둠이 잠긴 거리를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장선생의 눈앞에는 밤의 자옥한 어둠을 뚫고 류현의 그 모습이 다시 확연히 나타났다.

고난에 찬 인생의 초행길에 더디게만 흐르던 세월을 한탄하면서 타락으로 제한몸을 희롱하던 《류얼바보》, 새로 찾은 세월에 분과 초를 아끼면서 영웅의 빛나는 자옥자옥을 더듬어가던 력사가 류현, 저 책들의 글줄마다에는 그의 불타는 지향과 피라는 노력,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적혀있으리라. 이 한 인간의 더디고 빠른 운명의 이야기는 곡절많은 우리 민족의 그 운명이 아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헤매이다가 바로 그 은혜로운 빛발속에서 영원한 삶을 찾았던가?

장선생은 초야에 묻혔던 이름없는 한 인간의 편지에서 그림고그림던 동무들의 얼굴도 보았다. 북산의 고개길로 소년회가를 높이 부르며 행진하던 그리운 동무들, 전영심이, 광영도도, 한경희도…

장선생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크나큰 중임을 짊어졌는가를 깨달았다. 그는 바로 그들 모두의 뜨거운 념을,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한가슴에 가득안고 존경하는 김성주선생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대를 이어 적어간 이 력사는 우리 민족이 피로써 새겨온 력사의 한페지를 더 아름답고 빛나게 장식할것이였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그에게 주는 새로운 과제가 아닌가!

《세월, 정말 더디고 빠른것이 세월이구나.》

장선생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백두산밀림이여

송명근

장엄하구나
사방 둘러보아 내 눈길 미치지 못하는
백두산밀림이여
쌩-어데선가 밀려오는 바람에
가슴가득 부푸는 숨결이여

잔잔히 누웠다가도
거세차게 솟구치며 일어서는 밀림의 바다
검푸른 가문비, 창창한 이깔숲이여
일렁이는 물갈기인양
군데군데 하얀 붓나무숲이여

그 누가 다 헤아려내랴
천만 아지 천만 잎새의 설레임소리
하많은 음향과 속삭임의 뜻을

끝없는 밀림이여, 백두밀림이여
너 어느 세기에
우리 마음 한복판에 자리 잡고
설레이기 시작했느냐
감감한 하늘에
장수별을 받들어올린 전설의 바다여
쓰러진 조국을 안아일으킨
위대한 력사의 갈피를 번지며 설레느냐

진정 할줄 모르는 너의 속삭임은
천년 이끼 덮인 진대우에
수령님의 군복자락 스쳐간 소리이나
설레이며 울부짖음은
압제의 쇠사슬 락엽처럼 훑날려보내던
거세찬 폭풍의 회오리나

한흠의 미시가루 뜨겁게 나누던 너의 우등불결에
풀뿌리를 씻던 작식대의 웅달샘가에
티없이 맑던 너대원의 웃음소리
그 어느 기슭이든 락엽을 헤쳐보라
사령부를 보위하여 사선을 뛰어넘은
뜨거운 발자취... 발자취...

아, 밀림의 바다여
너는 무한대의 품에
이 세상 귀한 생활의 진주보석을
모두다 간직하고 설레이거니

가고 가면 너의 기슭은 끝이 있으리
허나 내 언제면
네 간직한 숭고한 정신을 다 안으랴
백두산밀림이여
네 년륜에서 풀어내고 풀어내어도
만대에 불멸한 재부는 끝을 몰라라!

백두산노을이 내린다

김혜선

장군봉을 휘감았던
운무의 이랑이랑
붉은 옷자락처럼 이끌고
아침노을이 내린다
삼지연못가에 내린다

시련의 그 세월에도
백두산을 우러러 순결했던 맑은 물
더더욱 아름답게 물들이며
수면우에 내리는 노을이여

백두산을 우러르던
이 나라 인민의 맑은 눈동자처럼
비바람 불바람 불어와도
변함없이 고이 간직한 맑은 정기는
네가 준것 아니냐, 백두의 노을이여

가없이 열리는 저 하늘가
이 땅의 저끝까지

따스한 손길처럼 쓰다듬으며
맑은 모습으로 단장해주는
백두의 노을이여

너 아니냐
수난의 그 세월
짓눌렸던 가슴가슴을 흔들어
백두산을 우러러 내세워준 빛발
어둠속에 갈길 몰라 헤매이던 운명들에
장군별을 우러러 맑은 희망 안겨준 빛이

아, 노을이 내린다
천리를 가도 만리를 가도
내 운명 지켜주는 은정어린 손길처럼
언제나 내곁에 있는 사랑처럼
어제도 오늘도 백두산만을 비껴담고
변함없이 맑은 삼지연못가에
백두산노을이 내린다

복받은 이름이여

-평양산원에서 외국의 한 여인이 부른 노래-

신형길

진달래
진달래
사랑하는 나의 진달래
금을 준들 바꾸라
옥을 준들 바꾸라

부를수록 고마움에 목메이는
축복속에 태어난
나의 딸 진달래!
이 시각에도 포근히 안고
내 산원의 창가에 서있나니

어찌하여 이다지도 가슴은 후터워만지는것인가
행복한 가정은 이루었어도
기쁨의 꽃이 없어야 그 무슨 생활이라
그늘진 그 마음 헤아리시여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로
산원의 침대가에 다정히 이끌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사랑, 그 은정의 바다우에 떠받들려
꿈만같이
귀염둥이 태어났을 때엔
친아버지같이 기뻐하시며

너무나도 행복에 겨워
간절하게 청을 드린 그날
친히 이름도 지어주시였어라
《진달래!》

아, 진달래 내 사랑 진달래
봄을 먼저 알리는 꽃
삶도 미래도 봄날같이 피어나라고
외모도 마음도
붉게 타는 꽃잎같이 아름다우라고

세월이 흘러가도
시련의 폭풍우 몰아쳐와도
굽히지 아니할
혁명의 꽃으로 억세게 피어나라고...

그 높은 뜻으로
이 가슴에 피여 만발한
아가야
나의 행복
나의 기쁨아!

은혜로운 해빛 넘치는
저 푸른 하늘가에 깃을 펼치며
무럭무럭 어서 자라거라
향도성 따르는 그 한길에
지지 않는 꽃송이로 피어나거라

진달래
진달래
사랑하는 나의 진달래
내 나라, 내 민족의 력사우에
처음으로 태어난 별같은 이름이여!
아, 향도의 해발아래 피어난
이 세상 복받은 이름이여!

눈이 내린다

김영길

한밤중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끝없이 뻗어간 제방과 간석지벌을 온통 백설천지로 만들어놓았다.

바위투성뿐이어서 불성사납던 알섬은 밤새껏 내린 눈에 포근히 덮여 마치 가없이 넓은 벌판에 솟아난 목화더미처럼 두리뭉실하게 보였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정갈하고 푸근한 눈이 수북 수북 덧쌓일수록 섬의 모든 기복과 별스레 모난것들을 다 덮어버려 사람들의 마음도 후하고 부드럽게 정화시켜주는상싶었다.

애기수며같은 눈송아리는 종일 퍼붓고도 성차지 않은지 해질녘이 다 되도록 조금도 속지지 않고 한 본새로 그냥 쏟아져내렸다. 2월중순에 눈이 이처럼 퍼붓는것은 드문 일이었다. 이 때아닌 눈세례에는 아랑곳없이 알섬은 아침부터 법석이고있었다. 마침내 눈의 뽀얀 장벽을 뚫으며 《승리-58형》 버스 한대가 알섬합숙마당을 나선다.

《휘딱 갔다오라구... 아직 두탕을 잘해야 남은 인원을 다 태워보낼것 같네.》

이 섬의 《세대주》인 직장장이 운전사에게 하는 말이다. 경쾌한 기타곡이 흘러나오는 버스안이나 밖이나 한결같이 기쁨에 들뜬 얼굴들이었다.

하긴 그럴만도 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먹는 문제부터 공산주의적시책을 실시하려는 결심밑에 30만정보 간석지건설의 웅대한 설계를 펼치시자 이곳 알섬을 비롯한 《ㄷ간석지》건설자들이 맨먼저 1만정보를 막고 그 총화를 하는데 어찌 노래와 웃음이 절로 나지 않겠는가...

축복의 꽃보라인양 훑날리는 눈발속에 버스는 인츰 사라져버렸다. 흥분과 조바심을 녹잡히며 마당가를 서성거리던 사람들도 합숙방으로 흠어들어간다.

한사람, 최종선반장만이 선자리에서 굳어진듯 좀처럼 움직일줄 몰랐다. 그는 눈때문에 벌써 또렷한 모습을 잃기 시작하는 바퀴자리를 생각깊은 눈길로 더듬고있었다. 버스를 배에 싣고 섬으로 건너오던 때가 어제런듯 감회도 새로왔다. 그런데 오늘 그 버스가 제방으로 련결된 넓은 길을 따라 래일 수훈식에 참가할 간석지건설자들을 태우고 물으로 가고있는것이다.

수훈식을 앞둔 요즘 간석지의 모든 현장들과 종합기업소 소재지마을은 명절기분으로 흥성흥성했다. 간석지에서 100리나마 떨어져있는 부재공장지

구에서도 출장원들과 휴가로 가고오는 사람들이 한 두마디씩 자랑을 퍼뜨려서 그 소문은 삽시에 온 나라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되었다.

최종선반장은 뒤에서 자기를 지켜보는듯한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직장장이 아름이 벌게 편지봉투를 안고 서있었다.

《이것 보라구. 임자네 〈막내〉한테 또 스무장이 왔구만.》

최중선은 반색하며 자기네 작업반에 오는 축하편지들을 넘겨받았다. 작업반 《막내》란 간석지에 온지 1년 남짓한 고등중학교 졸업생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무동력삭도를 창안도입하는바람에 일은 곱절이나 능률이 났고 힘은 절반이나 덜 들었다. 그리하여 공로자명단에 그의 이름도 자랑스레 올랐던것이다.

《허참 이러다간 편지도 미처 읽지 못하겠는데 요.》

최중선은 자기 상급이면서도 장인인 직장장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러나저러나 자네가 이번에 일처신을 잘했네. 첫차를 타고 떠나는 녀석들이 기뻐하는걸 봤지, 허허...》

물으로 가는 첫차에 제일 나이는 사람들과 자기네 작업반의 《막내》또래를 태우자고 우겨댄 사위를 두고 하는 직장장의 말이였다. 간석지의 어제와 래일을 생각케 하는 웅심깊은 처사라고 직장장은 은근히 대견스러워했다.

허나 최종선은 아직도 무엇인가 목직한것이 가슴속에 매달린 사람처럼 무거운 기분으로 제방이 뻗어간 물쪽을 바라보았다.

《오늘같은 날에야 버스가 길 나빠 못가겠나. 그 사람들이 떠메고라도 가잖으리. 이젠 들어갑세.》

직장장은 어느덧 눈사람같이 되어버린 최종선에 게 재촉했다.

최중선은 실상 며칠전부터 가슴속에 안고 남몰래 모대기며 원심을 쓰던 문제를 이제는 털어놓지 않고 더는 참아낼수가 없었다.

《우린 이렇게 버스를 타고 총화모임에 훈장을 타러 가는데 립기사장은...》

별안간 말문이 막히고 목에서 울대뿐만 소리나게 오르내린다. 직장장은 반장의 얼굴을 한동안 묵묵히 바라보다가 눈길을 돌리었다. .

《음…》

림기사장은 공사의 마감막이 대목에 이르러 갑자기 들이닥친 태풍속에서 희생적으로 기계들과 언제를 보호하느라 무리한 탓에 불치의 병이 도지며 〈간석지〉 완공의 날을 얼마 앞두고 간 종합기업소의 전기사장이었다.

물론 림기사와 작업반장 최중선은 남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직장장과 같이 로촉들은 또 그들대로 림기사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직장장은 젊은 최중선의 마음보다도 자신을 위로하고 싶었다. 해서 반장을 돌아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런 사람이 쉽지 않지. 누구든 림기사는 잊지 않을걸세.》

눈은 여전히 평평 쏟아졌다. 무연한 간석지와 제방은 더욱더 눈속에 자취를 감추고 온 천지는 그대로 점 하나 없는 흰 세계였다.

최중선은 무심중 커지는 불안을 느꼈다. 간석지의 오늘을 위한 림기사의 숨은 노력의 자취가 저렇게 눈속에 묻히고 세월의 흐름속에 삭막해질 것이 아닌가?... 끝내 최중선은 참지 못하고 합숙방에 들어가 덧옷을 입고 나왔다.

《전... 걸어서 사업소에 가겠습니다.》

공연한 로파심이랄까 눈이 더 내리기 전에 림기사와 자기들이 성실한 땀을 뿌리며 쌓아올린 제방뚝을 보면서 지난날을 추억하고 싶었다.

《아니, 눈이 그냥 그렇게 들끓는데 어디루 간다구 그러나. 가깝지두 않는 길인데...》

직장장은 쫓아나오면서 만류했다.

《근심 마십시오.》

최중선은 혼연히 길을 떠났다. 뒤에서는 직장장이 후더워지는 눈길로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중선은 눈속을 헤치고 제방길을 기꺼이 걷고 또 걸었다. 귀를 기울이면 어디선가 앞서 떠난 빠스의 동음이 간간히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한데 바퀴자리는 벌써 묻혀버려 생눈길을 만들어 놓았다.

최중선반장은 고개를 잔뜩 수그리고 발등을 묻는 눈길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다. 산줄기마냥 쌓아올린 그 많은 막돌과 토랑, 장석을 입힌 수천수만 개의 화강석은 눈에 묻혀 알아볼 수 없으나 최중선은 매걸음마다 그 구간에 깃든 자기들의 땀과 정성, 작업반원들이 창조해낸 하찮은 일화들마저 또렷이 떠오르곤 했다.

이제 열발자국만 더 가면 약간한 곡선구간이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최중선은 종합기업소 림기사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반장은 담배를 한대 피워물면서 그때 기사장과 직장장이 깔고 앉았던 ब्ल록을 찾아보았다. 그 ब्ल록도 자기가 앉았던 자리도 일매지게 눈이불속에 들어 보이지 않았으나 최중선은 마음속으로 더듬고 있었다.

...그날 저녁때였다. 직장장이 반장들을 모여놓고 작업총화를 하고 있었다.

이때 현장을 돌아본 종합기업소 림기사가 얼굴에 번들거리는 땀을 훔치면서 나타났다.

최중선은 벌써부터 총화가 늦어질까봐 속이 조마조마해 있는데 기사장이 나타나는 바람에 은근히 조바심이 났다. 기사장과 별로 상종해본 일은 없으나 기사장이 잔소리를 시작하는 날에는 퇴근배를 탈수 없게 된다.

오늘저녁에는 꼭 물으로 나가야 하는데...

남몰래 사귀는 처녀가 약속한 장소에 벌써 와서 기다릴 수도 있었다...

최중선은 종합기업소 기사장이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벌떡 일어났다.

《직장장동지, 다 끝났습니까? 퇴근배가 떠나자구 뽕뽕거리는데요.》

하자 직장장이 못마땅한 눈피로 최중선을 바라보면서 짜증섞인 소리를 했다.

《아니 반장동문 뭇때메 사흘이 멀다 하게 물에 들락거리요. 거참 근력두 좋소.》

이때 옆에 앉았던 림기사가 등글고 너부죽한 얼굴에 웃음을 담고 말했다.

《새살림을 시작한게 아니요?》

직장장이 코웃음을 쳤다.

《색시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복나들듯한다면 말두 안하겠수다.》

《하하...》 좌중에 웃음판이 벌어졌다.

《그럼 반장동문 아직 총각이요? 좌우간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겠지. 빨리 보내오. 퇴근배가 떠날 시간이 되었는데 갈 동무들은 다 가보시오.》

가족살림을 하는 반장 한사람이 부스럭거리며 일어서서 부두로 향했다.

기사장이 최중선을 향해 말했다.

《반장동무두 가보라구.》

최중선은 한옆으로 돌아앉으면서 대답했다.

《그만두겠습니다.》

왜서 그런지 때리는 시에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고 기사장에 대한 반감이 불쑥 솟아났던 것이다.

최중선은 속으로 궁얼거렸다.

(기술행정일군이란 다 갈애. 남의 감정을 알거나 뭔가...)

그로부터 총화는 좋지 한시간나마 걸렸으나 최중선은 말한마디 비치지 않았다.

작업장에 림기사와 직장장만이 남았을 때 직장장은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사장동무, 아까 그 동무말입니다. 최중선반장을 갈자구 그러니다.》

기사장은 깔끔한 눈으로 직장장을 지켜보더니 단통 이렇게 반문했다.

《왜? 능력이 없소?》

《아니, 실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하구 기러다보니 일이 거칠구 또 젊은 사람이 웬 고집이 그렇게 센지 통...》

《그만하십시오. 고집을 너무 한쪽눈으로만 보지 마오. 자기 사업에 대한 확신일수도 있잖소. 결함은 고쳐줘야지요. 직장장동무두 이제 늙었수다레.》

기사장은 두말 못하게 했다.

이런일이 있는줄도 모르고 총화가 끝나자 곧장 합숙호실에 돌아온 최중선은 편지를 쓰려다가 그만 두고 바다가로 나갔다.

퇴근배가 떠난 부두에는 자그마한 전마선 두척이 파도에 부대끼며 떠있을뿐이었다.

최중선은 전마선을 보자 더욱 화가 끓어 올라 제 방뒤로 넘어가 온돌바닥처럼 따끈히 달아오른 장식 위에 활개를 뻗고 누웠다.

벌써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안타까움으로 끓어오르는 가슴을 달랠길 없는 최중선은 다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물에서 발돋움질하며 기다릴 처녀를 향해 소리치고싶었다.

...오늘 못가니 래일 이맘때 꼭 다시 만나 자고...

래일은 30 리 날바다를 헤어서라도 건너가리라고 최중선은 속다짐을 했다.

이때 머리우에서 들리는 귀에 익은 목소리에 최중선은 피곳 고개를 쳐들었다. 제방우에서 림기사장이 내려다보고있었다.

《아니, 반장동무, 거기서 뭘 혼자 쏙얼거리고있소?》

최중선은 벌떡 일어나 수수떡처럼 붉어지는 얼굴을 외로 틀었다. 그리고는 그자리에 움썅앉고 서있었다. 림기사장이 슬금슬금 다가왔다. 그는아무말없이 최중선의 어깨를 눌러앉혔다. 기사장은 자기도 옆에 나란히 앉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여보, 색시도 없는 사람이 뭘하러 물에 자꾸 나가면서그래?》

순간 최중선은 뱀이 꿈틀거리서 자기도 모르게 내쫓았다.

《색시는 매일 만나두 좋구 색시감은 매일 만나지 않아두 일없단말입니까? 답답해서 내 원.》

《뭘요? 하하하... 이 사람이 그럼?》

《그렇습니다. 반장은 련애두 못하는가요?》

최중선은 언제부터 직장장에게 하고싶던 불만을 부지불식간에 터쳐놓고말았다.

《여보, 섬과 룽지가 련애를 한단말이지. 그것두 괜찮소. 그렇다면 직장장한테 솔직히 털어놓아야지. 그러니까 별소리 다 듣잖아.》

최중선은 그 말에는 할 대꾸가 없었다.

최중선이 사귄 처녀란 간석지종합상점 공업품판매원인데 요즘에야 그의 아버지가 다름아닌 자기네 직장장이란것을 알았던것이다.

처녀가 한사코 아직은 부모들께 알리지 말자고 해서 서로 남몰래 만나 사랑을 속삭이었던것이다. 한참만에 림기사장은 정색해서 물었다.

《반장동무, 노저을줄 아오?》

최중선은 왕청같은 질문에 흥심없이 대답했다.

《예.》

《그럼 날 좀 도와주지 않겠소?》

최중선은 얼떠름한 기색으로 반문했다.

《제가 뭘.》

《긴급 참모회의가 있다는 전화가 와서 건너가야겠는데 전마선을 좀 부려주지 않겠소. 혼자서는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최중선은 이해할수 없다는듯 큰눈을 치켜뜨고 말했다.

《그럼 끝배가 잔뜩한데 한척 타고 들어가십시오. 기사장동지.》

하자 기사장은 대뜸 성내듯 말했다.

《뭘요? 한사람때문에 술한 기름을 없앤단말이요? 동문 불필요하게 배들이 통탕거리며 다니는게 보기 좋아? 싫으면 판두라구.》

《아닙니다. 기사장동지, 갑시다.》

《그럼 전마선에 가서 준비를 하라구. 내 직장장동무를 잠깐 만나고 오겠소.》

림기사장은 두말않고 총총히 사라졌다. 한식경이 지나 합숙쪽에서 두개의 화불방망이가 기발마냥 불꼬리를 나뭇기며 전마선으로 다가오고있었다.

림기사장과 직장장이었다. 직장장은 저으기 난감한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기사장동지, 배를 인차 준비하겠는데 타고가십시오.》

기사장은 상대방이 무안할 정도로 핀잔을 주었다.

《동무, 또 그 소리요? 그게 어디 동무 배요? 우리 기업소에서는 앞으로 배나 화물자동차, 프락트를 승용차처럼 타고다니는 일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을거요.》

직장장은 입을 꺾꺾 다시면서 돌아갔다. 말없이 화불방망이를 받아 배머리에 꽂았다.

전마선은 서서히 알섬을 떠나 파도를 헤가르며 미끄러져가기 시작했다.

최중선은 노젓는 팔에 힘을 주면서 물었다.

《기사장동지, 참모회의는 몇시부터 합니까?》

《아 그건 걱정 말구 노나 부지런히 저으라구.》

최중선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기사장을 바라보았다.

한참후 림기사장은 최중선의 손에서 노를 빼앗아 잡더니 익숙한 솜씨로 스적스적 노를 젓기 시작했다.

그는 느닷없이 말을 꺼냈다.

《그래 그 처녀가 누구요?》

《...》

최중선은 뜻밖의 질문에 당황해났다.

림기사장이 생산문제 아닌 다감한 세계의 문을 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림기사장은 사나이다운 웃음을 터치면서 다시금 물었다.

《비밀인가? 그래 한주일에 몇번씩이나 만나곤 했나?》

최중선은 그제사 림기사장이 사람을 놀리는것이 아니라 진정이란것을 깨달았다. 해서 그는 솔직히 대답했다.

《수, 금, 일 겨우 세번밖에 만나지 못합니다. 일에 지장준건 하나두 없습니다.》

《겨우 세번이라니? 하루 건너씩 만나구두 부족 하단말이요?》

기사장은 자못 놀라운 소리를 했다.

《매일 만나면 더 좋지요. 직장장동지만 아니면 사실 ...》

최중선은 말끝을 삼키면서 우물거렸다.

최중선은 다시 노를 받아쥐었다. 이번에는 저도 모르게 힘을 넣어 부지런히 젓기 시작했다.

기사장은 말없이 담배만 빨았다. 전마선이 룩지에 거의 닿을무렵 최중선은 이 기사장을 속이는것이 꼭 죄를 짓는것만 같아서 솔직하게 모든것을 털어놓았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기사장은 저으기 격정어린 소리를 했다.

《직장장동무 딸이란말이요? 거참 일이 간단치 않겠구만. 좌우간 동무네 둘이야 죽자살자 하겠지?》

《...》

《하하하, 그거면 돼. 어이구, 이거 벌써 다 왔군. 가만- 반장동문 합숙에 가겠소?》

《예.》

대답은 그렇게 했으나 전마선을 부두에 대기 바쁘게 최중선은 처녀와 약속한 장소로 향해갔다.

기사장은 천천히 마을로 걸어갔다. 참모회의는 애당초 없었던것이다. ...

세월이 퍼그나 흐른후에야 최중선은 그날밤의 《비상참모회의》와 때아닌 긴급항행에 대하여 아니, 림기사장이란 인간에 대하여 알게 되었던것이다.

그로부터 이틀후였다. 방금 발파연기가 가라앉기 시작한 채석장쪽으로 종합기업소 봉사선이 뿡-뿡기적을 울리며 다가왔다.

직장장은 다문 1 분이라도 작업시간을 때우는것이 아까와 마뜩잖은 눈으로 봉사선을 지켜보았다.

봉사선이 와닿자 뜻밖에도 직장장의 딸인 공업품 판매원처녀가 제일먼저 뛰어내리는것이였다.

한아름되는 돌을 들어 광차에 싣던 최중선은 사랑하는 그 처녀, 안선녀가 내리는바람에 허공에 처든 돌의 중량감도 다 잊고 한동안 넋을 잃고말았다.

한참후 최중선은 직장장의 고함소리에 깜짝 놀라 망작만한 돌을 쾅하고 광차안으로 굴러넣었다.

《아니, 본래 판매원은 어딜 가구 네가 이 섬에 왔냐?》

《우리 점장동무가 사업조직을 다시 했지요워, 이제부턴 제가 알섬담당이에요. 한주일에 두번씩은 꼭꼭 와요.》

《원 철딱서니라구야. 애비 직장에 네가 오면 어떡하나말이다.》

《뭐래요. 더 좋지요워. 우리 점장동무가 그걸 몰라서 사업조직을 그렇게 한줄 알아요. 상품가격이야 다 같은데 누가 오든 상관있어요.》

안선녀는 째뼉이 갖고온 물건들을 팔면서 주로는 최중선작업반에 자기 이름을 등록하고 종일 막 돌운반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고 따로 만나지조차 않았다.

최중선에게는 이따금 부딪친 처녀의 시선에서 류달리 불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가까이에서 처녀의 숨결을 느끼는것만으로도 만족했던것이다.

그로부터 두달후 마침내 때가 되어 그들의 약혼식이 거행되던 날 얼근히 취기가 오른 직장장은 림기사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사장동무, 당신이 그런 책략가인줄 내 미처 몰랐구려.》

기사장도 한마디 했다.

《여보, 직장장동무, 당신이 그런 청맹파닌줄 내 몰랐댔소. 생산실적만 보지 말고 사람들의 가슴속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붙이오.》

《접수하오.》

하고 그들은 유쾌하게 웃었다.

그날저녁 최중선은 언제인가 림기사장을 보고 기술행정일군들이란 사람의 심장을 볼줄 모르는 말하자면 사람과의 사업은 전혀 할줄 모르는 딱딱하고 메마른 인간들이라고 단언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얼마나 가슴아프게 느꼈는지 모른다. 림기사장은 결코 그런 인간이 아니였다. 최중선은 비단 자신의 문제에만 국한시켜놓고 그렇게 평가하는것이 아니였다. ...

이 제방우에도 림기사장의 발자국은 수없이 찍혀있으려만 눈에 묻혀 아무것도 알아볼수 없었다. 그러나 최중선은 림기사장과 한생을 같이할것처럼, 종합기업소의 사무실 아니면 혹 어느 섬이나 현장에서 느닷없이 만날것처럼 생각되군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늘썩 해풍과 별에 타서 철색으로 된 그의 얼굴이 최중선을 마주향해 웃고있는듯하여 걸음을 멈추었다. 환각이었던것이다.

최중선은 생각에서 간신히 헤어나 다시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눈은 그냥 평평 내렸다. 강산을 뒤덮은 이렇듯 엄청나게 많은 눈이건만 바스락소리 하나 없이 내리

고 또 내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의 세계를 신비하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배수문이 가까워지자 최중선은 절로 정화되고 숨 업해지는 마음을 안고 배수문입구로 다가갔다. 배수문은 말없이 닫혀있고 둥그런 손잡이에는 눈꽃이 차분히 내려앉아 마치 은세공을 한 원단반처럼 보였다. 순간 배수문건설을 위한 가제방 때문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며 최중선의 눈굽은 축축히 젖어 올랐다.

최중선작업반이 책임지고 건설하던 배수문가제방이 터진것은 제작년 5월하순 때아닌 무더기비와 자그마한 해일이 있을 때였다. 기상예보를 듣고 내려온 립기사장은 있을수 있는 사고에 대처하여 상세한 대책을 세워주었고 배수문 가제방에까지 와서 주의사항을 세세히 주었었다. 그러나 아직 해일이나 태풍의 세례를 직접 당해보지 못한 제대군인반장 최중선은 상급의 지시를 심상히 대했었다. 드디어 해일이 들이닥치고 가제방 한쪽 귀가 터져나가면서 금시 콩크리트타입을 한 배수문 하나를 쓸어갔다. 이미 최중선의 장인으로 된 직장장은 사색이 되어 할 말을 찾지 못했고 최중선은 날 죽여주라고 합숙방에 나가누웠다.

그때 최중선은 립기사장이 그렇게 무서운 인간으로 변할줄을 도저히 상상도 못했었다.

《뭘, 그놈자식이 합숙방에 나가자빠져있어? - 어디?-어데 있어?》

립기사장은 호실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최중선의 목덜미를 들어일으켰다.

《야 이놈아, 말해봐라, 세멘트 20 톤에 자갈, 모래 100 톤을 그래 허궁 물에 떠나보내구두 누워있어? - 어- 분하구나. 기술부족으로 이런 참사가 빚어졌다면 말두 안하겠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두눈 뜨고 보면서 팔짱끼고있는게 그래 기술부족때문인가? 아 - 이런 무책임한자들을 모두 그저... 최중선 이놈아, 이래놓고도 무사할것 같으냐?...》

기사장은 최중선뿐만아니라 시공에서 일부 나타나고있는 무책임한 현상에 대해서 절규했었다.

최중선의 머리우에 당장 벼락이 떨어질것만 같았다. 반장 최중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것이였다.

사람들은 해일의 흔적과 함께 최중선의 피치못할 책임추궁에 대한 위구를 안고 무거운 저기압속에 있었다. 그날 직장장의 사무실과 최중선작업반원들의 호실에는 밤새껏 불이 꺼질줄 몰랐다.

이튿날아침이였다. 갈매기들이 유난히 울어대며 부산을 피웠다. 직장장이 수복이 넘어나는 재털이에 또다시 풍초를 던지고 쓴입맛을 다시는데 갑자기 전화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밤새 생각에 지친 직장장은 시들히 전화를 받았다.

뜻밖에도 립기사장이였다. 직장장은 머리속이 뻥하여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누구요? -최중선이를?... 어디로요?... 지금 당장에말입니까? 예...》

직장장은 대답은 했으나 영문을 알수 없어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최중선반장을 책임자로 하여 한개 작업조를 알섬에서 20 리 떨어진 《도요섬》 채석장으로 보내라는것이였다. 그것도 이제 당장, 그리고 가제방에서 류실된 돌의 두굽을 캐오기전에는 절대로 현장에 들여놓지 말라는것이였다.

직장장은 갈피를 잡을수 없어 전화기를 최중선에 게 넘겨주었다.

《...동무가 범한 과오를 동무자신이 씻소.》

최중선은 침을 꿀꺽 삼키고 일언반구도 않았다.

《왜 대답이 없는가. 아직두 정신을 못차리구 자빠진 황소처럼 눈만 떼룩거리구있어?...》

《그보담 더한곳이라두 가겠수다. 허지만... 내가 무슨 얼굴로 작업조를 책임진단말이우. 차라리...》

최중선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기사장의 추상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무엇이어찌구어째. 이 덜된놈의 자식, 백번 넘어졌다가두 다시 일어나야지 중도에서 꺼꾸러져? 그전날 처녀 만나려던 일은 오늘 못가면 래일 가도 될는지는 모르지만 조국땅을 넓혀가는 일은 순간도 지체할수 없단말이다.》

최중선은 그 즉시 작업반원들을 데리고 《도요섬》으로 향했다.

그날 립기사장이 최중선에게 올려멘것은 과오를 범한 덜통한 젊은 제대군인반장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사소한 실수도 없이 일해나가도록 하자는 속심이였었다. 그리고 대중의 의견에 점점 귀가 멀어지는 최중선의 독단적인 경향도 미리 바로잡아주기 위해서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때 립기사장이 종합기업소에 올라가보니 정말로 배수문가제방 사고에 대한 책벌문제가 제기되고있었다. 기사장은 그 결음으로 당위원회를 찾아갔다. 그는 당비서앞에서 무겁게 입을 열었다.

《비서동무!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배수문건설장에 내려가 있으면서도 책임적으로 일하지 않아 생긴 사고이니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하는 말이요?》

《예, 이런 책임을 지지 않을바에는 일군들이 도대체 아래에 대려갈 필요가 없지요...》

이 엄중한 사고앞에서 립기사장도 남들처럼 도덕적책임만 지고 최중선이나 직장장을 처벌하는데 동의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립기사장은 어떤 경우든 책임은 지휘관이 져야 한다는 그것을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삼았다. 누구나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는 생각한다. 그러나 남의 운명을 자기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길란 쉽지 않을것이였다.

그후 당비서는 늘 일꾼들에게 모두 립기사장처럼 자신의 낫을 내는곳이 아니라 가슴을 내대고 책임지는곳에서 있어야 한다고 말하곤하였다. …

깊은 사색에 잠긴 최중선반장은 배수문을 또 한 바퀴 돌아보고 종합기업소가 자리잡고있는 마을로 향했다. 눈은 여전히 기승스럽게 내리고있었다. 간석지마을의 명절을 축하하듯 억만송이 꽃보라가 내리는것이였다. 최중선이 마을길에 들어 설무렵 앞에서 움썽움썽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모자도 안쓰고 덧옷도 없이 그냥 내리는 눈을 맞아 마치도 눈사람같았다. 앞에서도 인기척을 느낀듯 몸을 돌린다.

최중선은 눈이 커지며 발목까지 빠지는 눈속을 뛰어갔다.

《비서동지 !》

그는 종합기업소 초급당비서였다. 허리가 좀 더 구부해진것 같은 중년의 비서는 술진 눈섭을 한번 꿈틀 하였다. 그바람에 눈섭우에서 눈덩이가 푸실 푸실 흩어져내린다.

《동무도 걸었구만… 이 제방길을…》

어쩐지 그의 목소리는 갈린듯싶었다. 오늘따라 무슨 시름겨운 일이라도 있는지 비서의 얼굴은 펴늘어보였다. 한순간이 지나자 비서는 저으기 밝은 얼굴을 해보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난 첨엔 웬 백곰이 나타났는가했구만.》

《비서동지두…》

《그래… 허허, 가만 내 방으로 먼저 가시오.》

비서방에 들어서자 최중선은 돌아서서 덧저고리를 벗고 머리우의 눈을 털었다.

비서는 의자를 권했다.

《그 생눈길을 걸어오다니… 하긴 동무네 첫 배스를 탔던 사람들도 도중에서 내려 걸어왔더구만.》

《예?...차가 고장이라두…》

최중선은 의자에 앉으려다 엉거주춤 다시 일어섰다.

《아니… 차는 정상이요. 그 동무들 하는 말이 어쩐지 걷고싶었다누만.》

비서는 웬일인지 눈을 습벅이며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동안이 지나서 다시 얼굴을 돌린 비서는 묻는듯한 시신을 최중선에게 향했다.

《그래… 왜서 눈길을 걸었소.》

그만 최중선은 어머니앞에 선 아들처럼 자기의 마음속에서 내려가지 않는 그 사연을 낱낱이 이야기하고말았다.

《음-》

비서는 이윽도록 최중선을 주시하다가 천천히 일어서서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혼자소리로 웅얼거렸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도 깨끗한가?... 저 눈처럼…》

비서의 마음이 기쁜것은 최중선을 비롯한 간석지 건설자들이 수십리 눈길을 헤쳐걸으며 성실한 인간을 추억하고 그에 대한 의리를 새겨온 그것이였다. 걸음걸음 그들은 립기사장을 생각하면서 왔을테지… 방금까지 비서자신이 립기사장을 생각하며 눈 내리는 제방길을 걷지 않았던가. 그러니 간석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있었던것이 다. 이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저 최중선의 뒤를 따라 알섬직장의 남은 사람들도 지금쯤 동구앞에 들어섰을수 있다. 래일 혼장수 여식에 참가할 사람들은 물론 모든 간석지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과라면 30 만정보가 아니라 50 만정보의 땅을 얼마든지 얻어낼수 있을것이였다.

립기사장의 기사장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공적은 수십수백리의 제방만 건설한것이 아니라 최중선과 같은 인간들을 키워낸것이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서로의 운명에 대해서 책임질줄 아는 진실한 인간들을…

비서는 기쁜 나머지 물기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동무! 그래 동무생각에는 립기사장을 어떻게 표창했으면 좋겠소? 그는 이미 영웅칭호를 받은 사람이요… 무엇이 더 필요한지 말해보우.》

최중선은 그제사 립기사장에 대한 미뵤 감정만을 안고 달려온 자신을 돌이켜보기 시작했다.

이윽해서 비서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방금 눈내리는 제방길을 건다가 왔소. 립기사장이랑 많은 동무들의 발자욱을 찾아볼가해서 말이요. 모든것이 눈에 묻혀버렸소… 그러니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긴 그들의 자취는 지워지지 않을것이요. 절대로… 왜냐 하면 그 자취에 그들의 티없이 맑은 충실성이 아로새겨져있기때문이요.》

최중선은 불시에 목구멍으로 불뭉치같은것이 치밀어올라 알알해났다. 눈가에는 저도 모르게 그렇그렇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래일 우리 참다운 인간들에 대한 참다운 표창을 합시다. 동무가 첫 토론을 하오. 토론에서 립기사장이 어떤 인간인가를 말해주오! 아마 그것은 하나의 일화가 되어 전설처럼 이 간석지마을에 전해질거요. 후대들에게도… 그는 한생을 감탕판에서 살았소.》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받들구… 하루와 같이… 사람들이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며 추억하는것- 이보다 더 높은 표창이 어데 있겠소…》

《!!…》

최중선은 그제사 눈길을 헤치고 걸어온 수십리길이 헛수고가 아니였음을 가슴뿌듯이 느끼기 시작했다.

땅과 청춘

-한 간석지건설자가 부른 노래-

박 철

땅을 빼앗겨
가슴치던 원통함을
내 겪어보지도 못했노라
후더운 눈물 흘리며
땅을 분여받은 감격도 없노라

땅이란 그저
늘 딛고 사는것
내 하늘다움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것으로 알던것

허나 내 오늘
그 땅을 안아올리노라
집 떠나 5년세월
그 땅을 위해
늘 땀물에, 해풍에 젖어사노라

쉽게 얻을수 없노라
한치의 땅도
덜쳐드는 얼음장 밀어내며
하루 다섯배 돌이 아니라
의지를 실어 띄우던 나날이여

그날은 언제
3년세월 쌓올린 제방
그 한끝이 몽청 태풍에 떠내려가던...

아, 그날에 가슴치며
땅의 귀중함을 알았던가

마감막이를 끝낸 새벽
끝간데없이 드러난 땅
그 무연한 땅을 달리며 내 소리쳤노라
-땅아! 너는
내 기쁨, 내 사랑

이제 그 살불이같은 땅
수령님 사랑이 바다같이 실린
저 넓으나넓은 땅우에
금나락 무겁게 실어
인민앞에 내 손으로 드리려니

간석지
수수천년 바다밑에서 잠자던 땅을
청춘의 어깨에 떠메고
조국의 미래와 마주 웃는
나는 새땅의 주인!

아아, 나는 받아안았노라
땅때문에 있는 그 모든 기쁨도 행복도
다름아닌 그 땅과 함께
20대 애젊은 나이에
가꾸어 빛내일 조국으로 받아안았노라

파도소리

황승명

해풍에 펄럭이는 천막에
자리를 펴고
내 이렇게 잠못든 밤이
몇밤이나 되던가

나를 부르는듯
속삭이는듯
하많은 사연을 안고
끝없이 설레이는 파도소리...

짜디짠 바다물의
귀한 맛을 알라고
기슭을 치느냐
이 가슴에 젖어들며

심장벽을 두드리느냐

그 소리 가려들지 못한다면
내 어찌 당의 부름 받들고
소금밭건설에 떨쳐나선
돌격대원이라 하라

오늘도 해종일
제방을 쌓으며
파도를 이겨낸 이 몸엔
하얀 소금꽃이 피었구나

제집 장맛을 보듯
그 농도를 가늠하며

뜰우에 피어나던
단발머리 처녀의 웃음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꽃잎을 이야기가 깃들어있는듯
행복의 웃음꽃을 피우며
번영하는 조국의
보배로운 소금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억만 재부를 안고
어서 받으라고
소리치며 달려오는 파도소리...

이 밤도 잠 못드는 나를
은근히 불러내며
속삭이는듯
소금밭이 완공될 그날을 재촉하네

짚물에 정들어

손승래

지난날에야 그대로 눈물이였지
눈뿌리 모자라게 펼쳐진 소금밭
더미더미 저 흰 무지는-

봄이면 이른봄 눈적임물에 내몰리워
맨발로 염관을 공그었고
여름이면 숯불처럼 이글거리는 피약벌아래서
해종일 수차를 밟으며
허허 뚫은 벌을 땀방울로 적시였거니

허나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았던들
그렇게는 가슴아프지 않았으리
고달픈 운명을 하소하듯
뼈격이는 로라의 멍에를 끌며
소처럼 부림을 당하던 《염부군》에게
누가 선뜻 딸자식을 맡기자고 했던가

지친 몸 의지할 거처도 없이
박정한 세상을 저주하며
독한 술로 만사를 잊으려던곳
귀설은 억양, 뒤섞인 사투리들에 멧힌
울분과 설움에 마르고 타
풀조차 아니 나던 염전촌

말하라, 그 옛날 사나이들의 교역장이여
언제부터 너는
우리 처녀들의 정다운 일터로 되었던가
날리는 꽃수건에 하늘빛 장화
예쁘고 고운 손으로 스위치를 넣으며
마치 꽃을 가꾸는 원예사들처럼

아, 잊지 못할 그날, 해방직후의 그날
몸소 《염부군》을 찾아주신
아버이수령님
손수 곰베를 드시고 짚물에 들어서실제
두렁우의 신발에 돌아있던 허연 소금밭이여

금처럼 귀중하여 소금이라 이른다고
서슬에 덴 험한 손들을 잡아주시며
친히 부어주신 술잔에 넘치던 그 은정
염전거리 어디엔들 아니 미친곳 있었던가

고삭은 지붕아래 한숨소리만 높던
빈민촌거리엔
충충 눈부신 창가마다 꽃들이 반겨웃고
수도마다 정겨운 신덕샘물소리
해풍속의 염기마저 깨끗이 가져주는듯

아득히 소금밭 한끝은 어데인가
부는 바람조차 심술궂은 이 아침
비록 날씨는 변덕스러워도
누구는 염도계의 눈금을 가늠하고
누구는 가벼이 로라차를 운전하며
처녀들의 청고운 노래소리
그대로 결정지마다 꽃으로 피여라

수령님 오래도록 발을 잠그신채 못떠나신
그날의 짚물이 소중한
더없이 정들어
꿈도 희망도 하얗게 떨기지는
이 한순간에 이어놓고 사는
처녀들의 가룩한 마음이여

실어가라, 차판가득 엇갈리는 렬차여!
더욱 활짝 피어나라 꽃중의 꽃이여!
벌 가득 하늘 가득
너의 고유한 향기를 그윽히 풍기며
그 옛날 사나이들의 눈물이던것
아, 아버지수령님의 고마운 은덕속에서
오늘은 더미더미 나라의 기쁨이 되었구나
우리 처녀들의 끝없는 사랑이 되었구나

우리는 웃으며 헤어졌다

백의선

우리는 웃으며 헤어졌다
어머니의 자장가 깃든 고향집
어린날의 즐겁던 강변 모래볼도
다감한 청춘의 첫 시절에
벗들과 걸어보던 불밝은 거리도

앞에는 줄편한 간석지, 멀리는 수평선...
정든 보금자리 떠나왔어도
비바람 안고갈 저 투쟁의 길너머
아름다운 미래여
우리는 너와 상봉하련다

영예로운 개척자의 길우에
거치른 감탕밭은
미래여!
우리가 다 밟고 가련다
우리의 마음이 받든 화강석제방길로
금나락을 실은 너의 고무바퀴자국들이
억만년을 두고 이어지도록

헤쳐갈 날바다우에
울부짖는 폭풍은
미래여
우리 가슴에 다 안고 가련다
우리 꿈이 비긴 새거리 창문들에
행복에 겨운 너의 웃음꽃이
사철 아름답게 피어나라고

위훈의 80 년대에 불태운
숫된 청춘의 꿈과
불타는 젊음의 한 시절은
새땅의 력사에 남아
영원히 미래와 함께 있으려니

리별의 찢릿한 그 순간을
크나큰 상봉의 기쁨으로 바꿔 안고
집도
고향도
정들은 모든것을
우리는 웃으며 작별하였다

저녁노을은 바다우에 붉은데

김휘조

떠들썩 장석을 입혀가는 동무들아
조용하자, 이 시각만은
우리 반장동무 작업일지를 쓴다
물결도 은구슬 뿌리며 철썩이는
바다가 돌바위를 깔고 앉아

방금 감탕길을 걸어온
흙물 오른 바지가랭이 걸어올리고
또 하루 우리 쌓은 제방
또 하루 억척스레 입혀온 장석...
오늘의 작업일지를 쓴다

언제나 시간이 모자란다고
언제나 기증기에 먼저 오르더니
30 만정보 한구역을 우리가 맡았다고
거인처럼 제방우에 우뚝 서서
어서 오라 손저어 돌배들을 부르더니

쓰고있다, 일렁이는 바다물결우에
타는듯 저녁노을 붉은데
또 하루 파도에 한가슴 내대고
우리 안아낸 기름진 땅을

시련도 어려움도 웃음으로 넘으며
비바람 사나와도 변함없이 바쳐가는
우리의 성실한 마음을 적어간다
뜨락또르 흥겨운 고동소리를 실어
굽이굽이 출렁일 관계수 물소리에 실어

한자한자 적어가는 보람찬 시각이어
이제 여기 새땅이 펼쳐져
해마다 만풍의 날가리 우뚝 솟고
조국은 더 높이
락원의 봉우리에 올라서고

아, 몰라보게 달라진 이 땅에, 눈부신 이 땅에
생활의 벅찬 노래가 아침저녁 우리를 찾아올 때
동무들아 이 시각을 생각하자
그 노래는 바로 이렇게 씌여졌음을

아, 저녁노을은 바다우에 붉은데
우리 작업반장동무
지금 그 노래를 쓰고있다
간석지건설자 우리의
또 하루 자랑찬 작업일지를

어서 가자 저 언덕으로

권강일 그림 이수길

산뜻한 하늘색 봄양복은 호리호리한 몸매에 잘 어울렸다. 일찌기 유치원으로 나온 교양원 장미는 복도에 걸린 거울앞에서 옷매무시를 비쳐보고 흐뭇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다.

창문으로 흘러드는 아침햇빛에 더 아늑해진 교실은 또 하루 즐거운 날이 왔다고 반겨주는듯싶어 장미의 마음은 밝아졌다. 팔소매를 살짝 걷어붙이고 물걸레를 놓던 장미는 굽높은 구두를 모두고 《자랑판》앞에 딱 멈춰섰다.

(박세철어린이의 글을 누가 붙였을까.)

정말 모를 일이었다. 어제저녁 아이들이 쓴 글중에서 잘된것을 골라 붙이면서 세철이것은 글획이 굵지 못해 끝내 교탁에 두고갔는데 밤사이에 누가 붙인것이다.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서며 인사를 했다. 그중에는 세철이도 끼여있었다. 그는 선생의 눈길을 따라 《자랑판》을 보더니 자기가 쓴 글도 있다고 좋아라 밖으로 뛰어나갔다.

장미는 어이가 없었다. 저렇게 천진한 모습만 보아도 세철이가 붙이지 않았다는것은 명백하다. 아이들이란 거짓을 마음속에 숨겨둘줄 모른다. 그럼 누가 했을까. 장미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뻔수도 없어 그대로 다소곳이 물려섰다. 장미는 잠시후 치마끝에 달린 고운 황동색의 자그마한 종을 지고 손뽕금을 울리며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체조도 하고 교실에 들어와 우리 말공부도 끝냈다.

봄맞이 가자요. 어서 가자요. 손에 손을 맞잡고 들로 가자요. 장미는 어린이들을 두줄로 세우고 들판으로 나왔다.

관찰시간이다. 하얀 송이구름사이로 엇갈리는 햇빛은 푸른 창공에 무늬를 짜고 파릇파릇 봄웃차림을 한 벌은 밝은 웃음 안고 아이들을 맞아준다.

작은 트랙에서 들로, 대자연의 넓은 품으로 달려 나온 아이들의 가슴은 한껏 부풀어오른다. 장미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벌로 나오는 때가 제일 즐거웠다.

얼마나 좋아. 약동하는 봄의 숨결인듯 벌가득 울리는 트랙포르 동음소리, 나풀나풀 리봉이 날리는 아이들의 머리우에선 지중지중 노래하는 저 종다리, 연무어진 먼 산기슭, 띠엮띠엮 하얀 구름이 한뭉치 내려앉은듯 동쪽에는 방울염소들이 파랗게 돌아난 햇순을 뜯는데 아지랑이 굵실르는 벌끝에선 트랙포르가 반짝이는 흙밭을 뒤에 달고 이랑이랑 봄의 서정시를 쓰며 가고간다. 회색한 버짚방풍나래를 둘러친 모판에선 관리공처녀들이 빨강고 파란 머리수건에 봄바람을 달고 종종걸음을 놓는다.

장미는 관찰시간의 의미를 잘 알고있었다. 지금도 진달래를 보면 어릴 때 본 그 연연한 꽃잎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끝에 자그마한 방울이 달린 꽃술의 속삭임소리가 들려온다. 시내물을 보아도 조잘조잘 그 시절의 노래가 낮은양 울려온다. 아마도 생각이 복잡해지고 대하는것이 많아진 어른때보다 천진한 동요시절에는 보는것, 듣는것 모든것이 그 순수한 색깔로, 이야기로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때문 이리라.

자, 이 봄의 노래를 듣자요. 고향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새기며 우리 마을, 한없이 소중한 우리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자요. 아직은 야들야들한 어린아이여도 자라고자라 크나큰 봄에 이바지하는 저 새싹들처럼 우리도 어서어서 몸과 마음을 키워가자요.

장미는 다박머리를 팔락이며 뒤에서 걷고있는 박세철어린이의 손을 잡고 갔다. 세철이의 얼굴에 티없이 밝은 웃음이 비낀것이 기뻐다.

...지난가을 온 마을이 쉬던 어느날 세철이는 제포래들을 휘둥해가지고 농장탈곡장에 들어가 탈곡하는 놀음을 하다가 두번째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다. 인차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여 손가락끝에 이젠

발간 새살이 돋아났지만 손톱이 이그러져 볼품없이 되었다. 이제 좀더 있느라하면 상처가 아물고 제대로 되련만 당장은 글쓰기가 불편했다. 엄지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으로 연필을 쥐고 쓰려니 가로획, 내리획 쓰는것마다 삐뚤어졌다. 요즈음 장미는 세철이가 글을 쓸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는것을 보고 아파서 그러는가고 걱정스레 묻곤하였다.

세철이는 그때마다 머리를 살래살래 짓기만 하였다. 장미는 어제도 세철이가 빈 교실에 혼자앉아 자기 손가락에 감은 붕대를 풀고 멍하니 들여다보는것을 눈에 띄어보았다. 그래서 장미는 세철의 마음에 그늘이 질세라 우리 말 시간에는 자주 그의 곁으로 가서 손을 덧잡고 써보기도 하면서 각별히 마음을 기울이게 된것이다. 어제저녁에도 《자랑판》에 글을 붙이면서 세철이것만은 다시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모범글로 되지는 못해 끝내 두고갔는데 누가 붙여놓은것이다. 세철이의 손목을 잡고가는 장미는 고개를 가우뚱이며 다시 생각해도 그 의문을 풀길 없었다.

아이들은 목청을 다해 노래하며 방축길을 걸어간다.

꽃봉오리 방실 피어나라고
따사로운 품속에 안아주시는

흘러가는 수로의 맑은 물에도 아이들의 대렬이 걸어간다. 물이 올라 뽕얇게 부푼 사과나무들이 줄지어선 과수원옆을 지나 주단처럼 금잔디가 깔린 굽인돌이를 돌아섰을 때 장미는 최쪽에 앉아있는 두사람을 보았다. 물날은 보위색작업복, 휘우듬한 어깨 뒤모습을 보고도 한사람은 리당비서고 그의 곁에 앉은이는 언제나 결결한 목소리로 마을을 들썩하게 하는 키 큰 과수반장이었다.

《아저씨 .》

스무명도 нама되는 아이들이 코르르 달려가 리당비서의 어깨며 목에 매달렸다. 갑자기 당하는 이 《봉변》에 과수반장은 덴겁을 한듯 물러나고 장미는 아이들을 말리느라 찢찢맸다. 그래도 좋은지 리당비서는 아이들을 모두어 끌어안으며 쓸어주었다.

아이들이 이렇게 된데는 리당비서의 집이 유치원 담장을 함께 한 이웃이라는데도 있지만 리당비서가 자기들을 끔찍이 사랑해주는것을 알기때문이었다.

길을 가다가도 아이들을 보면 그저는 못가 바지를 취울려주고 우는 아이를 달래며 눈물을 닦아주기도 했다. 유치원에 들어서 마당에 주련이 세워놓은 유희시설도 보아주고 염소를 몇마리 기르도록 하여 염소젖을 매일 먹도록 하고는 간식때면 종종 들려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리당비서였다.

장미는 아이들이 너무 버릇없이 노는것 같아 미안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이런 마음은 아랑곳 없었다. 누구보다 장난이 세찬 길웅이가 뒤에서 두손으로 리당비서의 눈을 가렸다.

《누군지 알아맞혀봐요!》

아이들은 빙 둘러서며 왁작 떠들었다. 장미는 아이들의 무례한짓에 마음이 불안해지면서도 어느덧 동심이 되어 희고 동그스름한 얼굴에 웃음을 담고 바라보았다.

《가만 가만...》

리당비서는 눈을 가린 길웅이의 포동포동한 손을 만져도 보고 한쪽가다리가 흘러내린 멜빵바지를 살펴보더니 《길웅이 이놈!》 하고 가리웠던 손을 풀어내렸다.

《야!》

아이들은 환성을 올리며 손바닥을 짜락짜락 쳤다. 장미는 리당비서가 길웅이의 멜빵바지를 만져보고 알아맞혔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도틀도틀한 골덴바지는 길웅이가 드문드문 입고다니는 옷이었던것이다. 이 비결을 다 알고 방긋 웃는 장미를 보며 리당비서는 눈을 끔찍했다.

《야, 정말 잘 맞히는데.》

《우리들을 다 맞힐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라 떠들며 천진한 눈에 호기심이 가득하여 묻자 리당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담했다.

《암, 맞히구말구. 》

《그럼 눈 감으세요.》

이렇게 되어 비서는 다시 별에 그을린 검스레한 얼굴에 웃음을 담고 눈을 감았다.

감쪽한 옥실이가 말도 없이 뒤등에 다가붙어 조감지같은 손으로 리당비서의 눈을 겨우 감쌌다.

이번에는 어떻게 맞히실 작정인가.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옥실이를 리당비서는 잘 알지만 무슨 표적이 있는것도 아니지 않는가. 장미는 호기심이 동해서 바라보았다. 과수반장도 입을 벌린채 눈길을 떼지 못한다.

리당비서의 손이 옥실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렇지. 너자애라는것은 알으시겠지. 그렇지만 절반나마 옥실이포래인데 어떻게 안담.

리당비서는 잠시 생각하는듯싶더니 《옳지, 너의 어머니는 3 작업반에서 일하시지?》 하고 말했다.

《해해, 3 작업반이래. 우리 어머니 1 작업반에서 일하는데.》

옥실이는 작업반도 제대로 모른다고 캐득캐득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리당비서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넌 누군가 하니 정-옥-실!》

아이들은 환성을 올리고 옥실이는 신통한듯 고개 갸우뚱 물러났다.

장미는 리당비서의 기지에 탄복하여 그만 웃음을 터쳤다. 어린이들이 사는 이 마을이 몇작업반이란 걸 모를리 없건만 아이의 목소리라도 들어보려고 우정 작업반을 틀리게 대어 말을 시킨것인데 천진한 아이들이 그 꾀에 속은것이다. 그래서 결국 유치원에서도 제일 목소리가 맑고 켹켹한 옥실이를 알아낸것이다.

리당비서는 또다시 과수반장과 장미에게 눈을 쏘프리며 끄적했다. 이 《꾀》를 눈감아달라는것이다.

장미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뜻밖에 리당비서를 만나 잘 놀았다고 생각한 장미는 아이들을 불러세우려고 하였다. 일이 바쁜 리당비서를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될것이다. 그런데 이때 장미의 생각은 아랑곳없이 박세철어린이가 감쪽같이 다가서며 리당비서의 눈을 또 가렸다. 장미는 너무 지나친것 같아 세철이를 말리려고 하며 리당비서의 얼굴을 바라보니 검실한 그의 눈엔 여전히 웃음이 어렸다. 그래 장미는 마음을 놓고 물러났다.

장미는 리당비서의 손을 요술사의 신비한 손처럼 바라보았다. 큰 손은 눈을 감싼 작은 손을 조심조심 만진다. 쓰다듬는다. 순간... 장미의 가슴은 흠뻑했다. 리당비서의 손이 세철이의 바로 그두번째 손가락, 조금 삐뚤어질사한 손톱없는 그 손가락에서 머문것이다.

알아맞혔구나, 대뜸! 며칠전에도 글쓰기시간에 문득 들렸던 리당비서는 세철이가 제대로 글자를 못쓰는것을 보며 얼마나 그 손을 걱정했던가. 새살이 나오는데는 찹쌀이 좋다고 창고장에게 말하여 따로 세철이에게 찹쌀밥을 해주게 한것도 리당비서가 아닌가. 그러나 그의 손이 세철이의 손가락에서 머는것은 잠깐, 마디 굵은 손은 천천히 물러났다. 세철이의 팔로 잔등으로 어깨로 옮겨간다.

《가만있자, 이녀석은 키가 큰걸 보니 만식이구나.》

《야, 틀렸네 틀렸네.》

아이들은 리당비서가 맞히지 못하는바람에 좋아라 떠들었다.

장미는 가슴이 후터워왔다. 이번에야말로 쉽게도 알수 있는 세철이를 맞히지 못한것이다. 아니 다른 이름을 일부러 댄것이다. 그들이 질가보아, 이 줄거울 때에 상처자리가 어린 가슴에 새겨질가보아...

리당비서는 다시 더듬는다. 세철이는 잔뜩 긴장해서 한발작 뒤로 물러서며 눈을 가린 두손에 힘을 준다.

《그럼 창일이 ...》

리당비서가 또 틀렸다고 아이들은 저마다 법석 떠든다.

리당비서는 세번만에야 《이놈》하고 세철이의 이름을 대며 뒤로 손을 가져가 그를 업은채 일어섰다. 등에 업힌 세철이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밝은 웃음이 피었다.

머리위로 세철이를 받들어올리는 저 굵은 팔뚝, 대할수록 아버지처럼 정이 가는 저 모습... 장미는 문득 마을사람들이 말하듯이 《아바이》라고 속으로 외워보았다. 밑에 흐르는 인정세계를 다는 알길 없는 과수반장은 그저 사람좋은 얼굴에 웃음을 담고 리당비서를 기가 찬 눈으로 바라본다.

이때 장미에게는 문득 생각키우는것이 있었다.
(옳지, 그였구나.)

장미는 응석을 부리듯 리당비서의 손을 잡아끌며
속삭이듯 말했다.

《비서동지가 어제 붙였지요, 세철이 글을?》

《응?》

리당비서는 못된짓을 하다가 들킨 장난군처럼 흠
칫 놀라는듯싶더니 꺾꺾 소리내여 웃었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리당비서는 세철이를 취율리며 용서를 빌었다.

《비서동지두 참.》

장미는 성난채 새초롬히 눈을 흘겼지만 속에서
뜨거운것이 뭉쳐올랐다.

참으로 평범하고도 친근한 사람, 저 넓은 가슴은
또 얼마나 깊은가. 이름할수 없는 기쁨이, 한껏 소
리치고싶은 걱정이 가슴에 차올랐다.

아, 하늘은 얼마나 맑고 푸르른가. 이 봄의 해빛
은 또 얼마나 고운가.

아이들아, 어서 가자 구름피는 저 언덕으로,

신이 난 세철이가 큰 목청으로 선창을 떴었다.

꽃봉오리 방실 피어나라고

따사로운 품속에 안아주시는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

...

아이들은 노래도 높이 활개치며 걸어간다. 리당
비서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준다.

속담풀이

수양과 관련된 속담

· 보석도 닦아야 빛을 낸다

사람은 끊임없이 수양하고 단련해야 사람다운
일을 할수 있다는것을 이르는 말.

· 사람은 열번 된다

사람은 자라나는 과정에 자주 변하여 완성된다
는것을 이르는 말.

·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

사람이 아량있고 품성이 좋아야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 빈 수레가 더 소리난다

지식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떠들기는 더한다
는것을 비웃어이르는 말.

조급성을 나타내는 속담

·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

일을 조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틀어지고
실패하게 된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물보기전에 바지부터 벗는다

조급한 나머지 순서를 가리지 못하고 헤덤비는
행동을 비겨이르는 말.

· 보리밭만 지나가도 주정한다

일에 부닥치기전부터 덤비는 꼴을 비웃어
이르는 말.

· 불뚝성이 살인한다

사람이란 불끈 성이 나면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수습하지 못할 큰 잘못을 저지룰수
있다는것을 이르는 말.

· 가랑이에 불붙기

①성미가 조급하고 도량이 좁아서 겉핥기하면

발끈하고 성을 내기 잘함을 이르는 말.

②어떤 주장에 호응하거나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것이 몹시 빠른 모양을 비겨이르는 말.

내 인사를 받아다오

김시권

내 인사를 받아다오, 벗들이여
그대들의 손을 잡고싶어왔노라
그 깊고깊은 지하막장에서
검은금을 캐내는 수고많은 손을

내 얼마나 벗들이 보고싶었으랴
이 머리 흰 시인의 손을 잡아
안주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
그 대원으로 나를 받아주었으니

그 고마운 마음 정다운 얼굴들
혈육처럼 그리워 꿈속에도 그렸나니
고향집처럼 내 마음 오고싶어
나의 소대로 이 몸은 달려왔노라

나를 대오에 받아주고
내 이름 정답게 불러준
다정한 벗들의 그 목소리
내 순간인들 듣지 않고 살수 있으랴

얼마나 보람찬가, 그대들과 함께
내 불타는 심장도 탄벽에 내대며
날마다 석탄을 캐여 조국을 받드는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나섰나니

아, 수령님과 지도자동지
그 높은 뜻을 받들어
이 몸도 젊은 병사때처럼
막장에서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리라

내 그대들의 믿음에 언제나
어깨 맞대고 숨결을 같이하며
내 틀어진 시가의 붓을
굴진기처럼 쥐고 탄벽을 돌진하리니

아, 내 뜨거운 심장을 받아다오, 벗들이여
나를 청춘탄부로 보람차게 살게 해준
이 영예 한생 빛내며
내 살리라, 영원히 그대들과 함께

내 뛰여들고싶구나

나의 손을 잡아다오
내 몸을 일으켜다오
벗들아, 어서-
나의 걸음을 이끌어다오

꿈결에도 달려오던
이 갱도의 막장이거니
내 굴진기를 쥐고
탄벽으로 돌진하고싶구나

그립던 그대들과
내 어깨를 맞대고
웃으며 떠들며 한껏 땀흘리며
검은금을 산악처럼 쌓고싶구나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부르시는 석탄전선에
이 한몸 내대어

위훈의 빛나는 자욱 새기고싶구나

돌격의 포화속을 내닫던
병사때의 그 걸음으로
탄가루의 먼지속을 헤치며
내 돌격전에 뛰여들리라

아, 피로 지킨
내 조국땅의 보화
오늘은 내 불타는 가슴으로
검은금을 안아 쌓고싶나니

나의 손과 나의 다리
나의 심장과 나의 땀
조국의 번영을 위해 바치지 못한다면
이 목숨 살아 무엇하랴

나를 말리지 말아다오

내 천 운전대에 젖은 땀 씻을새없이
석탄을 캐고캐내며
자랑높이 웃음을 터치고싶나니

나의 몸을 일으켜다오
나의 걸음을 이끌어다오
벗들아, 그대들과 함께
내 돌격대원이 된 영예를 다하리라!

탄부들에게 영예를

내가 들어서는 깊은 갱도길은
처음 보는 낯선 길이였다
캄캄한 막장으로 내려갈수록
유보도도 꽃도 새도 멀어져갔다

허나 탄부들 안전모등빛으로
나를 이끌어 기름진 탄맥을 찾아
랑만의 꿈을 나에게 속삭이며 갔다
하늘 한조각도 없는 더 깊은 땅속으로...

그들은 내 몸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자신들은 질퍽한 석탄무지를 밟으면서도
웃으며 노래가 여기에 있다고
암벽에 굴진기를 들이대거니

얼마나 자랑찬가, 그들의 마음을 안고
쇠물이 흐르고 비단이 무늬져흐르는

우리 생활의 모든 기쁨을
지하막장에서 온 가슴에 안고살거니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그들은 청춘도 꿈도 사랑도 한생도
석수와 탄가루에 온몸이 묻히면서도
나를 받들어 행복히 살게 하거니

내 안겨주고싶어라, 그 탄부들에게
내 한생 받아안은 크나큰 축복을
시인의 영예도 내 마음껏 향유한
저 꽃도 새도 락원의 모든 기쁨을

아, 우리 당이 영웅으로 품어주는 탄부들
내 심장으로 영예높이 찬미해도 모자라거니
내 몸이 백천이라면 이 갱속에서
검은금을 캐며 그들을 대신하고싶어라

언제나 내 마음은

고요히 사색을 기울이면
마음의 문턱 넘어
굴진기소리 들려오고
그대들의 숨결 흘러들어라

나의 심장이
그대들과 함께 고동치고
나의 굴귀 마디마디가
그대들 위훈의 넋을 안고 태어나고

어찌 그대들과 떨어지랴
운전대를 천 그대들처럼
소대의 진진하는 굴진기따라
나의 펜대도 함께 나가고

저 암벽을 파허무는 굴진기처럼
나의 시행은 육박하고
저 어마어마한 산더미같은 석탄산우에
나의 긍지높은 힘 솟거니

잠시인들 내 맥박
그대들의 박동없이 뗄수 있으랴
막장은 나의 노래
위훈으로 부르는 혁명의 격전장

우리 당을
한몸 바쳐 받드는
충성의 노래
그 격전장에서 가장 아름답게 울리나니

언제나 내 마음은
그대들 돌격의 발걸음속에 있노라
위훈 많은 막장과 솟아오르는 석탄산을
더 높이 받들어올리고싶어,

뛰어드노라, 내 붓은
굴진기가 되고 채탄기가 되어
그대들의 고동치는 숨결을 안고
돌격의 나팔로 높이 울리게

탄부의 차림새

벗들의 푸른 빛 탄부옷을
내 몸에도 입었다오
벗들의 그 안전모를
내 머리우에도 썼다오

벗들의 고무장화를
나의 발에도 신고
나의 발걸음 자랑높이 걷는다오
갱도입구에서 아침마다 가며...

아, 내 마음 언제나
그 탄부차림으로 기쁨 넘쳐 산다오
우리 시대의 옷차림에서
내 이처럼 좋고 긍지높은 차림새 몰라라

지난날 포화 뒤덮었던 조국땅에선
군복차림이 자랑높아
내 철갑모 쓰고
전선으로 군화자욱 남기며 갔건만

오늘은 우리 조국땅우에선
나에겐 이 정복입고
갱도길에 고무장화자욱 남기는 모습
가장 빛나게 돋보이나니

나는 부러워하지 않는다오
화려한 그 어떤 차림새 있다 해도
우리의 지도자동지 친히 보아주신
이 전사의 차림새 나는 좋나니

이 차림없이 우리 어떻게
값높은 위훈 세우랴
이 안전모, 고무장화로
자연을 정복하는 영예 빛나거니

그러기에 그대들의 그 푸른 정복
내 마음에 입고사는 긍지 높아라
이 차림새야말로 우리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빛나는 모습이어라

석탄과 서정시

누가 석탄에서
서정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였는가
꽃보다 아름다운 서정이
그 석탄에서 무진장 흘러나오거니

꽃은 이름다와도
시대의 혁명적서정 다는 없고

꽃은 향기로와도
우리 심장 열정으로 뛰게 할수 없나니

락원의 꽃도 웃음도 희망도 사랑도
석탄이여, 너에게서 피어나거니
너처럼 아름다운 서정의 시세계
이 세상에서 내 찾을수 없노라

진실한 사람들

나는 침상머리말에
석탄덩이를 놓고산다
나에게 열정의 힘을 주고 이 탄을 보내준
안주탄부들의 그 마음
내 순간인들 잊을수 없어

찾아온 나를 반겨
갱밖으로 달려나오며 손을 잡던
그 땀에 젖어 서격이던 옷자락
탄가루가 묻은 얼굴 씻을새없이
웃으며 얼싸안던 그 진실

얼마나 진실한 사람들인가
나의 소원대로 대오에 받아주고
청춘의 심장을 불태우며
온 나라에 기쁨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

우리 수령님, 우리 지도자동지
그토록 석탄을 귀중히 여기시기에
제대배낭을 스스로
탄전에 풀고
갱속으로 뛰어든 불같은 사람들

얼마나 뜻깊은 사람들인가
 남모르는 그 숨은 위훈의 자욱자욱으로
 막장길에 위훈을 새기는이들
 빛나는 조국의 번영을
 량심으로 떠받든 사람들

잊지 못하노라 내 순간도
 안주탄부들 그 불같은 심장을,
 하기에 내 침상머리맡에 놓은

석탄덩이에서 그들의 말없는 당부를 안고
 나는 이 노래를 스스로 부르노라

부르리라, 진실한 이 사람들을
 석탄이 지피는
 그 불처럼 뜨겁게
 나도 조국에 열도를 더해주는
 한점의 불이 되고저!

출장온 사람

변홍영

내 렬차에서 만난
 반백의 한 과학자
 그도 나처럼
 이 탄광에 출장오는 사람

내 몇번 취재차로 다녀갔어도
 탄광에 나를 아는 사람 별로 없어
 생소한고장이나 다름없건만
 그는 달랐다, 그가 탄광역에 내리자
 다정한 이웃처럼 구면의 벗처럼
 따뜻한 눈길들이 그를 맞았다

그는 누구인가?
 어찌하여 탄광에선
 그를 모르는 사람 없어
 길가에서도, 사무실에서, 사택마을에서도
 그토록 한식술처럼 맞아주는것인가?!

그와 함께 막장길을 걸으며
 나는 보았다
 그가 발명한 새 채탄법이
 얼마나 흥겨운 로동과
 조국의 번영에 찬 앞날을
 막장들에 열어놓았는가를

새 동발을 먹인
 갱막장의 둥근 천정밑에서
 쏟아지는 탄폭포를 바라보며
 탄부들과 함께 흐뭇이 웃고있는 그 모습
 불현듯 나는 그앞에서
 가슴이 후더위움을 금할길 없었다

그의 머리에 밝은 안전등불빛이
 어쩐지 나에게
 심장이 타드는 그의 고심에 찬
 탐구의 그 불빛처럼 생각되어서
 이 나라의 수많은 막장들에 남겼을
 그의 피어린 나날들이 떠올라서

아,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의 뜻을 안고
 그는 정녕 얼마나 기나긴
 실패와 성공의 낮과 밤을 걸어왔으랴
 때로는 쏟아지는 석수를 헤치며
 때로는 예고없이 막장에 실리는
 무거운 지압을 한가슴에 안고 모태기며

이 나라의 무진장한 석탄매장량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는 사람
 수천길 땅속에서 땀에 젖어 일하는
 탄부들의 수고를 다 안아보며
 한생토록 자신의 무거운 사명감을
 두어깨에 걸메고 사는 과학자

그는 누구인가
 그는 온 생의 기쁨과 보람을
 탄과 함께 나뉘온 사람
 이 나라의 검은 탄빛속에 희어진
 그의 반백의 머리칼앞에
 머리속이라

오, 자신의 젊음과 피를 바쳐
 조국의 부강을 한생의 목표로 삼는
 이런 《출장원》들에게
 조국땅위에 생소한고장 없더라

나는 50 대의 청춘

김종백

이젠 잊하지 않노라
젊은이들 나를 아바이라 불려도
귀밑머리 희여지고
내 나이 50 고개 넘어섰어도

렬차안에 올라도
나를 위해 내어주는 빈자리
겨울날 어느 집을 찾아가도
아래목으로 이끄는 친절 한 손길

다만 나이먹는탓에
자주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처럼 서운한 일 어디 또 있으랴

하지만 나에겐 자랑스런 추억이 있나니
우리 수령님 개신광장에 모셨던 그날
몽당 묻은 맨발로 달려왔던
나는 10 대의 소년

머슴살다 돌아간 아버지 대신하여
내 이름 석자 뚜렷한 패말이
분여지 발머리에 박힐 때
나는 그것을 부어안고 울던
땅의 어린 주인

수천년 세월
조상들이 지너보지 못했던 그것
땀땀이 고개를 쳐들고 웃을 권리가
처음으로 나에게 차례졌다
제땅을 위해 흘리는
소중한 땀방울도

다시 빼앗길수 없는 그것을 위해
원썩들이 터친 침략의 포성을 맞받아
나는 총을 메고나섰던 청년

류산탄 소나기에 강물이 끓던
락동강을 건느며 나는 알았더라
내 아니면 그런 강 건널이 없음을

미제의 《정예사단》이 처박힌
《함정굴》을 굽어보며
뜨거운 탄피를 깔고앉아
설날의 축배를 들 때

나는 알았더라
내가 먹는 또 한살의 나이가
위훈어린 강철의 년륜이 되어
나의 조국을 더욱 강대하게 자라게 함을

전승의 광장에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승리의 만세를 불렀노라
다시 돌아온 내 마을 들판에서
지경뚝을 밀어내고
협동화의 씨앗을 뿌렸노라

자랑하노라!
위대한 변혁이 이룩되는 시대에
청춘기를 바친
우리의 50 대를

행복이 꽃피는 오늘의 조국땅에
다시 태어나 살고싶은것이
사람들의 소원이라 하건만

그 어떤 기적의 손길이
나에게 다시 10 대의 나이를 선사한다 해도
구태여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리
이 땅에 살았고 살아갈 그 어느 세대보다
우리는 보람찬 세월의 행군길을 걸어왔기에

들끓는 논벌 돌격대기발밑에
새 농기계 만드는 공장의 창가에
아들딸의 혼사일을 의논하는 비좁은 구들우에
나를 위해 비어둔 자리가 있다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조언을 주라고

열정과 활력에 넘쳐 달리는
청춘조국의 한복판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마련해주신
나의 자리가 있어

영광이여라
나의 50 대여!
희여지는 머리카락, 이마의 잔주름은
시대가 준 청춘의 증표로 빛나라!

반전, 평화의 이름으로

오영재

남의 나라이기에
남의 땅이기에
내 조국 남녘에
천여개의 핵기지를 들이세우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는 미제

핵타격의 첫 희생물이 된다 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남의 민족
남의 혈육들이기에
마음대로 그것으로 위협하고 공갈하는
살륙의 핵탄두
20 세기의 악마

이 땅에서는
갓 태어난 하나의 어린 생명도
그 무서운 악마의 눈에 겨누어지고있다
피땀 흘려 창조한
아름다운 거리, 정다운 지붕들
새로 입힌 공원의 푸른 잔디
아침에 피어난 한떨기 꽃도
핵발사대의 그 과녁안에 있다

한걸음 옮길 때마다
따르며 노려보는 악마의 조준경
단풍이 타는 가을날
등산길을 오르는 유람객의 저 걸음에도
고요한 달밤 사랑에 취한
행복한 사람들의 정다운 그 속삭임에도
살륙에 날뛰는 미친 눈이 뒤쫓고있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 쾌락이 없고
전쟁이 아니면 살아갈수 없는자들
우리가 지켜온
조선의 저 푸른 하늘에
불구름의 《버섯》을 그리고있지만

기억하라
우리의 저 푸른 하늘은
인류의 하늘
우리가 숨쉬는 맑은 공기도
지구우에 흐르는 인류의것

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그대가 단란한 식탁에 마주앉아있건
해빛 눈부신 여름날의 바다가에서
해수욕으로 하루를 즐기건
잊지 말라
인류의 운명에 대한 악마의 그 위협을

문명을 불태우고
세계를 멸망시킬
파국적인 운명의 계선에서
번뜩이는 전쟁의 눈

우리 힘이 강하면 비굴해지는
그것이 바로 미제국주의
인류의 생존을 지켜
20 세기 악마의 피발선 그 눈에
반전, 평화의 이름으로
쓰리고 매운 죽음의 채를 뿌리라

평화의 아름다운 노을과 미소가
전쟁의 불구름을 타승하는 이 시대
우리의 푸르고 아름다운
행성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제국주의악마의 눈을 멀게 하라
우리의 맑고 푸른 저 하늘과
세계의 정의의 불줄 모르는
원쑤의 그 눈에 무서운 멸망의 지옥이 비끼게 하라
전쟁에 미친 불장난에
미제원쑤 그놈이 타죽게 하라!

평 화

박호범

친구들은 말하더라
이제는 나이에 어울리게
인생의 가을을 사색도 하고
평화론 봄빛으로 노래를 엮으라고

그리고 이끌더라
동요시절의 그날과 같이
한여름의 낚시터 푸른 강변으로
해지는 유원지 즐거운 놀이터로

그래서 봄날의 풀밭에 누우면
왜서인지 여기 어디에 토목화점을 파던 생각
물맑은 강변에 걸터앉으면
어째선지 도하전의 그 밤이 떠오르고

이런 날 이런 순간이면
생각에도 불이 달리는가
어제는 포화로 이 땅을 채더미로 만든 미제
오늘은 핵무기로 이 땅을 없애려는 미제

놈들이 조선사람이야 죽건말건
이 땅에 핵참화를 들썩우려고
그렇듯 미쳐 날뛰기에
우리는 평화의 성새를 높이높이 쌓아올리나니

평화, 이것은
사람들 가슴속에 타오른 정의의 불길
평화, 이것은
후퇴를 모르는 력사의 도도한 흐름

나아가면 이기는것
물러서면 지는것
그 불길로 미제를 공포에 몰아넣고
그 행진으로 지구를 휘감아가나니

우리 아닌 그 누가 평화를 지키고
우리 아닌 그 누가 과감히 나서랴
내 나라 조선을 위하여
만민이 사는 이 행성을 위하여

오늘에도 래일에도
마음껏 봄노래를 부르기 위해
영원히 인류의 머리위에
푸른 하늘이 비끼도록 하기 위해

오늘에 놓치면
래일에도 없는것
그렇다, 평화는 인류의 생명
그렇다, 평화는 행성을 휘감는 자주의 행진이다!

고요한 강기슭에서

박래설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대동강반의 저녁
록음 우거진 고요한 강기슭에서
처녀와 총각이 속삭이네

나란히 정답게 선 그들의 어깨우에
수양버들 한그루 가지를 흐느적이고
물결은 발밑에 구울러와
처절씩-쉽없이 부서지는데
이 저녁 행복에 겨워 속삭이는
저 청춘들이야 어찌 알수 있으랴

그것은 흘러간 나의 청춘시절의 추억...
나의 동갑이 친구
한 처녀를 사랑했거니
하루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노을비낀 저녁이면
그들은 여기 강가로 나와
자주 만나군했다네
바로 저기-
처녀와 총각이 서있는 저 기슭에...

그 밤도 그들은 저렇게 나란히 서서

밤이 지새는줄 몰랐다네
로동과 우정 속에 벅차오른
하루일의 보람과 기쁨을 두고
꿈을 두고 아름다운 미래를 두고

그런데 끝을 모르는 그들의 이야기
새벽과 함께 끊어지고말았다네
그 새벽에 원수들은
웃음소리, 노래소리 넘치던 우리의 마을과 거리에
폭탄을 던졌거니

그들은 헤어졌다네
그길로 전선으로 떠났다네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강기슭에 묻은채
조국을 지키려
행복을 지키려

포화의 그날은 물러가고
마침내 기다리던 승리의 날은 왔었네
하건만 그 처녀와 총각
다시는 이 강기슭에 나오지 못했다네
조국의 이름없는 어느 산마루, 골짜기에서
그들은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영웅답게, 청춘답게 전사했거니

우리는 그들을 잊지 못했네
다시는 오지 못할 그들을 추억하며
이 강기슭에 깊숙이 삼을 박았네

원수의 폭탄에 무너진 강기슭에
화강석을 다듬어 란간을 쌓고 보도를 깔았네
후날 이 강반을 덮을 싱싱한 그늘을 그려보며
기슭에 나무도 떠심고
황홀하게 무리등도 올렸네
청춘들 마음껏 거닐라고

아, 오늘은
행복의 불빛이 창문마다 웃어반기는
여기 락원의 기슭
밤은 명절처럼 쉽없이 건설의 꽃보라 날리는데
어디선가 물결따라 실려오는
손풍금소리... 행복의 웃음소리...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저녁인가
또 얼마나 부러운 청춘들이나

그대 마음껏 거닐라 마음껏 속삭이라
하지만 단 한가지 -
내 바라노니 청춘들이여
잊지 말라, 심장에 새기라
아름다운 이 밤들을 지켜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그리고 살라, 청춘을 참되게...
그대들이 오늘을 위하여
그대들의 행복을 바라며
생을 값있게 바친것처럼
그대 또한 아름다운 미래를 가꾸기 위하여...

◇가사◇

내 고향 열두삼천리

박원식

가도가도 끝이 없는 네 고향은요
금나락만 물결쳐서 열두삼천리나요
나락속에 무르익는 우리네 행복이
더더구나 무르녹아 열두삼천리지요

땅우에만 풍년드는 열두삼천리나요
땅밑에는 검은금의 열두달풍년이요
예보다 풍요하고 기쁨진 벌은 없어
사시장철 꽃이 피는 열두삼천리지요

땅우에도 땅속에도 풍년들어서
열두나 삼천리는 살기 좋은고장
사람마다 힘에 넘쳐 행복을 가꾸니
해해년년 넓어지는 열두삼천리라요

아 수령님 손길아래 당의 해발아래
해마다 넓어가는 내 고향 열두삼천리라요